



Seoul National University U.S. Alumni News

www.snuaa.org 서울대미주동창회보

249호 2015년 1월

서울대 미주 동창회
1952 Gallows Rd., #206
Vienna, VA 22182, USA
Tel. 703-462-9083 Fax. 703-462-9083
e-mail: snuaausa12@gmail.com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근하신년(謹賀新年)
“2015년 대도약 2년차”

미주 동창회 운영 Manual 제작 추진

미주 동창회 회장단에서는 회장임기 2년간에 치러지는 각종 행사와 책임자들의 업무내용과 절차를 기록한 담당부서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차제에 만들기로 하였다. 매뉴얼이 있으면 다음 회장과 임원 여러분들이 2년간 업무를 빨리 파악하여 배우고 진행하는 학습과정을 대폭 줄여주는 효과가 기대되고 동창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회장, 후원회장(부회장), 프로젝트 담당 부회장(Brain Network; 한국학, 한인 및 주류 사회 봉사, 미국대학 동창회 교류담당, Mentoring, etc.), 차기회장(수석부회장), 감사 Manual.

▶사무총장, 총무국장, 재무국장, 조직국장, 사업국장, 섭외국장, Brain Network Manual.

▶회보 편집위원장, 세척위원

장, 인선위원장, 모교 발전기금위원장, 장학위원장, 포상위원장, IT 위원장, Web Master, Banquet위원장, Golf 위원장 Manual.

▶각 책임분야별 연간 행사에 대한 일람표 작성

▶각 책임분야 서류에 대한 표준 양식 준비.

미주 동문주소록 표준화와 전문인력 자료수집

2014년 12월 중에 2주일에 걸쳐서 각 지역 동창회 회장에게 미주동창회 본부에서 쓰고 관리하는 MS Spreadsheet으로 작성된 해당지역 동창회원 명부를 보냈다. 지역에서 관리하는 명단과 대조하여 가장 최신 명부를 작성하여 사용하고 본부에도 보내 주기를

당부했다.

지역 동창회에 바라는 것은 표준화된 Roster & Brown Network file 인데 전문인력 자료를 첨가하는 대로 1차, 2차, 3차..., 등으로 보내 주면서 추가 하는 부분을 color highlight를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미주 동문들의 전문인력 Brain Network 자료는 우리 서울대 미주 동창회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산(the best asset that no other organization has)으로서 소중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다. 이 자산으로 모교와 전문지식 교류는 물론 모교 학생들을 mentoring할 수 있으며 지난 제23차 평의원회에서 결의한 한국학 연구 지원과 연구소 설립 사업에 필요불가결한 요소다. 동창회보를 위해서는 각 분야에서 활약하



시카고 동창회 김사직(상대 59) 전 회장

Presidential Volunteer Service Award

Asian Chronicles USA 의 Outstanding Statesman Award도 받아 겹경사

시카고 동창회 김사직(상대 59) 전 회장이 지난 11월 24일 오바마 대통령이 수여하는 Presidential Volunteer Service Award를 받았다. 또한 Asian Chronicles USA 가 수여하는 Outstanding Asian Statesman Award도 받았다.

김사직 전 회장은 시카고 동창회장, 한미장학재단 이사, 시카고 한국문화회관 회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1년 동창회 회장 재임시 이용훈 동문을 시카고에 초청, 장학기금마련 독창회를 성공적으로 주관했고, 한국문화와 미국문화교류에 많은 노력을 해온 공로가 인정됐다.

이날 Chicago Shiller Park 에 있는 Sheraton Four Point Hotel 에서 일리노이주 총무처장관 Jessi white가 오바마 대통령을 대신해서 시상했다

사진은 시상식 장면으로 왼쪽에서 두번째가 김사직 전 회장이며 오른쪽은 Jessi white 총무처장관과 그의 셋째 손자다.

Asian Chronicles USA 에서 매년 선출된 사람에게 주는 상 중 Outstanding Statesman Award(지도자 상)는 가장 높은 상이다.

김 전 회장은 “이렇게 영광스런 상을 두개나 받게 돼 영광이다. 함께 해준 가족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

<글 = 김호범(상대 69)
시카고 동창회장>

는 전문인 동문들의 필진 Data Pool로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표준화된 25개 지

역 동창회 동문 주소록을 merge 하면 미주 동문 주소록을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다.***

조지아 공대 전 교수 김종만(공대 85) 박사

‘컴퓨터 블랙박스’ 세계 첫 개발

해커활동 기록보존, 사이버 범죄 예방과 추적에 획기적 공헌 예상

컴퓨터 네트워크에 침투해 정보를 빼내거나 프로그램을 망가뜨리는 해커들의 활동을 기록하고 이를 보존하는 ‘컴퓨터 블랙박스’가 김종만(공대 85·사진) 박사팀에 의해 처음 개발됐다.

모교 공대 졸업 후 LG전자를 거쳐 조지아 공과대학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에서 후학을 지도한 김종만 전 교수는 조지아 공대에

서 지난 해 11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제품 ‘서버 블랙박스’를 발표했다.

제품 개발을 위해 ‘소테리아 시스템’을 창업하고 올 여름 잠시 학교를 떠난 김 전 교수는 모든 비행 기록을 담은 항공기 블랙박스에서 착안해 ‘서버 블랙박스’를 만들었다.

그는 “하드웨어에 장착해 해커 활동을 기록하는 모듈 형식의 제품은 ‘서버 블랙박스’가 세계 최초”라고 말했다.



약 2년 반 동안 사재와 지원금을 합쳐 100만 달러를 투자해 연구한 끝에 ‘서버 블랙박스’를 출시한 김 전 교수 연구팀은 올 초 발표된 미국 특허청의 특허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항공기 블랙박스와 비슷하게 해커뿐만 아니라 회사의 내부 최고 책임자라도 모든 정보를 지울 수 없도록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김 전 교수는 “사이버 공격이 지능화·조직화하는 추세에서 해커들이 교묘하게 시스템에 침입해 침투 흔적을 지우고 빠져나가는 일이 다반사”라며 “그러다 보니 언제, 어떻게 해킹을 당했는지 모르는 일도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서버 블랙박스’를 컴퓨터에 장착하고 제품과 더불어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를 깔면 사용자는 해커의 침입 여부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2면에 계속>

동창회비 30% Campaign

미주 동창회보 발행과 동창회 운영에는 동창회비를 비롯한 각종 후원금이 원동력입니다. 1차 연도에는 17%를 달성, 이번 2차 연도 목표는 30%를 달성하려고 하오니 재정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동창회비를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24차 전국 평의원 회의

▶일시 : 6월 19일(금)~21일(일) ▶행사 내용: 제4회 Brain Network Symposium, 제24차 전국평의원회의(제14대 미주 동창회장 선출 포함), 친선 골프대회(Spouse 위한 별도 관광 프로그램 계획) ▶장소: DoubleTree Suites by Hilton Hotel Philadelphia West. 640 Fountain Rd, Plymouth Meeting, PA 19462. 610-834-8300. http://doubletree3.hilton.com/philadelphia-west-PHLGHDT/index.html Single bed : \$ 114+tax (+1 sofa bed) Double Beds : \$ 124+tax (+1 sofa bed). Reservation 마감 6월 1일 ***

NON-PROFIT
US POSTAGE PAID
DULLES, VA
PERMIT No. 645

미주 동창회보 미 대학 도서관에 보내기로

그 동안 미주 동창회보는 서울대 미주 동문들을 위주로 배부하였다. 미 한인사회와의 교류차원에서 파트너 단체와 한국계 신문사에도 보내고 있는데 앞으로는 Library Congress (DC)와 워싱턴 DC 지역 대학 도서관을 시작으로 선별적으로 미국내 유명대학 도서관 등 미 주류사회에도 보내기로 하였다.

이같은 조치는 한인사회는 물론 미 주류사회에 서울대 미주동창회 활동을 알리고 따라서 서울대(SNU)를 미국사회에 알리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서울대 미주 동창회 활동을 동문사회에만 국한하지 않고 미 한인사회 및 미 주류사회에 동참하



↑ 워싱턴의 국회 도서관. 이 국회도서관은 단순한 도서관이 아니라 미국의 모든 정신들을 보관하고 있는 신성한 곳으로 알려졌다.

여 미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구대 회장단의 선거공약이기도 하다.***

이우환(미대 56) 화백

제24회 ‘자랑스런 서울대인’ 상

중퇴한 예술가 첫 단독 수상...중요한 건 인문소양, 한국 학교에서 배운 건 ‘사람’ 예술가이기 전에 지식인돼야

서울대 학창시절을 회상하던 이우환 화백이 상념에 젖었다. “전쟁직후 모두 참 가난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힘들었기에 로망(낭만)이 있는 청춘이었어요. 조금밖에 안 다녔는데... 내가 받을 상이 아니라니까요.” 지난 11월 20일 ‘제24회 자랑스런 서울대인’ 상을 받은 이우환(78) 화백은 내내 “나는 부적격자” 라면서도 싱글벙글했다. “에이, 그래도 이력에 ‘서울대 중퇴’는 꼭 넣더군요.”

축하하러 시상식을 찾은 학교 후배이자 동료인 조각가 심문섭(71) 동문이 건넨 농담에 그는 얼굴을 붉혔다. 이우환 화백은 미대 회화과 56학번이지만 졸업장은 없다. 입학 후 2개월 반 다니고 일본으로 건너갔다. 신문기자였던 부친 심부름으로 도쿄에 있던 삼촌에게 약을 전해주러 갔다가 눌러앉았다. 그리고 니혼대 철학과에 진학했다. ‘56학번 동기’인 윤명로

(78)화백은 “범상치 않은 친구라 생각했는데 중적을 감추는 바람에 한국인 밀항자를 가렸던 오무라 수용소에 수감됐다는 소문까지 나돌았다”고 회상했다.

1991년 ‘자랑스런 서울대인’ 상 제정 이래 예술가가 단독으로, 게다가 중퇴한 동문이 수상한 것은 처음이다.

이철수 서울대 기획처장은 “선정과정에서 이견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잘난 사람’ 보다는 ‘된 사람’ ‘든 사람’으로 ‘자랑스럽다’는 개념을 재정의하자고 의견을 모은 결과 이 작가를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시상식 참석차 파리에서 일시 귀국한 이우환 화백을 만났다.

—한국대학에서 배운 것은. “원래 문학을 하고 싶었다. 고교 2년 때 조선일보 신춘문에 동시 부문佳作로 당선됐다. 투고한 시가 두 번 실리기도 했다. 문리대를 가고 싶었는데 성적이 모자라 미대에 갔다. 석고 대생도 안 배우고 실기 시험을 쳤는데 학장 장발 선생이 ‘이게 그림이냐’고 호통치더라. ‘김홍도나 정선이 그런(서양식) 대생 했느냐’고 대들었는데, 필기 성적이



좋았는지 붙여주더라.(웃음) 서예가 손재형 선생과 글씨에 대해 얘기도 난다. 내가 서울대에서 얻은 자산은 ‘사람’이었다.”

—미술 교육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예술가는 먼저 지식인이 돼야 한다. 인문학적 교양을 쌓고, 어학 교육으로 내외적 통풍이 돼야 한다. 서울대부터 개혁해야 한다. 밖을 보며 인재 배출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한다.”

—1976년 작 ‘선으로부터’가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216만5천 달러로 뉴욕 경매시장 이 화백 작품 거래가 중 최고가였다.

“값이 나를 가늠하는 잣대가 돼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관심 없다.” *** <조선일보>

<1면에서 계속>

김 전 교수는 아울러 “사이버 범죄 재판에서 그간 해커의 침입과 활동경로는 문서에 작성된 글자로만 확인됐으나 해커의 모든 기록이 담긴 ‘서버 블랙박스’를 사용하면 이를 영상으로 시연할 수 있다”며 증거 보존 가치도 있다고 소개했다. 현재 한국의 합동 참모본부와 국방과학 연구소, 경찰청 사이버 대응반 등에서 이 제품에 크게 관심을 표명하고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테리아 시스템은 이 제품이 해커의 주요 공격 대상인 은행과 공공기관 컴퓨터에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며 정보의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점 덕분에 병원 의료기록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 전 교수와 함께 ‘서버 블랙박스’를 개발한 샌안토니오 텍사스대학 전자공학과의 이정희(38) 교수는 “보안과 관련한 하

드웨어·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했다는 사실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소테리아 시스템은 사적인 회신을 사용하는 기관을 위해 개발한 ‘서버 블랙박스’의 세계 시장 규모를 8천500만 달러, 일반 소비자들을 겨냥해 이날 함께 발표한 웹 기반의 해커 침입 방지 시스템인 ‘스텔스 실드’의 규모를 2억 달러(2천213억원)로 전망했다.*** <한국일보>

연두시(年頭詩)

을미년(乙未年) 새해

서윤석(의대 62)VA
한국 현대시인협회 회원
미주 동창회보 편집위원



을미년 새 아침
손꼽아 기다리던
당신을 맞습니다

질병과 전쟁
굶주림에 떨면서
찬 바람 에이는
얼어붙은 강가에서
당신을 맞습니다

갈등의 수천 년
떨쳐버리고
서로 용서하며
어루만져줄
따뜻한 손길이어

울음을 멈추고
가슴을 열고
빵과 피를 나누는
사랑의 해를 맞습니다

을미년 새 아침
자비의 태양
눈부시게 솟아오르는
어여쁜 당신을 맞습니다 ***



↑미주 동창회 임원진 중 일부가 지난 해 12월 동창회 사무실에서 회의 중인 모습이다. 왼쪽부터 이우진 섭외국장, 한정민 총무국장, 오인환 회장, 김정식 사업국장, 정평희 사무총장.

미주 동창회 임원회의

미주 동창회 임원들이 지난 해 12월 Virginia주 Vienna에 위치한 미주 동창회 사무실에서 정기 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2014년 한 해를 결산하고 다가오는 2015년 새해를 맞아 치러질 각종 행사와 업무

진반에 관한 내용에 대해 다양하게 논의했다. 2015년에 치러질 가장 큰 행사로는 6월 19일(금)부터 필라델피아에서 제24차 평의원 회의가 치러지게 되며 이 회의에는 제14대 미주 동창회장 선거도 있다.***

차 례

- 3.<주필칼럼>태평양 시대와 한국의 역할/ <영시해설 감상> When You are Old
- 4.<기획>잊혀진 전쟁, 1812년 전쟁
- 5.<경제칼럼>아메리칸 드림은 어디에/ 대 학원 동창회의 어제와 오늘
- 6-7.<모교소식>거부반응 없는 인공심장판 막 첫 개발/ 오병희 서울대병원장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수상/연평도서 첫 서울대 합격생/수능만점자 최종 29명, 10명

- 은 서울대 정시지원 못해/투자귀재 짐 로저스 서울대 강연 ‘젊은이여 농대가라’ / 모교-만도 친환경 자동차 개발협력/서울대 영어신문 ‘올해의 대학신문상’ 수상
- 8.<보건의학칼럼>안락사 존엄사/<동문 시 감상>미용실에서
- 9.<건강의학 칼럼>환경호르몬과 당뇨병
- 10.<시국칼럼>북한 찬양하는 사람들이 꼭 봐야 할 이것/ 신중 기해야 할 말,말,말/세법에 대한 사실들/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에 관심가져주기를

- 11~13.미주 동문 동정
- 14~19.미주 각 지역 동창회 소식
- 20~21.<관악세대 아크로 광장>역지사지, 우리 민족의 구원/미생마의 꿈/상처의 주범은 좌절된 기대/미생마 같은 인생/건선증과 관절염/죽은 자와 산 자의 가르침
- 22.<독후감>작열하는 태양 아래에서 카뮈의 ‘이방인’을 읽다
- 23.<My Journey to>아메리칸드림 50년<18>
- 24.<달러 속 주인공 이야기>5~100달러 지폐 벤자민 프랭클린

- 25.<여행기>보고싶은 대동강<2>
- 26.<여행기>산티아고 순례길 낙수<1> 서울대 역사자료를 찾습니다
- 27.동창회비 납부명록
- 28-29.동문업소록, 편집후기
- 30-32.각 지역 동창회 회장단/ 광고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기고문은 회보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것은 본 회보가 Copy Right를 갖습니다.

주필 칼럼

태평양 시대와 한국의 역할



백순(법대 58) DC
미연방노동부 선임경제학자
워싱턴 한미포럼 위원
미주 동창회보 주필

지중해는 과거(19세기)의 바다요, 대서양은 현재(20세기)의 바다요, 태평양은 미래(21세기)의 바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태평양 주변 지역의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음을 뜻한다. 유로존과 러시아의 경제성장률이 0.8% 정도인 반면 지난 10년 동안 태평양 주변의 경제, 즉 북미, 라틴 아메리카, 동아시아, 남동아시아, 대양주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은 평균 1.8-5.9%에 이른다. 앞으로는 태평양의 시대가 될 것이고 한국은 이에 대응해 나갈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태평양 주변에는 두 부류의 국가군들이 태평양 시대를 주도하

고 있다. 한 부류는 북미와 라틴 아메리카를 포함한 태평양 아메리카 국가군이고, 다른 부류는 동아시아, 남동아시아, 대양주를 포괄하는 태평양 아시아 국가군이다. 태평양 아메리카 국가군은 강력한 경제력을 갖고 있는 미국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지만 서구의 식민지 통치를 오래 받은 역사로 인해 자본주의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에 반해 태평양 아시아 국가군은 전통적으로 민족주의를 고수하고 있지만 남중국해 연안을 중심으로 상호협력을 통해 아시아의 공장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 미국 시장에 판매되는 바지의 경우 단추는 중국에서, 지퍼는 일본에서, 천은 방글라데시에서, 바느질은 파키스탄에서, 염색과 마지막 공정은 중국에서 공동 제작하고 있는 것이 좋은 예다. 두 개의 태평양 국가군의 중심 경제라 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도 태평양 시대를 전망하는 데 도움이 된다. 미국은 세계 제1의 경제대국으로서 주도권을 갖고 있어 ‘우두머리(Boss)’의 기질을 보여 주고 있고, 중국은 패권주의를 숭상하는 ‘위협(Bully)’의 존재로 부상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활용해야 하는 입장에 서 있다. 한국이 어떻게 태평양 시대를 열어 갈 것인지는 이들 국가와의 전략적 관계에서 결정된다. 첫째로 한국은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미국에 치중돼 있는 동맹 관계를 발전시켜 미국과 중국을 공동의 협력자 관계로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미국과 FTA에 이어 중국과도 FTA를 체결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안보분야에 있어서도 시기적 또는 지역적으로 어려움은 예상되지만 미국과 중국을 연계하는 안보협력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둘째로 한국은 태평양 주변 국가들에게만 얽매이지 말고 다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한국은 많은 국가들과 FTA를 체결해 교역에서의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국제투자 측면에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셋째로 미국과 중국이 태평양 시대 공동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한국은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 한국은 가교 역할을 담당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감당해야 한다. 태평양을 두고 아메리카와 아시아가, 특히 미국과 중국이 공동 번영이라는 비전을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의 측면에서 전략적 타협과 대화를 해 나간다면, 21세기 태평양 시대는 활짝 열리고 한국은 그 중심 국가가 될 것이다.***

영시 해설, 감상



배효식(문리대 영문 52)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교수

When You Are Old
(그대 나이가 들 때)
By William Butler Yeats
1865~1939

When you are old and grey and full of sleep/
And nodding by the fire/
take down this book,
And slowly read, and dream of the soft look/
Your eyes had once, and of their shadows deep;
/How many loved your moments of glad grace,
/ And loved your beauty with love false or true,
/But one man loved the pilgrim soul in you,
/ And loved the sorrows of your changing face;
/And bending down beside the glowing bars,
/ Murmur, a little sadly, how Love fled/
And paced upon the mountains overhead/
And hid his face amid a crowd of stars.

그대 나이 들고 백발이 되고 잠만 자려 하고/
난로가에서 머리만 끄덕일 때, 이책을 꺼내서,
천천히 읽으며 상냥한 모습의 꿈을 꾸어 보시오/
그대가 한 때 지녔고 그리고 깊이 파여 그늘진 눈매의 꿈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대 우아함의 순간들을 사랑했으며/
그리고 거짓이든 진실이든 그대의 아름다움을 사랑했는지를,
그러나 단 한 사람만이 그대의 순례자적 영혼을 사랑했다오/
그리고 그대의 변해가는 얼굴의 슬픔을 사모했다오/
그리고 붉게 타오르는 난로가에서 허리를 굽혀내리며./
중얼거리구려, 좀 슬게, 사랑하는 이가 어떻게 떠나/
그리고 산 꼭대기를 걸어 넘어가/
그의 얼굴을 별들의 무리 속에 숨겼는지를(중얼거리시구려).
►구성 = 이 시의 주제는 사랑이며 3절로 구성, 4행으로 한 절을 만들고 있다. 1행과 4행은 각운(脚韻)이 sleep과 deep, 2행과 3행은 book과 look으로 특히 각운 구성(Rhyme Scheme)과 배열이 잘 돼 있다. 각운이란 단어 또는 음절(Syllable)의 음을 같게 하는 것이다. 영시에는 또 운율(Meter)이 있는데 이는 법치로 단어나 음절에는 강약 또는 약강의 음들이 있다는 뜻이다. 이 시는 약강으로 5개의 발걸음 Iambic Pentameter(弱強 5步格)의 시다. 이 시에는 상징적 표현이 들어 있다. This book(추억이 담긴책), Love(진정으로 사랑한 남자), and Stars(하늘나라의 모습, 세상을 떠난 위대한 사람들) 같은 단어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언어연구 = 1절에서 by the fire(난로가에서), take down this book(이 책을 꺼내), soft look(어진, 상냥한 모습). 2절 glad grace(하나님께 받은 은총의 생활), pilgrim soul(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 3절 beside the glowing bars(Bar는 보통 술집이거나 여기서는 1~4행의 운을 맞추기 위해 집안 작은 식당 등 술과 커피도 마시는 부엌에 달린 bar일 수도 있으나 ‘불타오르는 난로가’로 표현이 좋다). 3절 2행의 Love가 대문자인 것은 많은 사람들 중 단 한 사람인 남편 또는 가장 사랑한 한 사람을 뜻해 대문자를 쓴 것 같다.
►시 감상 = 어법(Poetic Diction)에서 제1절 늙고 백발로 잠에 가득찬 할머니에게 젊은 시절의 아름다운 기억들이 담긴 책을 읽으면서 옛날을 더듬어 보라고 권한다. 2절에서 시인은 그녀의 아름다움을 사랑한 많은 사람들을 상기시키고 있다. 옛날의 아름다움은 지금 변해가는 용모의 슬픔과 대조된다. 그러나 그녀 마음에는 하나님을 신봉하는 영적 힘(Pilgrim Soul)을 가지고 있다. 3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사랑했지만 진정 사랑한 단 한 사람만 회상하라고 권한다. 그 사람의 형상은 지금은 회피하지만 앞으로 하늘에서 볼 수 있기에 별들에 파묻혀 있는 무조건적 사랑인 남편을 회상하면서 중얼대라고 권하는데 중얼거린다는 말은 노인의 모습을 멋있게 표현한 말일 게다. 이 시는 낭만적인 시상(詩想)으로 묘사됐다.***

게시판

제24차 전국 평의원 회의

►일시 = 2015년 6월 19 - 21일
►6월 18일(목) = Brain Network Symposium 연사와 참가자 도착 & 저녁식사
►6월 19일(금) = 오전 8:30 제4회 Brain Network Symposium 시작 + 서재필 박사 기념관 Tour + 전야제 겸 지역 동창회 장기대회
►6월 20일(토) = 오전 9:00 제24차 평의원회의 + 제14대 미주동창회장 선거 + 저녁만찬
►6월 21일(일) = 오전 11:00 전국 평의원 친선 골프대회(서정화 총동창회장 순회배)
►장소 = DoubleTree Suites by Hilton Hotel Philadelphia West 640 Fountain Road, Plymouth Meeting, PA 19462 (T)610-834-8300 (F)610-879-4242(F) http://double-tree3.hilton.com/en/hotels/pennsylvania/doubletree-suites-by-hilton-hotel-philadelphia-west-PHLGHDT/index.html Single bed: \$114 before tax (+1 sofa bed) Double Beds:\$124 before tax (+1 sofa bed)
►Reservation cutoff date = 6월 1일. but first come first served at the above rate
►연락처 = 오인환 회장(전화 301-775-3919), 손재욱 차기회장(전화 267-736-2992) Janice Haahs(JHaahs@timhaahs.com)***

Homepage Strip 광고 모집

Monthly updates and maintenance를 위한 안정적 자체비용 확보를 위해 Homepage에 strip 광고 기증을 해주시길 동문들을 찾고 있으며 동창회와 관련 사업체와 광고계약을 하고자 하니 관심있는 동문들과 관련 사업체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원영 전화 646-623-7701 Webmaster(wonyoungkim1@gmail.com),
►손재욱 IT위원장 전화 267-736-2992) jhaahs@timhaahs.com,
►오인환 회장 전화 301-775-3919(iah0858@comcast.net)***

오인환 회장 출장 일정

2015년 올해에는 2월 중순 경 남가주 동창회 방문.
그후에 Chicago, Minnesota, San Francisco, Texas 등 지역의 동창회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IRS감사대비 내부감사 일정과 담당 감사위원

►감사기간 = 2014년 1 ~ 12월-100% 마칠 때까지 요청한 세금 보고자료 보내주기 바랍니다.
►박숙 위원(Chicago,847-707-9693 jhcspe@naver.com,) = 달라스·록키마운틴·시카고·중부텍사스·휴스턴 동창회.
►김창수 위원(NY, 212-760-1768 .changsookimcpa@hotmail.com) = 뉴욕·뉴잉글랜드·조지아·오하이오·필라델피아 동창회.
►김지영 위원(남가주,213-308-0009 jkym@yahoo.com) = 남가주·북가주·샌디에고·아리조나·하와이 동창회.
►노상문 위원(DC, 703-749-1110 cpa_noh@yahoo.com) = 미네소타·워싱턴 DC·플로리다·캐롤라이나·테네시 동창회.
►배규영 위원장(Heartland, kybae8533@gmail.com, 913-709-2335) = 알래스카·오레곤·워싱턴주·유타·하틀랜드 동창회. 내부감사에 대한 문의는 배규영 위원장께 연락을 바람. ***

지역 동창회 회장단 교체 소식

►Atlanta 동창회 = 신임 회장 강창석(의대 73) kangs5@gmail.com.
►북가주 동창회 = 신임 회장 박희례(간호대 73)
►New York 동창회 = 신임 회장 박승용(의대 65)
►Hawaii 동창회 = 신임 회장 성낙일(해양 77) nsung@hawaii.edu.
►San Diego 동창회 = 신임 회장 김주성 회장(농대 83) briankim00@yahoo.com
►Philadelphia 동창회 = 신임 회장 전방남(상대 73) jeonbana@gmail.com, 610-220-3461.
►Minnesota 동창회 = 신임 회장 조해석(공대 84)
►Rocky Mountain 동창회 = 신임 회장 송요준(의대 64) yojunsong@me.com ***
<각 연락처는 30면>

지역 동창회장님들께 드리는 부탁사항

►지역동창회 주소록을 표준화된 Template Spread Sheet를 써서 유지해 주시고 본부에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동창회를 대표하는 평의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연회비(\$100)를 납부해주시고
►지역동창회 분담금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음대 김귀현 학장께서 미주지역 음대 동문들의 연락처를 알고 싶어합니다. 아직 보내지 못한 지역 동창회는 속히 본부로 보내주십시오. 지금까지 연락처를 보내주신 지역 동창회는 DC, S.California, N. California,NY,Philadelphia, Washington State,Oregon,Dallas Texas,Central Texas,Minnesota, Tennessee, Vancouver 등 12개 지역 동창회입니다.***

<기획> 미 독립전쟁

‘잊혀진 전쟁, 1812년 전쟁’



이회백(의대 55) Seattle

지난 해 12월 24일은 미국이 독립을 위한 War of 1812 평화협정, ‘Treaty of Ghent’ 체결 200주년, 그리고 올 1월은 마지막 전투인 ‘Battle of New Orleans’ 200주년이 되는 해다. 이를 맞아 이회백(의대 55) 동문이 이에 관한 글을 보내왔다.

‘Justice without power is empty. But power without justice is simply known as violence’ 미야모토 무사시(宮本 武藏). History is written by the victors. Winston Churchill

1812년 전쟁은 신생국이던 미국이 당시 최강 영국과 그 동맹인 인디안을 상대로 1812년부터 2년 반에 걸쳐 싸운 전쟁이다.

이 전쟁은 영국과 미국 두 나라에서 다 잊혀질 만큼 참전 인원 수나 전쟁피해자 수로 볼 때 다른 전쟁에 비해 미미한 전쟁이었지만 그후 북미의 판도를 결정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미친 전쟁으로 미국에 사는 우리로서 한 번 알아 볼만한 전쟁이다.

▶전쟁의 원인 = 근본 원인은 독립한 미국의 영토를 독립 당시의 13개 식민지영역으로 국한시키려는 영국의 정책과 영토를 확장하려는 미국의 정책이 충돌한 데 있다. 여기에 미국의 정책에 반기를 들었으나 역부족인 인디안들이 영국 편을 들어 같이 싸우게 된 데 있다. 이에 겹쳐 겹쳐 당시 나폴레옹과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영국의 두가지 정책이 미국을 자극, 전쟁을 일으킨 직접 원인이 되었다.

두 가지 정책 중 하나는 영국과 프랑스 전쟁에 중립을 지키며 프랑스와 교역하는 미국에게 프랑스로 향하는 물자는 전부 영국을 거쳐 관세를 물어야 한다는 조항이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적대행위로 간주한다고 규정했다.

다른 하나는 프랑스와 전쟁으로 인해 많이 요구되는 수병을 채우

기 위해 소위 ‘Impressment’ 를 실시한 것이다.

‘Impressment’ 란 소위 ‘강제징병’ 으로 영국인은 언제 어디서든 강제징용할 수 있다는 정책이다. 당시 많은 영국선원이 영국보다 훨씬 대우가 좋은 미국함선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 ‘Impressment’ 으로 약 6천명이 영국선박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영국에서 출생한 영국인뿐 아니라 미국에서 출생한 영국인, 그리고 미국에 귀화해 미국적을 가진 자도 영국인에 속한다고 주장, 영국 액센트를 쓰면 ‘납치’ 를 당했다. 이 두 정책이 주권침해라고 미국이 분개한 것은 당연지사다.

이렇게 미국과 영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Norfolk, Virginia 근해에 있던 미국 군함 U.S.S. Chesapeake에게 영국 HMS Leopard가 접근, 영국 수병이 타고 있으니 내 놓으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도주하자 사격을 가해 3명을 사망시키고 18명에게 부상을 입힌 후 승선, 탈영한 영국 수병 4명을 연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 중 한 명만 영국 출생자이고 나머지 셋은 미국 시민권자였다. 이 사건으로 미국 여론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영국과 전쟁을 해야만 한다는 여론은 그 전부터 돌고 있었다. 그리고 전쟁이 나면 미국이 손쉽게 이길 것이라고 누구나 판단하고 있었다. Thomas Jefferson은 캐나다를 그저 행진해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 것이 된다고 말했고 당시 대통령 James Madison(제4대)은 ‘캐나다인들은 우리를 해방군으로 맞이할 것’ 이라 확신했다.

이런 상황에서 James Madison은 영국에 대한 미국의 불만(grievance)을 토로하는 편지를 국회에 보내면서 ‘무슨 조치를 할 것인가’ 하고 물었다. 전쟁권한을 달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그것을 요구하고 있음은 누구나 알 수 있었다. 이 때 미국은 두 파로 갈라져 있었다. 하나는 Republican(또는 Democratic-Republican)이라 불리는 남부와 서부에 기반을 두고 노예제도를 찬성하며 영토확장을 주장하는 과파북서부, New England를 기반으로 하는 Federalist파로서 이들은 주로 상공업자로 영국과 무역을 중시하며 노예제도를 반대하고 영



↑ 1812년 6월 18일~1814년 12월 24일까지 북아메리카 동부 해안, 걸프 코스트, 대서양 및 태평양에서 벌어진 독립전쟁에서 미국이 승리, 겐트 조약 이전의 상태(Status quo ante bellum)로 돌아가게 됐다.

토확장에는 관심이 없는 반전파였다.

전쟁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안을 하원은 79대 49로, 상원은 일주일간 격론 끝에 19대 13으로 통과시켰다. 이는 외국에 대한 미국 최초의 선전포고였고 또 가장 근소한 차로 통과된 전쟁 승인이었다. 국회의 동의를 얻은 James Madison은 1812년 6월 28일 영국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전쟁의 진행과정 = 자기 힘을 너무나 과신한 미국이 아무 준비 없이 전쟁을 시작하자 예상과 달리 계속해서 패했다. 너무나 적은 정규군, 전쟁경험이 없는 민병(militia)은 영국 정예군과 캐나다 민병, 그리고 영국과 같이 싸우는 인디안에게 계속 패했다.

전투는 처음에 주로 Upper Canada(현 Ontario)에 위치한 Detroit River, Niagara River 그리고 Montreal지역에서 벌어졌다.

첫번째 전투는 Michigan Territorial Governor William Hull이 맡게 되었는데 유능한 영국 장군이 지휘하는 영국 정규군과 캐나다 Militia 그리고 Tecumseh 인디안 군에게 별로 싸우지도 못하고 항복했다. 이것은 미국이 미국내에서 외국 군대에게 한 유일한 항복이다. 야만적(Savage)인 인디안의 학살로부터 부녀자와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그랬노라는 그의 변명에도 불구하고 그는 군법회의에 회부, 직무유기, 비겁행위 등의 죄목으로 총살형을 선고 받았으나 독립전쟁 당시의 공을 참작해 James Madison이 집행유예를 함으로서 목숨만은 건졌다. 이 패전소식에 미국은 아연실색했다.

제2의 전투는 Niagara Peninsula에서 벌어졌다. 나이아가라 폭포 하류에 위치한 Queenston Heights 지역의 강을 건너 쳐들어간 미국군은 영국 장군 Isaac Brock과 Tecumseh에 의해 대 참살을 당했다. 이 Queenston Height의 전투는 캐나다인이 가장 자랑하고 기념하는 전투다. 그러나 유능한 Issac Brock이 이 전투에서 사망함으로써 Tecumseh는 가장 믿고 존경하는 영국 장군을 잃었다.

제3의 전투는 Montreal에서 전개되었는데 미국은 전투다운 전투도 못하고 물러났다.

다음 전투는 다시 서쪽으로 이동, Indiana Territorial Governor인 William Henry Harrison이 Ohio Mume에 건설한 Fort Meigs에서 벌어졌다. 영국군이 나흘간의 포격에도 함락못하자 Isaac Brock의 후임자로 온 미지근한 General Henry Procter는 철수하고 말았다. Chief Tecumseh가 계속 싸울 것을 주장했지만 그가

철수하자 Tecumseh도 동쪽으로 이동해야 했다. 이로써 사실상 영국군과 Tecumseh의 협조는 사라졌다.

Harrison이 Lake Erie 동쪽을 장악한 후 Battle of Lake Erie에서 젊은 Oliver Hazard Perry가 영국 함대를 격파하자 Lake Erie는 미국이 장악하게 되고 보급로가 차단된 영국군은 동쪽으로 후퇴했다.

다음 중요한 전투가 ‘Battle of Thames’ 또는 ‘Battle of Moraviantown’으로 불리는 전투다. 다시 후퇴하는 영국군에게 Tecumseh는 자기는 더 이상 후퇴할 수 없다면서 버티고 싸우다 전사했다. 이로써 인디안의 저항은 끝나고 인디안 국가설립의 꿈은 사라졌다.

그 후 여러 전투가 있었으나 Lake Champlain 북동쪽에 위치한 Battle of Plattsburgh(또는 Battle of Champlain)을 끝으로 북방 경계선에서의 전투는 끝났다.

이 때 유럽에서 Napoleon과의 전쟁이 끝나자 영국은 유럽 주둔 병력을 미국으로 이동시켜 무방비 상태인 수도를 점령, 국회의 사당을 불지르고 대통령 관저를 점령했다.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대통령 부인 Dolley Madison은 워싱턴의 초상화를 틀에서 떼내 가지고 도피했다. 지금 백악관에 걸려 있는 초상화는 바로 이것이다. 백악관에 들어간 영국군은 차려놓았던 음식을 먹고 축배를 든 후 백악관을 털어 기념품(souvenir)을 챙기고는 불을 질러 전에 York(지금의 Toronto) 전투 때 당한 수모를 되갚았다.

그들의 다음 목표는 Baltimore였는데 이곳은 현명한 장군이 수비를 잘했고 때마침 태풍이 불어 폭우가 쏟아져 군인들이 찬 비를 맞고 흙탕에 빠지자 인솔자가 후퇴를 명령함으로써 육지로 진입하는 것은 포기하고 대신Chesapeake Bay를 통해 들어가려 했다.

Chesapeake Bay에 군함이 집결, Fort Mchenry에 함포사격을 25시간 가했는데 이 때 포로교환을 교섭하러 왔던 Francis Scott Key라는 변호사가 배에 갇혀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 아직도 성조기가 휘날리는 장면을 보고 지은 시가 ‘Defence of Fort Mchenry’였다.

이 시가 출판되자 미국인들의 애국심을 크게 불러 일으키고 당시 영국 social club, Anaconda society의 drinking song “Anaconda in Heaven”이라는 곡조에 맞춰 부른 노래가 후에 ‘Star Spangled Banner’로 명칭이 바뀌고 1931년 Hoover대통령 때 정식으로 미국 국가로 채택되었다.

1814년에 접어들자 양측이 전쟁에 종지부를 찍자는 논의가 제기되었다. 우여곡절끝에 맺은 조약이 ‘Treaty of Ghent’다.

Ghent는 Belgium Brussel 서남쪽에 위치한 도시 이름이다. 이 조약은 1814년 12월 24일에 체결되었으나 이 소식이 전달되는데 6주가 걸려 이것을 몰랐던 영국이 Battle of New Orleans에서 Andrew Jackson에게 대패하자 이 전쟁 전에 소집되었던 반전파 Federalist가 소집한 Hartford Convention의 결의(간단히 말해 종전을 요구하는 결의)는 웃음거리가 되고 Federalist는 몰락했다.

이 조약으로 미국과 캐나다의 경계선은 전쟁 전으로 돌아가게 됐다. 그 예로 영국이 차지했던 Main주의 동부지역, Detroit Fort, 그리고 Michigan 주에 있는 Ft. Mackinac은 다시 미국이 차지하게 되었다.

영국은 Great Lake 지역에 Indian Nation을 세워줌으로서 캐나다에 대한 미국의 압력을 막고 다시 울지도 모르는 미국과의 전쟁을 위한 완충지대로 삼으려 했다. 그러나 미국의 완강한 반대와 전쟁을 조속히 끝내라는 국내 여론에 밀려 포기했다. 미국 시장을 놓치지 않으려는 상공업자, 기나긴 전쟁으로 인한 재정적자, 그로 인한 높은 세금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요구를 정치인들이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이다.

영국이 인디안을 위해 Treaty of Ghent에 삽입한 조항이 제9조다. 이를 영문 그대로 적어 본다.

...the Tribes or Nations of Indians with whom He may be at a war at the time of such Ratification, and forthwith to restore to such Tribes or Nations respectively all the possessions, rights, and privileges, which they may have enjoyed or been entitled to in one thousand eight hundred and eleven previous to such hostilities.

즉 인디안 부족이나 국가가 1811년 전투행위 이전에 가졌거나 즐기던 모든 소유물, 권리, 그리고 특권을 돌려준다고 명시하고 있는것이다(Italic체는 필자가 채택).

이 조약 제9항은 미국에 의해 무시되었으며 그후 미 대통령이 어떻게 되었는가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1812년의 전쟁이 없었거나 다르게 진전되었더라면 오늘 날의 미국의 판도, 더 나아가 세계의 판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랬더라면 이곳에 사는 우리의 운명도 달라졌을것 아닌가 생각해본다. ***



↓ 1781년 ‘요크타운 전투’에서 프랑스와 미독립 연합부대가 영국군 주력부대를 격파, 1783년 파리 조약에서 영국은 미국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 사진은 요크타운의 항복(1797년 존 트럼블 작)

<논설위원 경제 칼럼>

“아메리칸 드림은 어디에...”



**김창수(약대 64) NY
CPA, BNB 하나은행 이사
동창회보 논설위원
뉴욕동창회 전 회장**

미국은 지난 2008년 이후에 경험한 경기침체로 지금 일반인의 실질소득 수준이 2007년보다 낮다. 미국 경제정책연구소(EPI)의 엘리스 골드 박사는 “경제가 성장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전체 국민의 14.5%에 해당하는 4천 530만 명이 빈곤층에 속한다. 소위 Poverty Line 이라는 빈곤층의 소득 수준은 개인이 1만 1천490 달러 이하, 2인 가족은 1만 5천510 달러, 4인 가족은 2만 3천550 달러 이하다.

인종별 가구 소득은 아시아인이 6만 8천600 달러, 백인이 5만 7천 달러, 히스패닉이 3만 9천 달러, 흑인이 3만 3천300 달러로, 빈곤층은 흑인과 히스패닉이 주로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시아인들은 전문직종의 취업 이민이 많은 것도 원인이겠지만,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미국 전체 또는 미국 출생자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에 가구당 소득이 가장 많다고 볼 수 있다. 미국 전체로 근로인구(1억 5천 436만 명) 중 사업자는 509만 6천 500 명으로 3.3%를 차지한다. 그런데 한국 출신 이민자(57만 3천 200 명)중 5만 6천 명이 사업체를 가지고 있어서 그 비율이 9.8%에 이른다 그 비율이 타이완 출신은 6.8%, 인도 출신이 5.7%, 일본 출신이 4.5%, 중국 출신이 4.2%, 베트남 출신이 4.1%이다.

빈곤층에 속하는 국민들은 자신의 소득만으로는 충분한 양의 식료품을 살 수 없어서, 정부의 보조로 식생활을 해결하고 있다. 소위 Food Stamp를 정부로부터 받아서, 이것으로 기본적인 식품을 구입하고 있다. 푸드 스탬프는 연방정부의 보조 영양지원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pplication Program: 약자로 SNAP)으로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30% 미만인 가정에 신청자격이 있다. 미 농무성 발표로는 미국인 중 1천 760만 명이, 충분한 양의 식료품을 살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다고 한다.

미국은 2011년 9.1%였던 실업률이 6% 이하로 내려갔는데도 가구당 소득은 늘지 않고 빈곤층은 줄어들지 않았다. 이는 실업률이 줄어든 것이 증가된 신규채용에 의한 것이 아니고 실업자들이 전에 받던 봉급보다 적은 금액의 봉급을 받기로 하고 취업을 하기도 하고, 기존 취업자들도 수년간 봉급 인상 없이 근무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

산층의 두께가 점점 얇아지고, 고소득층의 수입과 자산의 비중은 더 커지고 있다. 중산층 이하의 지갑은 경기회복과 주식시장과는 무관하게 얇게 느껴진다.

지금 미국 서민들의 경제상태가 호경기와는 거리가 멀어서, ‘아메리칸드림’을 가지고 이민을 온 외국 출신들은 옛날에 비해 그 꿈을 이룰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봐야 한다. 어떤 여론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59%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어렵다’고 답했다. 특히 18~34세의 청년층 응답자는 63%가 ‘꿈을 이루기 힘들다’고 답해, 미래에 대해 더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메리칸 드림 중에는 각자 목표 하는 분야가 여러 있지만 그 중에서 경제적 성공을 제일로 꼽는다. 이민자들이 경제적으로 성공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자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미국 이민자들이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요건을 Triple A 즉 ▶Ambition(욕망) ▶Ability(능력) ▶Achievement(성취)로 정리해 보기로 한다. 이 세 가지 A는 이민자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3대 기본요소이자 인생을 살려우는 3대 요소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잘 아는 윌리엄 클라크(19세기 미 교육가)는 “Boys, be ambitious!”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동양에서는 선수입지(先須立志: 모릅지기 먼저 뜻을 세운다)를 강조했다.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의 연설문 중 “I have a dream”은 누구나 가져야 할 원대한 꿈을 대변한 말이다. 이렇게 이민자는 우선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하겠다는 욕망(Ambition)을 확고히 가져야 한다.

그 시작이 학업이든, 취업이든, 비즈니스 시작이든 최종 목표에 대한 꿈을 가지고 이를 성취하려고 하는 야망을 가져야 한다. 사업에 실패하면 고국에 되돌아가거나 그곳의 재산을 팔아서 다시 시작하려고 마음먹으면 안 된다.

우리의 욕망을 성취하려면 능력(Ability)이 있어야 한다. 능력은 힘에서 나오는데, 힘은 체력·정신력·경제력이다. 이민생활은 체력싸움이다. 신체가 건강해야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 정신력이란 교육과 교양을 통한 지성과, 성실, 근면, 포용, 신용, 겸손, 책임감 등을 아우르는 덕성(德性)과, 강한 추진력과 생명력을 가진 야성(野性)을 뜻한다.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생활의 기초가 되는 경제력을 기르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힘을 길러야 한다.

그 첫째는 적응력이다. 적자생존은 사회의 기본 법칙이다. 산다는 것은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다. 미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면, 이민생활이 고달파지고 사회의 열등생이 된다. 격변하는 사회환경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적응해야 한다.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둘째는 자치력이다. 내가 나를 다스리고, 내가 나를 지배해야

<모교 대학원 동창회장 칼럼>

대학원 동창회의 어제와 오늘



**최종고(법대 66) Seoul
모교 명예교수, 대학원 동창회장,
한국 인물전기학회장**

솔직히 모교 졸업생들도 서울대 대학원 동창회가 있는지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모교 전체 졸업자 33만 명 중 3분의 1인 11만 명이 대학원 출신이고, 이를 대변하는 대학원 동창회가 1972년 결성돼 올해가 43주년이다.

이렇게 거대한 동창회니 사실 친목을 도모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고, 그저 각자 능력있는 대학원 동창들이 각자 서있는 곳에서 지도적으로 활동하고 정신만으로 동창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면 족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동창회가 있는 이상 뜻있는 프로그램으로 모교의 위상을 국내외적으로 선양하면 될 것이다.

조직의 면으로 보면, 각 단과대학마다 대학원이 있어 엄밀히 말하면 서울대 대학원 총동창회가 돼야 하지만, 현재 서울대 총동창회 아래 한 동창회로 소속돼 있다. 사실 나는 2011년 회장을 맡고 미주 대학원 동창회를 결성할 필요가 있는지 알고 싶어 2012년 6월 위싱턴 평의원 회의에 참석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총동창회와 미주동창회가 긴밀히 활동하고 있는데, 다시 대학원 동창회를 조직하면 자연히 이중 부담을 드리는 면도 있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 조직의 면보다 뜻있는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972년 대학원 동창회가 창립될 때만 하더라도 연건동 본부 가장 중심건물에 ‘서울대학교 대학원’이란 대리석 간판이 보였고, 모든 박사논문의 중심은 대학원장실이였다. 대학원장이 도장을 찍으면 본인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얼마의 성금을 냈다고 한다. 그것이 모여 지금도 기금으로 과실을 정상비로 사용하며 활동하고 있다. 그러던 것이 1973년 관악캠퍼스로 종합화해 가면서 역설적으로 대학원은 각 단과대학으로 분산돼 사실상 실체가 공중분해됐다. 말로는

서울대는 대학원 중심대학이 돼야 한다고 하면서 누구도 그 뜻을 명확히 알지 못하는 사이 학부 정원을 줄이는 명분으로만 사용됐던 것이 사실이다. 오연천 총장 시절부터는 대학원장직도 없어지고 교육부총장이 대학원장직을 겸한다고 돼 있지만 사실상 폐지와 마찬가지다. 우리가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노벨상 같은 수준높은 아카데미즘의 결실을 대망하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대학원이 이렇게 피폐되면서 그런 것을 바랄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이런 면으로 미주 동창들의 고견을 듣고 싶기도 하다.

아무튼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나마 대학원 동창회는 근년에 뜻있는 일을 몇 가지 수행해오고 있다. 무엇보다 대학원 동창은 서울대 아카데미즘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 실체를 정확히 파악해 알리는 일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 생각했다. 서울대 학문이란 것도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진 것이 아니고 각 분야의 선배학자들이 일구어 놓은 것을 뒤이어 전승발전시키는 노력의 산물이다. 그래서 매년 발간하는 ‘대학원 동창회보’의 특집을 3년 전부터 ‘서울대 학문의 기초와 계승’이라 정하고 매년 5분야의 학문의 개척자들의 생애와 학문을 제자 한 분이 글을 써서 연재하고 있다. 내년에는 이를 마감해 ‘서울대 학문의 개척자들’이라는 단행본으로 내려고 한다. 또한 서울대 석박사 과정을 다닐 때의 회상기도 매년 한 편씩 실어 그것도 모아서 ‘나의 대학원 시절’이란 책으로 내려고 한다. 미주 동창 중에서도 모교에서 석사나 박사학위를 하신 분은 원고를 보내주시면 게재하겠다. 지금은 지구 어디에 사는 것이 문제가 안되게 연락과 소통이 잘 되고 있다. 문제는 관심과 성의다.

내가 미주 동창회에 특별히 관심을 갖는 이유는 두 가지 점에 서다. 첫째는 말할 필요도 없이 모교 인재들이 가장 많이 사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점, 둘째는 미주 동창회가 역점적으로 추진하시는 것이 Brain Network Program으로 이것은 위의 대학원 동창회 지향점과 매우 가깝기 때문이다. 솔직히 지금까지 모교는 국립대학이라는 이유와 프라이드로 자체가 배출한 브레인인 누구인지도 모르고 점검해 보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래도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었다. 그

러나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법인화에 따라 모교도 이제는 사립대와 같은 레벨에서 무한경쟁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자체적으로 가진 인적 물적 자산을 냉정히 점검하지 않으면 안되게 됐다. 나는 미주 동창회가 추진하는 Brain Network의 전산화작업이 속히 완성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다행히 지난 해 10월 20일 우리 대학원 동창회에서 주관한 ‘서울대 포럼’을 주제로 해 오인환·손재옥 현·차기회장을 모시고 인문·법학 분야 브레인들을 점검할 수 있었다. 솔직히 이렇다 할 인재가 없어 찢찢매는 사립대들에 비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비명인가. 그러나 이것으로 자만할 것이 아니라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목에 걸 수 있는 것처럼, 서울대 브레인들이 다 어디서 뭘 하고 있는가 할 때 눈에 뜨이지 않는다고 하면 뭐라고 답하겠는가?

나는 솔직히 동창회라는 데 대해 이중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지 않아도 마음이 개방적이 못한 한국인들에게 동창회가 더 갯토의식을 심어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털어버리지 못한다. 하지만 동창회라는 조직이 있으면, 뜻있는 일을 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건설적 사회능력이라 생각한다. 모여서 잡담이나 나누고 끝나면 아무 성과가 없다. 그런 면에서 나는 미주 동창회보가 자신의 삶의 주변에서 보고 느끼는 글들을 싣는 것을 매우 재미있게 읽고 배우는 것이 많다. 여기서 더 나아가 성격을 분류해 여러 스타일의 책으로 내 동창들의 유대 의식을 강화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서울대인의 생각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 그중 꼭 하나 권하고 싶은 것은 자신의 삶의 과정을 진술되게 적는 자서전적 글들을 남겨달라는 것이다. 서울대인은 원하든 원치 않든 그것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한국사회에도 공직에 오르려는 사람이 검증과정에서 낙마하는 경우가 생긴다. 물론 검증제도 자체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점점 더 투명한 삶을 살고 그것을 역사에 남길 책임이 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면 자칫 돈이 많아 자선을 많이 하는 것만 생각하기 쉬우나 인격으로 노블한 의무를 살다 가는 것도 서울대인들이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주 동창들은 서울대의 또 하나의 큰 자랑이자 기대다. 지금은 커뮤니케이션이 발달돼 있어 여러 채널로 모교와 소통하면서 건설적 방향을 함께 모색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다. 산다는 것은 자기와의 끊임없는 싸움이고, 자기자신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기자신을 계획하고, 스스로 선택해서 결단을 내리고, 스스로 행동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치적 능동인이 되어야 한다.

셋째는 협동력이다. 인생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남과 협동해서 사는 것이다. 각자 고립을 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합심협력 없이는 큰 일을 할 수 없

다. 서로 양보하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타협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욕망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머뭇거리면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한다. 성취(Achievement)를 해야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다.

적극적이고 낙관적이어야 성취적 인생관도 갖게 된다. 공리공론을 배제하고 실무에 충실해야 성취의 열매를 맺게 된다. 성취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한다. 우리는 목표한 바를 성취해야 꿈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현대그룹을 창설한 고 정주영 회장은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해보거나 했어?”라는 특유의 질문으로 적극적이고 성취 지향적인 업무자세를 강조하곤 하였다.

위의 트리플 에이(Triple A)는 인생을 보람있게 하는 3대 원리이자 인생을 가치있게 마무리 하는 3대 생명력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하기 위하여 위의 세 가지 A를 갖도록 노력하자.***

모교 소식

거부반응 없는 인공심장판막 첫 개발

서울대병원 연구팀, “이종간 이식 18개월 후도 기능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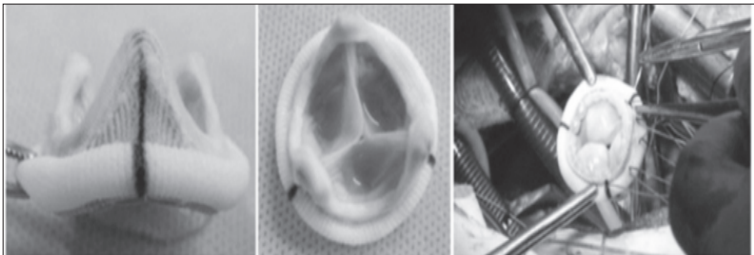
이종이식 후 면역거부반응이 없는 인공심장판막이 서울대병원 흉부외과 임홍국·김용진, 소아청소년과 김기범 교수팀에 의해 처음 개발됐다.

연구팀은 유전자 조작 돼지를 이용, 18개월 이후에도 면역거부반응 없이 정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인공심장판막을 개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그동안 돼지는 장기의 크기와 유전자 배열이 인체와 비슷해 인체 이식용 장기를 생산할 수 있는 동물 1순위로 꼽혔지만 ‘알파갈(α-GAL)’ 당단백질이 면역거부반응을 일으켜 문제가 됐다.

특히 심장판막의 경우, 알파갈이 인공판막을 공격해 판막 내부에 석회화가 일어나는 문제점이 있었다.

연구팀은 ‘알파갈’을 제거하면 면역거부반응이 없는 심장판막 개발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착안, 돼지의 대동맥 판막에 자체적으로 개발한 항석회화 조직처리 기법을 적용해 ‘알파갈’이 제거된 심장판막을 만들었다. 이 판막을 양 10마리의 승모판 부위에 이식한 뒤 18개월 후에도 면역거부반응 없이 정상 기능을 유지했으며



↑ 왼쪽부터 임홍국·김용진·김기범 교수와 인공심장 판막.

혈역학·방사선·현미경·생화학 검사에서도 석회화 및 퇴행성 변화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또 이번에 개발된 판막은 승모판 부위의 특성상 좌심실의 높은 수축기압과 퇴행성 변화를 견뎌내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이다.

임 교수는 “가장 인간다운 자세로 판막 개발을 위해 수년간 연구를 지속했다”며 “이번에 새롭

게 개발된 판막은 향후 판막 치료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고 심장질환 완치 시대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판막의 국산화를 위해 원천 기술 및 특허를 국내 기업 태웅메디칼에 이전했다. 연구 결과는 ‘유럽 흉부외과학회지(European Journal of Cardio-Thoracic Surgery)’ 온라인 판에 게재됐다.*** <헬스 코리아 뉴스>

수능만점자 최종 29명…10명 서울대 정시지원 못해

2015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만점자가 29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 중 일반고 출신 만점자는 44%인 13명이다.

지난 해 12월 5일 교육전문지 베리타스알파에 따르면 2015학년도 수능 만점자는 총 29명으로, 인문계열 8명, 자연계열 21명으로 파악됐다.

만점자 33명 중 32명이 인문계열이던 지난 해와 달리 올해는 자연계열 만점자가 다수를 차지했다. 자연계열의 수학 B형이 쉽게 출제된 반면 인문계열 국어 B형은 어렵게 출제된 것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만점자는 비공개를 요구한 학생 1명을 제외한 28명 중 재학생이 67%인 19명, 졸업생이 28%인 8명, 검정고시가 5%인 1명으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남학생 18명, 여학생 10명으로 남학생이 두 배 가량 많았다.

고교 유형별로는 일반고가 13명으로 가장 많은 만점자를 배출했고, 자립형 사립고는 만점자 10명이 나왔다. 외국어고·과학고·과학영재학교·자율형 공립고 등은 각각 1명씩 만점자를 배출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10명, 경기 8명, 대구 4명, 경북 2명, 부산·울산·광주·전남 각 1명씩이었다.

수능 만점자 29명이 전원 서울대 정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시전형에 응시할 수 없는 학생이 34%인 10명에 달해 눈길을 끈다.

서울대 정시는 인문계열은 한국사, 자연계열은 물리·화학·생물·



↑ 2015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만점자인 대구 경신고 김정훈(왼쪽부터)·이승민·이승민·권대현 군.

지구 과학 등 다른 분야의 ‘I+II’ 또는 ‘II+II’ 조합으로 수능에 응시해야 지원이 가능한 데 이 조건을 채우지 못했기 때

문이다. 그 결과 수능 만점자 중 인문계열 3명, 자연계열 7명은 서울대 정시에 지원할 수 없게 됐다.*** <조선일보>

모교 수시합격자 일반고 비율

“다시 절반 넘어서”

2015학년도 서울대 수시모집에서 일반계 고등학교 합격자가 전체의 50%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대가 지난 12월 5일 발표한 ‘2015학년도 서울대 수시모집 선발 결과’를 보면 전체 합격자 2천408명 중 일반고 출신은 1천219명으로 전체의 50.6%다.

서울대 수시 합격자 중 일반고 비율은 2013학년도까지 50~55%였는데 2014학년도 46.3%로 크게 떨어졌으나 이번에 다시 과반으로 올라선 것이다. 반면 자율형 사립고 비율은 전년도 15.1%에

서 13.2%, 과학고는 8.7%에서 7.2%, 외국어고는 9.3%에서 8.4%로 떨어졌다.

서울대 권오현 입학본부장은 “정부의 공교육 정상화 정책으로 일반고의 진로·진학 역량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줄여 상대적으로 자랑할 거리가 많은 특수목적고 학생에게 불리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일부 대학이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의과대학으로 전환하

오병희(의대 7기) 서울대병원장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수상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의대 71·사진)이 사단법인 한국 언론인 연합회(회장 이상열)가 발표한 ‘2014 자랑스런 한국인대상(의료발견 부문)’ 수상자로 선정돼 이 상을 수상했다.

오병희 원장은 지난 해 5년간 1조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받는

아랍에미리트(UAE) 왕립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 수탁운영사업 수주에 성공하는 한편,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방위부 소속 6개 병원에 700억원 규모의 병원정보 시스템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한국 의료의 수출시대를 견인한 공적을 평가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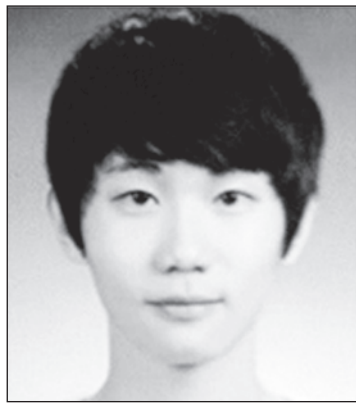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은 한국 언론인연합회 임원과 전현직 중견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시대정신, 국민통합, 전문성, 사회공헌도 등을 평가 기준으로 매년 분야별로 선정하고 있다.

올해에는 오병희 원장(의료발견 부문) 외에, 동문으로는 송필호(경제 68) 중앙일보 대표이사 부회장(언론경영 부문), 그 외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최고위원(정치혁신 부문), 등 16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지난 해 12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 유니퍼홀에서 열렸다. ***

<서울대병원>

“연평도서 첫 서울대 합격생”



중3 때 포격 겪은 아픔 딛고… 이승열(18)군 합격의 영예

서울대 입시 사상 처음으로 서해 연평도 소재 고교에서 합격자가 나왔다.

지난 해 12월 5일 결과가 발표된 2015학년도 서울대 수시전형에 합격한 연평고 이승열(18·사진)군이 그 주인공으로, 이군은 중3 때 북한의 포격을 직접 겪고도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합격의 영광을 안았다.

서울대에 따르면, 3학년이 단 9명 뿐인 연평고에 재학 중인 이군은 기회 균형선발 전형으로 서울대 공대 에너지자원공학부에 합격했다.

담임 윤순희 교사는 “승열이는 공부하는 틈틈이 부두에서 일하는 아버지를 도왔고 여름에는 할머니와 밭을 일구는 효자였다”고 말했다.

이군의 합격에는 연평도에서 복무 중인 해병대원들의 ‘특별 과외’가 큰 힘이 됐다고 한다. 연평도에 대학 나온 선배나 이웃이 드물다 보니 ‘해병대 형’들에게 모르는 문제를 물어보고 진로 지도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군은 중학교 3학년 때인 2010년 북한 연평도 포격 사건을 경험했다. 그 사건으로 학교가 휴교를 해 인천에 있는 입시 학교까지 2시간을 통학하며 공부를 했다. 연평도 이군의 집도 한 동안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

이군은 “지금도 큰 소리만 들리면 포성으로 착각한다”면서 “장차 에너지 전문가가 돼 우리나라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고 했다.

저소득·농어촌 가구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서울대 기회 균형 전형에서는 중1 때 할머니를 여의고 선생님 집에 머물며 공부한 이수경(18·경남 함안군 명덕고)양이 간호대학 간호학과에 합격했다.

가난과 화재를 딛고 지적장애인 누나의 등급을 도와가면서 공부하면서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던 박두선(18·전남 여수고)군이 공대 바이오시스템 소재학부에 각각 합격했다.***

<조선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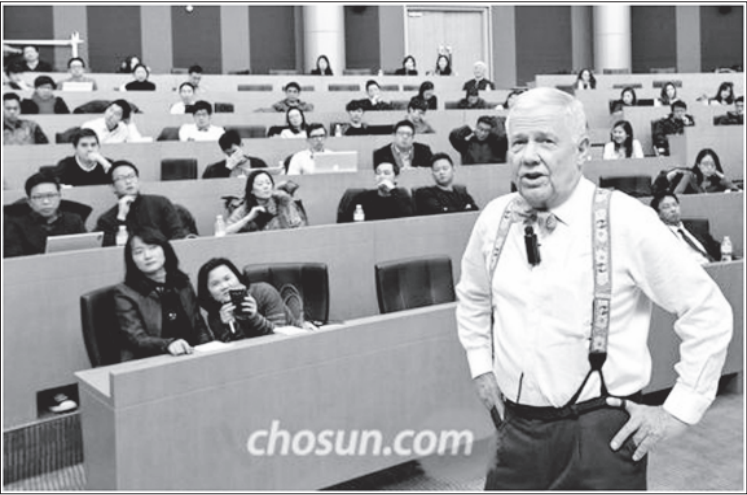
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 서울대 강연

“젊은이여, 농대로 가라”

MBA과정 학생들에게 ‘세계경제 전망’ 특강. 최고 유망 업종은 농업, “30년쯤 후면 식량부족 사태… 농업이 수익성 가장 클 것” ‘달러 무늬 멜빵’ “미달러 미래가 비관적이라 멜빵으로 재활용 중” 농담

“여기 모인 학생 중에 경운기 몰 줄 아는 사람이 정말 단 한 명도 없나요? 서울대 학생들은 똑 똑하다고 들었는데 실망입니다. 미래 최고 유망 업종인 농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군요.”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72) 로저스 홀딩스 회장의 탄식에 강당이 술렁였다. 본사 주최 ‘2015 대한민국 재테크박람회’ 참석차 방한한 로저스 회장은 지난 12월 4일 저녁 서울대 경영대학에서 서울대생들을 상대로 ‘내가 보는 오늘의 세상’ 을 주제로 강연을 가졌다. 로저스 회장은 대다수가 MBA 과정인 학생들을 상대로 “MBA가 무슨 필요 있나. 당장 농대로 가라”면서 “정말로 MBA를 따야했다면 반드시 중국, 아시아에만 투자하겠다고 마음가짐을 가져라”고 충고

했다. 로저스 회장의 강연을 듣기 위해 모인 서울대 학부생들과 MBA과정 학생들이 200석 규모의 강당을 꽉 채웠다. 비교적 늦은 저녁 6시에 시작했지만, 예정된 한 시간을 훌쩍 넘겨 두 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그는 아시아의 성장 가능성을 강조했고, 농업이 미래 산업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 달러화 도안이 들어간 멜빵을 멘 그는 “달러화의 미래가 너무 비관적이라 멜빵으로 재활용하고 있다”는 농담을 하기도 했다. 강연은 로저스 회장이 첫 20여 분간 세계경제와 투자 전망에 대해 얘기하고, 나머지 시간은 학생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주고받는 ‘타운홀 미팅(미국의 소도시에서 마을회관에 모여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것)’ 형식으로 진행됐다. 로저스 회장은 미국 달러 무늬가 새겨진 자신의 멜빵을 가리키며 “미국 달러의 미래가 너무 비관적이라 멜빵으로 재활용하고 있다”는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녹였다.



↑ ‘달러 멜빵’ 메고 강연 - 세계적 투자가인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이 지난 해 12월 4일 저녁 서울대에서 강연을 가졌다.

로저스 회장은 학생들에게 “교실을 나가 드넓은 농장으로 가라”며 “여러분이 은퇴할 때쯤 농업은 가장 유망한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식량과 농경지 부족이 심해져 농업이 수익을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산업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청중은 20대 초반부터 30대 초반이 대다수여서 이들이 은퇴할 때쯤이라는 표현은 앞으로 30년 정도 미래를 뜻한 것으로 보인다. 로저스는 “모든 사람이 농업을 등한시하고 도시로 몰려나올 때 역으로 농부가 되는 발상의 전환

이 필요하다”며 “내 나이엔 하지 못하는 도전이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해줘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은 로저스 회장의 젊은 시절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다시 젊어진다면 어떤 다른 선택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로저스 회장은 “첫째, 부인과 결혼하지 않고, 더 일찍 중국에 가서 중국 여자와 결혼해 농부가 됐을 것”이라고 웃으면서 대답했다. 그는 “다음 생에는 미국 금융인보다 중국 농부의 삶을 살고 싶다”며 농업의 잠재성을 재차 강조했다.

투자의 팁을 달라는 요청에는 “투자에 있어 난 항상 로너(loner 외톨이)”라며 “브로커 등 다른 사람의 말을 일절 듣지 않고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MBA 과정에 재학 중인 김태규(31) 동문은 “여름방학에 여행을 떠나는 것과 인턴ships을 하는 것 중 무엇을 추천하겠느냐”고 질문했다. 로저스 회장은 “인턴십보다 여행을 하면서 배우는 것이 훨씬 많다고 장담한다”며 “무언가 배워 올 수 있는 자신만의 테마 여행 계획을 짜서 떠나라”고 조언했다. “세계여행을 다녀온 곳 중 딱 한 곳만 골라 추천해달라”는 윤민정(27) 동문의 문의에 로저스 회장은 주저 없이 “사하라 사막”이라고 답했다. 그는 “사하라는 너무나 고요해 공기의 소리가 다 들리고 머리 위로 수만 개의 별이 쏟아지는 로맨틱한 곳”이라며 “도시 사람들은 상상도 못 할 테니 반드시 가보길 권한다”고 말했다. 저녁 8시가 다 돼서야 강연을 마친 로저스 회장은 “젊은 친구들의 호기심 어리고 수준 높은 질문에 나도 큰 도전을 받고 간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모교-만도 친환경 자동차 개발협력

지능형 친환경 자동차 기술 개발을 위해 모교와 자동차 부품업체가 손을 잡았다. 모교 공과대학(학장 강태진)과 자동차 부품업체 ‘만도’ (대표 변정수), 서울대 지능형 자동차 IT연구센터(IVIT연구센터·센터장 서승우)는 지난 11월 22일 서울대에서 차세대 첨단 IT 융합기술 공동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서울대 공대·만도·IVIT연구센터

의 주요 협력 연구분야는 지능형 차량용 주행환경 감지센서및 신호처리 기술·차량용 유무선 통신 기술·상황적응형 차량 통합제어 기술 영역 등이다. 이를 위해 만도는 상주연구원을 파견하고 ‘이노베이션 랩(Innovation Lab)’을 포함한 시험설비 등의 인프라 구축 및 연구비를 지원하게 된다. 모교 서울대는 연구환경 구축을 지원하는 동시에 서울공대 및

IVIT연구센터 교수진들이 참여해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다. 또 IVIT 연구센터는 만도와 공동으로 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여 이론적 체계를 정립하고 연구원 교육 등을 담당한다. 한국에서 과거 자동차 에어 켄, 김치 냉장고 개발 등으로 널리 잘 알려진 ‘만도’는 현재 이 뿐만 아니라 각종 첨단 의 기계 장비 개발로 국내외에서 보다 더욱 유명해지고 있다.*** <전자신문>



서울대 영어신문 Quill

‘올해의 대학신문상’ 수상

모교 서울대 재학생들이 만드는 영어 신문 ‘The SNU Quill(스누퀼)’이 중앙일보가 주관하고 있는 지난 2014년 ‘올해의 대학 신문상’에서 영어신문 기사부문의 우수상을 수상했다. ‘스누퀼’은 지난 2005년 고 신헌환 교수(영어영문학과)와 재학생들이 내외국인과의 소통을 위해 창간한 최초의 영어 신문으로 학교 캠퍼스내 여러 이슈를 비판적으로 보도하며 소통의 매개가 되어 왔다. 우수상을 수상한 기사는 스누퀼 48호(2014년 4월 발간)의 타이틀 기사인 ‘I Am TOO SNU’로, 서울대 내 외국인들의 은근한 소외 현상을 취재하고 이에 대안을 제시해 호평을 받았다. 스누퀼은 몇 명의 외국인 학생들에게 ‘언제 서울대의 아웃사이더라고 느끼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항상 그렇게 느낀다’(재료공학부 12학번 시토유타라), ‘핵심에서 소외되었다고 느낀다’(기계항공공학부 13학번 케빈 레이) 등의 답변을 기록해 학내

외국인 학생들의 정서적 현실을 드러내었다. 스누퀼과 만난 외국인 학생은 자국 대사관에서 열어주는 파티를 통해 자국 출신 학생들끼리 친해 지지만 막상 서울대의 한국인들과는 거리를 좁힐 기회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인 학생들만의 커뮤니티가 운영되고 있으나 한국인 학생들과 연계되지 않아 각자가 따로 놀고 있다는 것도 많은 학생들이 느끼는 현실이었다. 스누퀼은 ‘외국인 한 사람의 기억이 여러 외국인들의 미래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내외국인간 탁 트인 소통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기사로 끝을 맺었다. 스누퀼 기사 보기는 웹사이트 http://snuquill.com/에서 볼 수 있다. 윗 사진은 2014 올해의 대학신문상을 수상한 The SNU Quill의 기사가 게재된 페이지의 사진이다.*** <서울대학교 홍보팀>

모교 도서관 신축 리모델링 기금모금 캠페인

“서울대 도서관의 친구들”

모교 서울대 도서관이 40년 이상된 노후 건물인 테다가 재학생 이용 수와 소장 장서의 포화상태로 한계상태에 부닥쳐 도서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으로 네이밍(Naming) 캠페인과 리모델링 모금 캠페인을 다음과 같이 벌이고 있다. ▶Naming 모금 캠페인 = 재학생 등 후배들이 사용할 책상, 의자, 서가에 기부해준 선배들의 이름을 넣어 후진들이 영원히 기억하도록 해놓는다. <도표 참조>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모금 캠페인= 도서관은 학생들이 하루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다. 그러나 현재의 중앙도서관이 관정 도서관과 함께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낡은 시설의 리모델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난 해 5월 이같은 사정을 전해들은 조천식 동문이 ‘중앙도서관 시설환경 개선기금’으로 50억원을 후원한 외에도 300여 명의 동문들이 9억원 넘게 기부했

다. 중앙도서관 시설개선을 위한 모금 액수는 3년간 총 1천억으로 이 모금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주어 후배들이 선배들의 정성을 새기며 더욱 모교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기 바라고 있다. ▶캠페인 기간= 지난해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모금 목표액= 3년간 총 1천억원의 모금 운동을 벌인다. 이 캠페인의 자세한 내용은 http://friends.snu.ac.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도서관 홍보팀>

서울대학교 관정도서관 가구·공간 Naming 모금 종류			
종류	내역	모금액	선택□
열람석	열람석 의자	100만원(\$1,000)	☐
	4인 테이블	300만원(\$3,000)	☐
	8인 테이블	500만원(\$5,000)	☐
서가		500만원(\$5,000)	☐
멀티미디어실	멀티미디어세트	500만원(5,000)	☐
개인캐털	개인실	1천만원(\$10,000)	☐
그룹스터디룸	4~6인실	3천만원(\$30,000)	☐
	8~10인실	5천만원(\$50,000)	☐
세미나실	30석 규모	2억원(\$200,000)	☐
	60석 규모	3억원(\$300,000)	☐
컨퍼런스룸	100석 규모	10억원(\$1,000,000)	☐
패컬티 라운지		10억원(\$1,000,000)	☐



보건의학 칼럼

안락사(安樂死) · 존엄사(尊嚴死)



박명운(보대원 74)
보건의학 박사
한국보건의과학연구소 이사장

최근 미국의 젊은 여성이 악성 뇌종양으로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고통스런 삶을 사는 대신 안락사를 택하여 사망한 데 대하여 세계적으로 안락사(존엄사)에 관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안락사와 존엄사** = 안락사(安樂死·euthanasia)는 소극적 안락사(passive euthanasia)와 적극적 안락사(active euthanasia)로 나누며, 당사자 동의 여부에 따라 자발적 안락사(voluntary euthanasia)와 비자발적 안락사(involuntary euthanasia)로 나누고 있다.

소극적 안락사를 존엄사(尊嚴死·death with dignity)라고도 하는데, 전문가에 따라 이를 구분하기도 한다.

즉 ‘존엄사’는 6개월 미만의 시한부 환자가 의료진의 진료를 거친 후 처방된 약물을 스스로 먹거나 주입해 죽는 방식이다. ‘소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소생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환자나 가족의 요청에 따라 생명 유지에 필요한 영양공급, 약물투여를 중단해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행위이며, ‘적극적 안락사’란 인위적 조치로 생명을 예정보다 빨리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자발적 안락사’란 환자의 직접적인 동의가 있을 경우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여기서 자유로운 동의(free consent)란 타인으로부터 강요받지 않은 동의를 말한다.

‘비자발적 안락사’는 환자의 직접적인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요구 혹은 국가의 요구에 의해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교황은 절대 반대** = 프란치스코 교황(Pope Francis)은 지난 해 11월 15일 바티칸에서 열린 가톨릭 교도 의료인 모임에서 “안락

사를 존엄성을 위한 행동으로 여기는 것은 잘못된 동정심이며, 하느님과 창조물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황은 안락사 대신 ‘조력 자살(assisted suicide)’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교황은 “안락사는 인간의 존엄이나 안락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의 도움을 받은 자살에 불과하며, ‘조력(助力)자살’ 운동은 병자나 노인을 오물처럼 내팽개치는 세태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황은 시험관 아기, 낙

“현재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는 Oregon·Washington·Vermont·New Mexico·Montana 등 5개 주를 ‘Death with Dignity’ States 또는 ‘Right to Die’ States라 부르고 있다”

태, 배아 줄기세포 연구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교황청 생명학술원 원장 이냐시오 카라스코 데 파올라 몬시뇰은 지난 해 11월 1일 약물로 삶을 마감한 말기 암 환자 브리트니 메이나드의 안락사에 관하여 이탈리아 안사(Ansa) 통신 인터뷰(11월 3일)에서 “이 여성은 자신의 죽음이 존엄사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오류”라고 말했다.

▶**존엄사를 택한 메이나드** = 그녀는 메이나드가 택한 죽음 방식을 조력자살(assisted suicide) 혹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killing yourself) 등으로 표현하면서 ‘자살’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존엄사를 선택한 29세 브리트니 메이나드(Brittany Maynard)는 학교 교사가 되기를 희망했으며, 미국 명문 UC 버클리를 졸업하고 UC 어바인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학창 시절 방학 때마다 네팔·베트남·캄보디아·코스타리카 등 저개발국을 돌며 자원봉사를 할 만큼 적극적인 성격의 여성이었다.

2012년에 결혼한 신혼 새색시인 그녀는 올해 1월 악성 뇌종양(Encephaloma)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4월에는 6개월을 넘기기 힘들 것이란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뇌암(brain cancer)이라고도 말하는 악성 뇌종양은 성장 속도가 빠르고 주위 조직으로의 침투 능력이 강하여 주변의 정상 뇌조직

←치명적인 뇌종양에 걸려 불과 29세로 존엄사를 택한 브리트니 메이나드. 그녀의 존엄사에 대해 미국을 돌린 전 세계에 존엄사에 대한 논쟁이 다시 일고 있다.

을 빠른 속도로 파괴한다. 메이나드가 YouTube에 올린 동영상에서 “한 달여 간의 조사 끝에 나와 우리 가족은 가슴 찢어지는 결정을 내렸다. 나를 살릴 치료제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내게 남아 있는 시간을 고통스럽게 지내고 싶지도 않다”라고 존엄사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남편의 생일 이틀 뒤인 11월 1일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의사가 처방한 약을 먹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평화롭게 세상과 작별하겠다”는 내용을 비디오에 담아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 올렸다.

▶**뜨거운 찬반논쟁** = 이 동영상은 900만 건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하면서 미국에서 안락사에 관한 뜨거운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TV(CNN·CBS 등)에서도 방송하였다.

“얼마나 고통이 극심했으면 안락사를 택했겠느냐”는 동정론자도 있었고, “다른 환자들의 삶에 대한 의지를 약화시키는 공개자살일 뿐이다”라는 비판도 나왔다. 메이나드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자신의 근황을 전하는 동영상을 공개했다.

메이나드는 자신의 ‘안락사’에 대한 일반인들의 동정과 비판에

대해 “나도 정말 살고 싶다. 하지만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고통이다. 상태가 더 악화되면 말로 표현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그녀는 존엄사를 결정한 후에도 두 번의 발작을 겪었고, 남편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때도 있었다.

그러나 메이나드는 낙담에 빠지지 않고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소원들을 적은 버킷리스트(Bucket List)를 작성하여 실천했다.

지난 해 10월 21일에는 남편과 친정 어머니와 함께 버킷 리스트에 적은 마지막 소원이었던 그랜드 캐년 관광을 다녀왔다. 그랜드 캐년 여행을 마친 뒤에도 두통과 간질발작 등으로 고통을 받았다.

메이나드의 고통을 곁에서 지켜봐 온 남편과 가족들은 한 동안 슬픔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지만 결국 그녀의 선택을 존중했다.

메이나드의 남편은 아내의 편안한 한 죽음을 위해 거주지를 캘리포니아 주에서 존엄사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오리건 주로 이사하는데 동의했다.

오리건은 미국에서 처음 주민투표를 통해 1997년부터 ‘안락사법(Death with Dignity Act)’을 시행하고 있다.

안락사를 하려면 6개월 이하 시한부 환자이면서 증인 입회 하에 두 번 이상 안락사의 뜻을 밝히고, 의사 2명 이상의 진단을 받

동문 시 감상

미용실에서

김명원(의대 62)

“올해 70이야,”
하니까

“겨우 7학년?
요새는
100살까지 사는데요, 뭘”
한다.

7학년이면
중학교 1학년?

내가
중학교 들어 갈 땐
영어를 배우게 된다는 게



가장
신나는 일이었다.

자,
그럼 또,
무엇 좀

신나는 일을
한바탕
벌려 볼까나? ***

아 극약을 처방받아야 한다.

오리건 주에서 1997년 이후 지금까지 1천170명이 존엄사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절반 정도가 실행에 옮겼다.

지난 해(2013년)에는 약물처방 122건 중 실제 안락사 건수는 71건으로 나타났다. 지금껏 안락사를 택한 환자들은 대부분 70세 이상의 고령자였으며, 30세 이하는 그녀가 처음이었다.

▶**허용 여부는 주마다, 나라마다 달라** = 현재 미국에서 안락사

를 허용하고 있는 오리건(Oregon)·워싱턴(Washington)·버몬트(Vermont)·뉴멕시코(New Mexico)·몬테나(Montana) 등 5개 주를 ‘Death with Dignity’ States 또는 ‘Right to Die’ States라고 부른다.

유럽의 스위스·네덜란드·벨기에·룩셈부르크 등은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안락사 허용 법안이 계류 중이다.

독일은 살인 행위로 처벌을 하며, 영국은 관련법이 없으므로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일본은 의식불명 3개월부터 호흡기 사용중단이 가능하며, 우리나라는 연명 치료 중단을 허용한 법원 판례가 있다.

메이나드는 CNN 인터뷰에서 “내 목표는 존엄사 관련 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서 “모든 미국인들이 이와 같은 건강권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거듭 ‘죽음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메이나드는 지난 해 11월 1일 사망 직전 페이스북에 “사랑하는 내 가족들과 모든 친구들 안녕. 오늘은 내가 존엄하게 죽기로 결정한 날입니다. 이 지독한 뇌종양(terminal brain cancer)은 내게서 소중한 것들을 많이 빼앗아 갔어요. 하지만 더 이상 빼앗길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

그녀는 의사가 처방해준 마취약과 극약을 차례로 먹고 자신의 침대에 누워 잠들 듯 세상을 떠

났다.

▶**종교인들은 반대** = 존엄사를 지지하는 시민단체인 ‘연민과 선택(Compassion & Choices)’은 페이스북을 통해 “사랑스럽고 훌륭한 여성인 브리트니 메이나드의 죽음을 알리게 되어 슬프다”면서 그녀가 가까운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에 둘러싸여 조용히 평화롭게 죽음을 맞았다고 밝혔다.

미국 기독교의 대표적인 신학자이며 목회자인 존 파이프(John Piper) 목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브리트니, 당신의 죽음에 대한 슬픔만이 그 죽음이 주는 메시지의 불행을 넘어서다”는 글을 게재했다.

파이퍼 목사는 안락사에 반대한다며, 그 이유로 “삶과 죽음에 있어서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고통을 줄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끝낼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파이퍼 목사는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맘대로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독교인으로서 오랜 기간 고난을 견디면서도 늘 죽음 이후의 삶을 바라보았던 사도 바울(Paul)을 예로 들면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겪는 고난은 결코 의미 없는 것이 아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하여금 영원한 영광을 준비시키며, 목적 없는 피로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가톨릭 단체인 ‘생명의 제사장들(Priests for Life)’의 자넷 모라나(Janet Morana) 사무총장은 “메이나드가 희망을 포기한 것이 너무 슬프다. 그녀의 행동은 미국 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죽음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시한부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인 이들이 그녀의 전철을 밟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우리는 이들이 삶에 대한 용기를 발견하고, 하느님께서 천국으로 부르시는 날까지 충분히 살아가도록 기도한다”고 말했다.

악성 뇌종양으로 고통받던 미국의 20대 젊은 여성이 택한 안락사에 대해 과연 독자의 생각은 어떠할지? ***

건강 의학 칼럼

환경호르몬과 당뇨병



이홍규(의대 62)
서울대의대 내과 명예교수

▶**당뇨병의 ‘유행’** = 당뇨병이 ‘유행’이다. 최근(최근이래야 2010년이지만) 중국 사람의 거의 9%가 당뇨병 환자로, 거의 50%는 당뇨병 진단계라는 보고가 나온 적이 있다. 1990년대까지 당뇨병은 중국에서 흔하지 않은 병이었다. 어떻게 한 나라 성인의 거의 60%가 한 가지 병에 걸렸을까?

알다시피 당뇨병은 전염병이 아니다. 전염되지 않는 병이 왜 유행병처럼 흔해졌을까?
당뇨병은 과거 선진국의 병으로 여겨졌고, 잘 살게 되면서 나태해져서 TV나 보면서 운동을 않고, 과식해서 똥똥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당뇨병은 잘 못사는 개발도상국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사람들처럼 잘 못살던 사람들이 조금 먹고 살만 하게 되고 편해질 만하니, 배가 나오고 당뇨병에 걸리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정도 비슷하다.

정말 많이 먹어서, 운동을 않아서 당뇨병에 걸리는 것일까?

그런 점이 없지 않지만, 일부만 진실이다. 진짜 문제는 음식물과 공기, 물이 오염되었기 때문이다. 농사를 지으면서 쓰는 농약과 자동차 매연, 찬 옷과 그릇들을 만들고 집을 짓는데 사용하는 플라스틱 등 화학물질들 등의 환경오염 물질들이 주변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환경 오염이 주범** = 환경오염이 당뇨병(과비만)의 원인이 된다는 이야기는 사실 제법 오래된 이야기다. 학자들은 그놈들이 범인이라고 의심하고 있었지만 확실한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처음 분명하게 증거를 내놓은 학자는 놀랍게도 우리나라 학자다. 경북대 의대 이덕희 교수는 미국 질병관리본부가 시행한 국민건강 영양조사의 일부로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각종 환경오염물질의 혈중 농도를 자료를 이용해서 분명한 증거를 찾아냈다.

이 교수는 환경 오염물질 중에서 소위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의 농도를 합하면 당뇨병 환자에서 (당뇨병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 훨씬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2006년 미국 당뇨병 학회지에 발표된 이 논문은 전문가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증거가 나왔다. 환경단체들이 아우성을 치기 시작했다.

2011년 미국 독성연구소와 국립보건원은 이 문제에 대한 전문가 회의를 소집하고 ‘환경오염물질

들이 당뇨-비만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다만 자가면역 질환으로 여겨지는 소아-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결론내렸다. (이것도 환경오염물질 때문에 생길 가능성이 아주 높다).

나는 이 공로만으로도 이덕희 교수가 노벨 의학상을 수상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당뇨병과 비만 그리고 많은 관련된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환경오염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들어와 있는 것들을 빼내면 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뇨병, 비만증과 그 합병증들로 고통을 받고 있는가.

환경 오염물질에 노출되면 당뇨-비만이 생기고, 결국 동맥경화증이 생겨 심장병, 중풍, 치매 등으로 진행된다. 콩팥도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 거의 모든 만성병들이 사실 환경 오염 때문에 생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환경오염물질의 실체** = 환경오염물질이란 실제 어떤 것들일까. 가장 유명한 것은 다이옥신이다. 월남전에서 사용하려고 고염제를 만들 때 뜻하지 않게 만들어져 많은 군인들이 당뇨병 등

“약 800종에 달하는 화학물질이 호르몬 작용에 간섭을 일으키는 것으로 의심되며 이들은 성기능 장애, 성장 이상, 성 조숙증, 불임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에 걸렸었다. 이런 물질들은 쓰레기를 소각할 때도 나오고 자동차 매연으로도 나와 문제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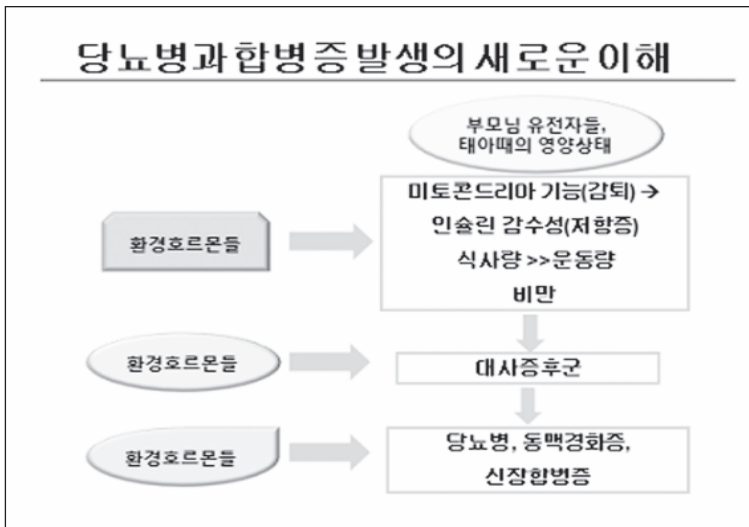
독성이 덜하지만 다이옥신과 비슷한 것들도 많고, 이들은 여러 가지로 해를 끼친다. 그래서 유엔에서 이런 물질들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PCB, DDT, 기타 잘못들어 본 이름의 화학물질들인데, 무색무취하고 워낙 적은 양이라 측정해내기도 어렵다.

금지되지 않은 여러 다른 화학물질들도 독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아트라진 같은 농약들이 그렇다. 또 못쓰게 하였지만 디디티는 중국과 인도에서는 모기를 잡기 위해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

환경오염물질이 원인이라면 그런 것들을 못쓰게 하였으면 줄어야 하는 것 아닌가. 어떻게 당뇨-비만은 늘기만 하는가.

답은 이런 환경오염물질들이 우리 주변-땅과 그냥 남아 있고, 서서히 몸 속에 농축돼가기 때문이다. 특히 자연상태에서 잘 분해되지 않으며, 그래서 먹이사슬을 거쳐 식품을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배설이 잘 되지 않는 것들, 즉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우리 몸 속에 이런 물질들이 더 많아져 ‘Bio-accumulation’이라고 한다.

가령 다이옥신 같은 것들인데, 불에 타지 않게 옷이나 건물에



↑<그림> 미토콘드리아에는 자체의 유전체(DNA)가 있어서 유전적 인슐린에 대한 감수성을 결정하는 유전적 요인의 일부가 된다. 태아는 영양이 나쁘면 발달이 나쁘고 미토콘드리아의 형성도 좋지않아, 역시 인슐린 감수성이 나빠진다. 이런 태생적 배경에 환경 호르몬들이 나쁜 영향을 미치면 대사증후군 내지 당뇨병이 생기게 되고, 그 합병증들의 발생도 빨라지게 된다.

뿌리는 방염제도 독성이 있다. 이런 것들은 먹이사슬의 상층에 있는 동물들의 기름 속에 많이 포함돼 있다. 즉 육류와 큰 생선에 많이 들어 있다.

게다가 새로운 화학물질들이 속속 새롭게 만들어지고 쓰이는데, 한참 쓰고 나서야 독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매년 약 1만여 종류의 화학물질들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한다.

▶**내분비 교란물질- 환경 호르몬** = 이런 환경오염물질들이 우

에 고도로 노출되면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하여 유방암의 위험도를 높인다. 즉 발암물질이기도 하다. 전립선암은 살충제, 폴리염화바이페닐, 비소 등에 대한 직업적인 노출과 연관돼 있다. 갑상선암은 살충제를 뿌리는 사람들과 그들의 부인들에서 높게 관찰된다.

환경 호르몬은 뇌의 발달과 기능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폴리염화바이페닐(PCB)은 신경계 독성을 나타내며,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ADHD)는 유기인산염 살충제에 노출이 높은 인구에서 많이 나타났다.

내분비계 교란물질에 대한 감수성은 조직의 발달기에 가장 높다. 발달 기간 동안의 영향은 성인에서 영향을 미치는데 필요한 용량보다 적은 용량에서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내분비계 교란을 시험하는 것은 발달 기간을 포함해야 하고, 일생에 걸쳐 추적 관찰해야 후기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

▶**환경 호르몬의 미토콘드리아 독성** = 근래 필자는 몸에 쌓이는 환경호르몬이 당뇨병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당뇨병 뿐 아니라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 지방간 등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런 상태는 한 사람에서 한꺼번에 나타나곤 하는데, 대사증후군이라고 부른다.

아직 의사들은 코끼리를 만지는 장님처럼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 보고 있다.

대사증후군에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줄어들어 있다는 것이 알려져 왔는데, 모교 서울대 연구팀은 환경호르몬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 병을 일으킨다는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고 증명해 나가고 있다.

미토콘드리아는 생명체의 기본이 되는 세포 하나 하나마다 들어있는 화력발전소 같은 곳이다. 세포 하나마다 약 1천개씩, 60조 개나 되는 세포로 만들어진 우리

몸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몸이 필요로 하는 생체에너지를 만든다.

미토콘드리아에는 자체 유전자가 있어서 사람마다 질적 차이가 있다. 어떤 미토콘드리아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가 체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지는 에너지를 사용하여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인슐린의 분비, 인슐린의 작용, 근육과 장의 운동,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 정신적 활동도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원활하지 못하면 원활하지 않게 된다. 인슐린의 효과가 잘 안 나오는-저항성-이 나타나는 이유다.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좋지 않으면 인슐린의 분비도 나빠져서 당뇨병에 잘 걸린다.

미토콘드리아가 충실하게 만들어지려면 영양상태가 좋아야 한다. 특히 어릴 때 영양실조가 되면 신체가 전반적으로 발달이 안 되고 체질이 약해지며, 미토콘드리아도 충실하게 들어서지 못하여 어른이 되면 대사증후군에 걸리게 된다.

인체의 내분비계 교란물질에 대한 감수성은 조직이 발달하는 동안 가장 높다. 어릴 때 받는 영향은 성인에서 영향을 미치는데 필요한 용량보다 훨씬 더 적은 양에서 일어날 수 있다.

▶**대사증후군의 환경 호르몬에 의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상 가설의 적용 - 당뇨병 내지 대사증후군의 예방과 치료** = 그러므로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1) 이런 환경호르몬이 몸에 안 들어오게 하고,

2) 들어와 있는 것들을 배출시켜야 한다. 물과 공기가 맑은 시골로 가서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살면서 환경호르몬 배출에 도움이 되는 체식을 하면 당뇨가 좋아지는 이유다.

환경호르몬은 소와 돼지고기 등 육류와 생선 등에 많다. 그 중에서도 주로 기름에 녹아 있으니까, 기름진 어류 - 육류는 피하는 것이 좋다.

필자는 혈액 속의 환경호르몬 농도를 측정하는 쉬운 방법을 개발해 그 농도가 높으면 당뇨병에 잘 걸린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 농도가 높으면 합병증도 더 잘 생긴다는 것도 발견했다.

최근 스웨덴·프랑스·노르웨이 및 오스트레일리아 연구자들과 이 검사법을 좀 더 깊고 넓게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용화까지는 돈과 시간이 필요하여 아직 일반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완성되면 새로운 치료법, 예방법을 만드는 기반기술이 되고, 당뇨병의 예방과 완치가 가능한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 호르몬과 당뇨병 문제는 환경오염과 만성 퇴행성 질병들 사이에 나타나는 거대한 문제의 작은 부분이다. 이 문제는 의학 적 문제일 뿐 아니라 인류의 생활 전반에 관련이 있다.

농업과 화학, 식량과 에너지 문제 등 환경 호르몬과 연관되지 않은 것이 없어 보인다. 앞으로 이 분야에 더 많은 연구가 더 되어야 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

시국 칼럼

북한 찬양하는 사람들이
꼭 봐야 할 ‘이것’



조화유(문리대 61) VA
저술가, 조선일보 전 기자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미국에서 거주하는 50대 여자가 최근 한국에 나가 친북 중북 행위로 유명한 여자와 함께 이른바 ‘토크 콘서트’ 라는 걸 통해 북한을 찬양하고 다녔다.

나도 미국에 사는 사람으로서 그녀들의 철없는 행동이 부끄럽기도 하고 화도 난다.

그녀는 강연에서 “평양 봉수교회 예배에 참여해 자유롭게 회개하고 기도하는 등 충격적인 경험을 했다” 고 말했다 한다.

성경책을 북한의 호텔에 놓아두고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미국인 여행자를 구속수감했던 북한에 마치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가 있는 것처럼 말이다.

북한의 교회가 전부 가짜라는 걸 그녀는 모르는 모양이다.

나는 김일성이 죽은 다음 해(1995년)에 북한을 10여일 여행한 적이 있다.

그 때 봉수교회 전도사라는 여자가 그 교회 앞에서 외국기자들과 인터뷰하는 장면을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왔다.

이 가짜 전도사는 “하나님이 곧 김일성 주석님이다” 라고 말했다.

한 외국기자가 “당신은 예수 부활을 믿느냐” 고 묻자 그녀는 “과학의 시대에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걸 믿겠느냐” 고 대꾸했다.

그리고는 얼마 후 이 가짜 전도사가 미국의 한인교회 초청을 받아 L.A.에 왔었는데, 그 때 그녀가 우리 동포들 앞에서 ‘간증’ 하는 것을 나는 또 비디오로 찍었다.

그녀는 평양에서와는 정반대로 마치 진실한 기독교도인 양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하도 기가 막혀 나는 이 장면을 모두 찍어 당시 L.A. 한인 방송사를 통해 그 전모를 방영하게 한 바 있다.

세무 칼럼

세법에 대한 사실들



강호석(상대 81) CA
CPA

세금전문가와 납세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흥미로운 사실들이 있어 소개해 본다.

연방정부의 소득세 역사는 지난 2013년으로 100년이 넘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우드로우 윌슨이 1913년 10월 3일 소득세법을 재정하는 법안에 서명하면서 공식적인 소득세법이 시작되었다.

연방정부 최초의 소득세 징수는 남북 전쟁 당시 전쟁지원을 위해 징수되었고 전쟁이 끝나자 징수를 멈추었다.

두번째 소득세는 1894년에 징수되었다. 이는 대법원에 의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연방정부는 수입관세로 모든 지출을 감당했는데 이 지출이 증가하자 소득세법을 영구적인 법으로 제정하게 되었다.

1913년 당시 연방세법의 총 페이지 수는 400페이지였다. 하지만 오늘날 세법은 7만 3천954페이지에 달한다.

IRS는 현재 납세자의 17%가 연방세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추정하고 있다. 또한 연방 소득세법 사기의 75%는 개인납세자에 의해 발생한다.

연방소득세 사기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직종은 레스토랑 오너, 의류매장 오너, 자동차 딜러, 텔레마케터, 세일즈맨, 의사, 변호사, 회계사, 헤어드레서들이다. 전국납세자협회(NTA)에 따르면 거짓 신분으로 세금보고를 한 건수는 지난 2010년 1만272건에서 2013년 2만 6천354건으로 약 157%나 증가하였다.

연방 정부는 세금징수로 인해 약 2천150억불에서 9천870억불 상당의 산업을 양산하게 되었다. 이 세금은 정부의 숨겨진 비용을 충당하는 역할도 했는데 이 ‘숨겨진 비용’ 이란 세금 혜택을 얻거나 유지하기 위한 로비에 사용되는 것은 물론, 경제적인 비용, 즉 직업, 레저, 저축, 소비, 투자에 의한 세금 혜택을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납세자들이 세법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손실 또한 이 숨겨진 비용으로 충당되게 되었다.

지난 100년간 세법을 돌아보면 수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이제 100년째를 맞이한 세법은 앞으로도 더욱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겠다. ***

<문의 (714)530-3630>

언어문화 칼럼

신중 기해야 할 ‘말,말,말’



문성길(의대 63) VA
워싱턴 DC동창회 전 회장

‘섹스피어(Shakespeare), 섹서폰(Saxophone), 그리고 섹스 폰(Sex Phone)’

어느 날 토종 미국인 친구와 나의 대화내용은 이렇다.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는 사이에에선 사사로운 이야기들이 오가게 마련이다

중고교 시절 내 딸 아이가 섹서폰(Sexophone) 악기를 배우겠다는 것을 플루트(Flute)를 하는 친구까지 동원(?)하면서, “그 악기는 남자 아이들이나 하는 것이지, 한다면 여성(?)스러운 플루트를 해라” 했다.

이 비디오는 YouTube에도 올려져 있다.

인터넷에서 필자의 글 제목을 클릭해도 그 동영상은 언제, 어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 바보스런, 어른답지 못한 충언(?)을 한 것이 후회스럽다.

거의 반세기를 미국에서 살았지만 아직도 영어 발음에 외국인 티를 벗어나지 못한 내가 이런 내용을 마스크를 낀 채로 토종 미국인 친구와 주고 받은 대화.

“글쎄 내 딸 아이가 섹서폰(Saxophone) 배우겠다는 것을 못하게 했다” 고 했다.

그랬더니 그가 다른 것은 못 들었는지, 아니면 못 들은 척 하고 우스개로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다음과 같이 말했다.

“뭐, 네 딸이 섹스 폰(Sex Phone)을 했다고?”

이렇게 대답을 해 와서 한바탕 웃음을 자아내게 했던 일이 기억난다.

근래 대학신문을 보니 우리나라 최고의 섹스피어(Shakespeare) 연구학자인 여석기 교수가 별세했다는 기사가 있어 자동차를 타고 가며 아내에게 이런 소식을 전해 줬다.

디서든지 볼 수 있다.(North Korea’s Fake Church)

그녀에게 동조하는 사람들도 꼭 이 비디오를 보고 북한의 교회는

그랬더니 아내 왈, “뽀라구요, 여석기 교수님이 섹서폰(Saxophone)연주까지 하셨어?” 라고 해서 또 한바탕 웃는 일이 벌어졌었다.

우리나라 말에 ‘어’ 와 ‘아’ 는 말 하는 사람의 의도와 듣는 사람의 선입관과 편협감에 따라 내용이 천양지차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말을 하기 전 심사숙고해서 요점만 간결하게 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해야겠다.

또한 듣는 사람도 내용도 빼놓지 말아야겠지만 말하는 사람이 어떤 의도의 말을 하려는 것인지를 헤아려보려는 예지가 있어야 한다. 편견과 선입관을 버려야 하겠다.

그런데 요즘 세태를 보면 악의로 말꼬리를 잡고 말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적지 않은 듯 하다.

그러니 이미 었질러진 물을 다시 물동이에 담을 수 없듯이, 한번 한 말은 다시 거두어들이 수 없으니, 하는 사람도 말하는 데 신중에 신중을 기해 설화(舌禍)를 당하는 일이 없어야겠다.

설화뿐이겠는가? 필화(筆禍)도 있고.... 여하튼 어느 기도문에 있듯이 생각과 말과 행위에 있어 좋은 것을 지향하며 신중에 신중한 삶을 살아야겠다.***

전부 외부인들에게 보이려고 만든 가짜 교회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한다. ***

이데올로기 칼럼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에
관심가져주기를...”



해나 김(영문과 01)DC
찰스 랭글 연방 하원의원 보좌관

지난 해 찰스 랭글 연방하원의원(민주 23선·뉴욕)은 새로 개관한 의회 방문객 센터에서 재미 한인 이산가족 다큐멘터리 시사회를 개최했다.

‘갈라진 가족들(Divided Families)’ 이라는 제목의 이 다큐멘터리는 재미 한인 동포 이산가족이 북한의 가족을 찾는 내용이다.

한인 청년 제이슨 안 감독과 유진 정 감독이 공동 제작한 이 영화는 약 10만 명으로 추산되는 한인 1세 이산가족들이 혈육의 생사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다시 만나는 꿈조차도 꾸기 어려운 안타까운 사연을 담고 있다. 70~90대 노인이 대부분인 한인 1세대 이산가족들 상당수가 이미

헤어진 가족들을 다시 보지 못하고 사망했다.

이같은 비극적인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 지난 해 초, 의회에 있는 4명의 한국전쟁 참전용사 중 한 명인 친한파 랭글 의원이 재미 한인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H.Con.Res 91)’ 을 제출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3년간 중단됐다가 지난 해 2월에 재개되면서 남한의 이산가족 일부가 북한에 가서 가족들과 상봉했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 간의 외교관계가 없어 현재 미주의 한인 이산가족들은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

미주 한인 이산가족 문제는 과거 부시 전 대통령에서부터 오바마 현 대통령에까지 계속 제기돼 왔다.

지난 2008년 조지 부시 대통령은 미국 시민이 북한의 가족과 다시 만나기 위한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한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에 서명했다.

지난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은 ‘국무부의 대북 인권특사의 우선 과제에 미주 한인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다’ 는 내용의 2011년 회계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

북한은 그동안 억류해 오던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씨를 지난 해 석방하는 등 인도주의적인 측면을 강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의 시점에서 ‘미주 한인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 은 미주 한인들에게도 가족상봉의 길을 열어 줄 수 있도록 북한정부에 촉구할 것이다.

이 결의안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원로 의원들과 함께 제출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의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

필자는 수년간 연방하원 최장수 의원의 대변인과 보좌관으로 일을 해오면서 다른 커뮤니티들이 얼마나 그들의 요구를 지역구 의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압박하는지를 잘 보아왔다. 국민이 정부에 청원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시민의 권리 가운데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기도 하다.

결의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하원 외교위원회와 의회 전체회의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외교위원장이며 다이아몬드바 지역 등을 지역구로 한 에드 로이스 의원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미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한 상황이긴 하지만, 결의안을 통과시키도록 강력하게 계속해서 요청해야 한다.

이산가족이 마지막 소원을 이루도록, 미주 한인들이 로이스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바란다는 한인 사회의 열망을 전달해야 한다. ***

동문 및 동문단체 동정(일부 중앙·한국일보 인용)

하워드 카운티 Executive 앨런 키틀만

오광동 회장의 한인노인회 방문

“한인 노인회에 도움 주겠다”
취임 후 첫 노인회 방문서 밝혀
한인노인회는 미 주류사회와 교
류도 활발, CA관계인사 초대해
추수감사절 잔치도 벌여

하워드 카운티 앨런 키틀만 Executive가 지난 해 11월 1일 취임 후 처음으로 15일 오광동(공대 52) 동문이 회장을 맡고 있는 하워드 한인 노인회를 방문했다. 이사장은 송수(간호대 66) 동문이 맡고 있다.

키틀만 이그제큐티브는 15일 베인센터에서 열린 노인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노인 교육에 관심이 많다.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에 감동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한인노인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컬럼비아 어소시에이션과 관련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노인회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회칙개정안과 취임중 감

사 선출을 인준했다.

오광동 회장에게는 주지사 표창이 수여됐다. 또 총수입 3만 1048.50달러, 지출 1만 7292.91달러, 잔액 1만 5726.34의 재무결산안도 승인했다.

이날 노인회원들은 정기총회에 이어 푸짐한 음식을 나누고 3부 흥겨운 오락 시간을 가졌다. 주상회 무용단을 비롯해 시니어센터 기타반, 댄스반 등이 그동안 배운 솜씨를 뽐내고 회원들의 장기자랑도 이어졌다.

오광동 회장은 “최근 몸이 불편해 노인회 업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면서 “빈 공백을 잘 메워진 임원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하워드 한인 노인회는 주류사회와 교류의 폭을 넓히고 있다. 지난 해 주류사회 인사들을 초청해 추수감사절 잔치를 벌인 바 있다. 한인 노인회원들이 CA 관계



↑하워드 카운티 앨런 키틀만(오른쪽에서 세 번째) 신임 이그제큐티브가 지난 11월 15일 노인회 총회에 참석, 한인 노인들을 격려했다. 왼쪽이 송수(간호대 66) 이사장, 두번째가 오광동(공대 52) 회장.

자들에게 송편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고, 함께 빚기도 한 것이다. 노인회는 지난 해 10월 20일 컬럼비아에 위치한 칼라 홀에서 컬럼비아 어소시에이션(CA) 관계자들을 대거 초청, 추수 감사절 잔치를 열었다. 노인회 창립 역사상 처음이다.

노인회는 비록 추수 감사절이 미국의 대표 명절이지만, 이날만 큼은 한국식 추석 상을 차려 CA

관계자들과 함께 나눴다. CA 이사회원들에게 송편 빚는 방법을 알려주고 함께 직접 빚는 한편 비빔밥 등을 제공한 것이다. 오광동 회장은 “한국 문화와 음식을 이들에게 알려 한인 커뮤니티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CA 밀턴 매튜스 회장은 “컬럼비아는 다민족들로 구성된 지역

으로 앞으로 한인 커뮤니티와의 교류를 더욱 넓혀 가겠다”고 말했다.

CA는 올해 처음으로 하워드 노인회에 칼라 홀 건물 이용을 허용했다. 한인 시니어들의 다양한 활동을 위해 1년간 건물이용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다.

송수(간호대 66) 이사장은 “한인 사회는 계속 주류사회 속으로 들어가야 하고, 지역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은 한국 문화를 비롯해 다른 문화를 접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추수 감사절 행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노인회의 한국 음식 소개와 더불어 주상회 무용단원들은 아리랑과 화관무, 장구춤 등을 선보이기도 했다.

컬럼비아 어소시에이션(CA)은 1967년 설립한 비영리 도시 자치 운영 기관으로 컬럼비아를 관리한다. 하워드 카운티의 중심적인 컬럼비아는 미국 내 가장 살기 좋은 도시에 이름을 매년 올리고 있으며, 인구는 10만 명이다.

오광동 회장은 “추수 감사절 행사를 계기로 앞으로 정기적인 모임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기문(외교 63) 유엔 사무총장

‘올해의 인도주의자 상’ 수상

모교 하버드대서 수상해 한 층 뜻 깊어... 인신매매, 기후변화, 에볼라 바이러스 사태 등 국제사회에서 탁월한 지도력 발휘 ... 하버드 대학생들이 인도주의적 상징으로 원하는 역할 모델이 시상 원인

지난 해 12월 2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사진)이 모교인 하버드대에서 ‘2014년 올해의 인도주의자 상’을 수상했다.

하버드 대학교에 따르면 반기문 총장은 인신매매와 기후변화, 에볼라 바이러스 사태 등에서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해 유엔을 이끌면서 인도주의적 기여를 했다는

것이다.

또한 ‘반기문 총장은 하버드대 학생들이 인도주의적 상징으로 원하는 역할 모델’이라며 시상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시상식은 12월 2일 오후 5시 매사추세츠주 캠브리지에 소재한 하버드대 기념 교회에서 교직원과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반 총장은 지난 1970년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외교관으로 일하던 1985년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모교인 하버드 대학에서 수상을 하게 되는 경사가 이루어지게 됐다.



‘올해의 인도주의자 상’은 지난 1974년부터 2011년까지 하버드대 기념 교회를 이끌었던 고 피터 고메스 목사를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



차일드 헬스 플러스 및 각종 보험을 환영하며 보험이 없는 환자라도 충분한 상담 및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문의는 718-353-5300 ***

삼가 명복을 빕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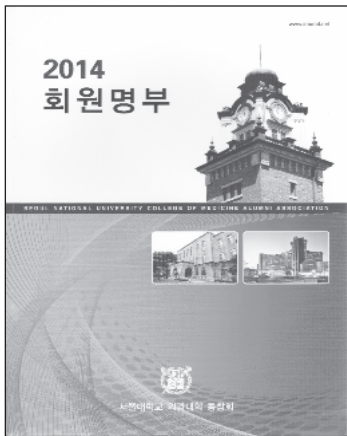
▶이규용(의대 35) 동문 = 지난 해 11월 28일(금) New York에서 작고.

▶김일훈(의대 51) 동문 상배(喪配) = 부인 김(윤)병애(약대 50)께서 지난 12월 25일 오전 6시 시카고에서 작고.

▶민경탁(의대 61) 동문 = 지난 해 11월 26일 LA에서 작고.

신간 안내

의과대학 동창회 2014 회원명부



의과대학 동창회가 발간한 ‘2014 회원명부’가 나왔다.

이 회원명부에는 1902년 광무 6년 7월 12일 제 1회 19명의 졸업생 명단부터 시작해서 2014년 제 68회 147명의 졸업생 명단과 인적사항 등이 게재돼 있다.

이 책에는 이 뿐만 아니라 동창회와 대학, 병원의 역사에서부터 동창회 회칙, 학술연구재단, 함춘 학술상, 장기려 의도상, 해외연수 후배사랑 장학금 지회 및 동기회 운영규정 등을 비롯한 모든 내용들이 망라돼 있다. ***

시계탑 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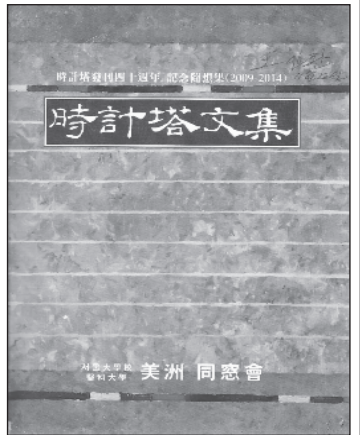
의과대학 미주 동창회(회장 서인석·73년 졸업)의 동문들의 글을 모아 엮은 ‘시계탑 문집’이 새로 나왔다.

이 문집은 시계탑 발간 4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수상집으로 묶은 것으로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미주 의대 동창회보’에 게재된 의대 동문들의 글을 한 데 엮은 것이다.

이 책에는 서인석 회장의 발간사를 시작으로 의과대학 총동

창회 박용현 회장의 축하 등이 게재돼 있다. 제1장, 떠오르는 시상, 제2장, 삶과 추억, 제3장, 우정과 넓은 세상, 제4장, 작품 속으로, 제5장, 의술, 인술, 예술, 제6장 농담 광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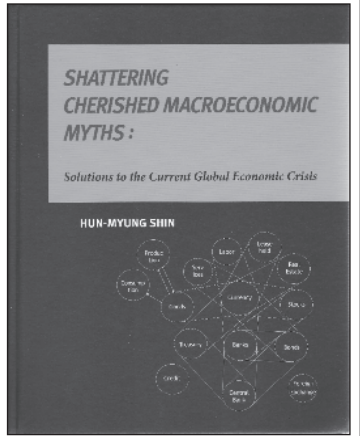
총 348페이지로 유니온 인쇄사에서 발간했다. ***



Shattering Cherished Macroeconomic Myths :

신현명(상대 62) 동문이 지은 ‘Shattering Cherished Macroeconomic Myths : Solutions to the Current Global Economic Crisis’가 영문판으로 도서출판 향지에 의해 발간됐다.

신 동문의 이 신간은 동창회보 2014년 12월호 10면에 자세히 기술돼 있다. ***



원인순(문리대 67) 동문 장남 임원규

NJ 27선거구 주하원의원 출마

뉴저지에서 거주 중인 원인순(문리대 67) 동문의 장남 임원규(40)씨가 올 6월 치러질 뉴저지 27선거구 주하원의원(State Assembly)선거에 출마하게 돼 동문들의 많은 지원을 바라고 있다. 다음은 원인순 동문의 글이다. ‘저는 서울대 학생시절 여학생 총회장직을 맡기도 했습니다. 1971년 9월 결혼에 이어 도미한 후 Prudential Insurance Co.에서 20년간 IT 전문직 생활을 마치고 지금은 손주들을 볼보며 은퇴생활하고 있습니다. 남편(임병익)은 재직시 Lockheed, UPS 등 미국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특히 Lockheed 사 재직시 Lockheed 항공 서울지사를 설립, 지사장으로 여러 해 근무한 적도 있지요. 오늘 이 글을 선후배님들께 올리는 이유는 아들(임원규 40세, Won Kyu(Q) Rim, Fordham B.A.(1996), M.Ed.(1998), 현재 Alliance Theological Seminary, Nyack College 에서 Intercultural Studies 전공)을 지원하는 그의 동료들로부터 처음 이 소식을 접했 때는 이만 1세대로나 자신 외에는 잠시도 옆을 돌아볼 여지가 없었던 생활을 해온 우리에게 황당하기조차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두고 냉정과 이성을 동원해 이 땅에서 미 시민으로 태어나 성장해온 2세대의 입장을 이해한 후로는 당연한 일로까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1971년 남편의 직장을 따라 뉴



↑ 위 사진은 원인순 동문, 오른쪽 사진은 하원의원에 출마한 장남 임원규 후보의 가족사진이다.

저지 Livingston에 이주해 연년생으로 딸 하나 아들 하나를 갖게 됐고, 1978년에는 이웃 East Hanover로 옮겼는데 한국인으론 우리가 처음이였고 아이들은 초중고를 그곳에서 마쳤습니다. 유색인 가족이 거의 없는 백인 지역에 살면서 혹시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려움을 받거나 앓을까 하는 것이 늘 걱정이었지만 오히려 고교 졸업식에서는 원규가 Salutatorian이 돼 졸업반을 대표해 졸업 축사를 함으로써 우리를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미식축구에 재능이 탁월해 고교 시절 학교 역사상 처음 State Champion 팀이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재능은 Vince Lombardi의 모교인 Fordham 대학을 거쳐 졸업 후 European



Football League에 까지 이어졌습니다. Fordham 재학시에는 2학년 때부터 축구 주전선수 역할을 했고 특히 졸업년도에는 공동주장(Co-captain)으로 선출돼 공격수비 양쪽에서 주전으로 반세기 만에 Harvard팀을 Harvard Yard에서 처음으로 격파하는데 주역을 담당했던 일은 지금까지 저희들의 기억에 생생이 남아 있지요. 이제 40의 문턱에 선 원규의 생활을 보면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보다 남을 먼저 섬길 줄 아는 이웃사랑의 특별한 마음을 선물로 주신 것 같습니다. 현재 속하고 있는 교회의 mission project을 통해 주변지역 및 남미지역의 인권옹호에 성원을 보내고 있고, 지난 10년 동안 NJFPC (New

Jersey Family Policy Council- 비영리기관으로 Dr. James Dobson의 Focus on the Family 와의 자매기관)을 대변해서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 회복을 고수하기 위해 미 연방 및 주 입법부에 로비 활동, 그리고 청소년 교육에 힘써 왔습니다. 뉴저지 27 선거구는 막강한 민주당 후보가 지난 10여년을 고수해오고 있습니다. 특별한 부족함이 없는 Leadership이지만, 오래 고여있는 물이 신선함을 잃듯이 옛 열성이 식어져가고 있습니다. 그 무료함을 흔들며 새로운 의욕이나 적어도 경각심을 갖게하려함이 원규가 느끼는 소명인것 같습니다. 원규가 탁월한 학력이나 카리스마는 부족할지 몰라도 남달리 각 개인의 쓰임새를 잘 파악해 힘찬 team work을 만드는 식별력을 가진 듯 합니다. 일단 주의회에 발을 딛고 나면 현재 연방이나 주정부의 문제인 양극화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적은 Glue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이제 세계의 국가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으로 부각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못지 않게, 미국에 정착하는 우리 이민사회도 주민의 역할과 그 기대를 감당하는데 노력을 기울일때가 온 것으로 믿습니다. 개인들의 출중한 예는 여러 방면으로 나타나고 자랑스롭습니다. 또 우리의 문화소개 등으로 우리의

가치함양에도 많은 신경을 써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성실함과 미국 시민 으로서의 책임감당을 그 누구 못지않게 수행함을 보여 주어야 할때가 된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를 대변할 2세, 3세의 발걸, 훈련 및 성원에도 노력을 기울려야 할것으로 믿습니다. 이번 원규의 시도가 여러분의 성원에도 불구하고 성공치 못하더라도 앞으로 지속돼야 할 과제이기에, 우리를 이어 갈 차세대들에게는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주춧돌이 되는 보람있는 노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그 과정이 단축될 수 있고 큰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선거일은 6월 초 Primary(공화당후보 2명 뽑고), 11월 초에 General election(양당 후보 중 2명 뽑는 선거)이 됩니다. 이 선거에 실질적인 도움은 그 지역에 거주하며 투표권을 가지진 경우엔 자신의 표 뿐 아니고 주변의 가족, 친구, 이웃에게 원규 소개를 해주는 것입니다. 투표권이 없는 경우 선거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위해 모금운동을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특히 6월primary선거 때는 확고한 선거기금에 따라 공화당내 추천 후보자가 선정되느니 만큼 모금이 빠른 수록 효과가 크겠습니다.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좋은 제안 그리고 충언을 바라고, 물심양면의 성원을 빌며 어려운 청을 드립니다.’ ***

원인순 (Insoon Rim)울림
36 Merlin Dr. Washington, NJ
07882. 908-835-0003 (H) 973-960-5461 (C) insoonwrin@aol.com ***



김자성(의대 81) 박사

LA에서 인문학 특강 강연 열기

동문들 주최로 정신과 의사가 본 ‘사후 세계’ 펼쳐..., 타운서 열린 ‘특강’ 강연장 가득 경청, 최용완 동문 12월 5일 건축강연

지난 11월 24일 캘리포니아 LA에서는 소아정신과 전문의 김자성(의대 81) 박사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인문학 특강이 열렸다. 이날 모든 참가자들의 표정이 아주 진지한 가운데 열린 특강에서는 죽은 자의 영혼과 살아 있는 사람이 소통하게 만들어 준다는 영매(靈媒)가 ‘영’ 들로부터 메시지를 받는다고 했다. 그러므로 사후세계가 있다는 증거가 됐다고도 했다. 타운 한복판에서 100여 명의 우리 동포 한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인문학 특강’에서 김자성

정신과 전문의가 강연을 통해 내린 결론이다. 21세기 최첨단 시대에 ‘영매’나 영혼과의 교신을 논하는 것이 낯설게 느껴지지만 강연에 참석한 청중들의 열기는 의외로 뜨거웠다. 강사인 김자성 박사는 모교 의대 출신으로 서울대 소아정신과 전문의로 시작해 단국대 의대 교수, 코넬대 의대 정신과 전문의, 정신과 펠로우로 미국과 한국에서 임상의로 활동했다. 그는 기독교도 출신으로 오랜 기간 신학적 탐색을 거쳐 인간이 영적인 존재임을 시사하는 많은 과학적 연구를 근거로 내린 결론이다. 이날 강연에 참석한 한인들은 인간의 정신세계, 특히 죽음과

←지난 해 11월 24일 LA에서 김자성 박사가 강사로 나선 인문학 특강에서 참가자들이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다.

엇갈리는 영혼의 정체 및 활동, 과학적 증언과 분석에 대해 큰 관심을 갖기도 했다. 특강을 주최한 김홍목(문리대 60) 동문은 “이민자들의 삶이 먹고 살기 바빠서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들, 본질을 찾아보는 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누구나 흥미롭게 생각하고 있는 사후세계를 강연을 통해 제대로 알 수 있어 큰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특히 유케이탈 현상, 임사체험, 영매현상, 전생 기억증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와 연구활동은 내용은 전율을 느낄 정도로 지적 충격이 있었다”며 “이런 인문학 특강이 타운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문학 특강은 12월 5일 또 다른 주제로 한인 동포들의 잔잔한 지적 연못에 큰 돌을 던지게 됐다. 이날 최용완(공대 57) 동문은 ‘건축가에 비친 세계사의 흐름’이란 제목의 강연을 했다. 이번 강연엔 인류의 혈연학적으로 시작돼 문명의 싹과 다양한 문화의 동질성과 이질성, 민족대이동에 이어 발흥되는 종교의 역사 등을 건축가의 눈으로 소개했다는 평가다. 강의는 나란다 불교 아카데미에서 오후 6시30분에 무료로 열렸다. ***

LA의 신경정신과 정균희(의대 66) 전문의

정신 상담도 하고 서예도 가르치고...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시도 중 글쓰기는 좋은 방법중 하나죠. 집중하고 통일하고.” ‘서예에 조예가 깊은’ 신경정신과 전문의 정균희(의대 66) 박사. 아니면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부업으로 하는’ 서예가 정균희 선생. 어떤 것이 더 그를 소개하는데 어울리는지 모르지만 결론은 둘다 그를 소개하는 것으로 손색이 없다. 서예인으로서 정균희 선생을 소개해보자. 서력이 50년이다. 중학교때 붓을 잡았던 것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일중 김충현 선생에게 사사받았고 국전 2선, 신인전 1선, 전국학생회대회에서 문교부 장관상을 받은 바 있는 서예로도 일가를 이룬 그다. 미국에 와서도 소지 강창원 선생에게 사사받았고 일반에게서 예를 10년이나 가르쳤다. 미주서

회협회장을 역임했고 현재도 고문으로 일을 돕고 있다. UCLA 의대 교수를 역임한 것도 이력 중 하나다. 모교 의대를 나와 신경정신과 의사로 대학에서만 24년을 일했고 현재는 개인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분야처럼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정신과 관련이 있다. 글쓰기를 통해 정신통일을 하게 하는 것이나 정신상담으로 정신을 안정시키는 것이나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정신과 전문의로 힘든 때가 왜 없었겠어요. 제정신인 사람도 힘든데 그렇지 않은 환자를 만난다는게 좋지만은 않았죠. 그래도 저를 붙들여 준 것은 글쓰기이고 또한 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서 예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정신상담이나 글쓰기 위한 정신 집중이나 따지고 보면 다를 바 없었던 듯하다. 최근 한국교육원 건물에 새로 사무실을 냈다. 그런데 이곳이 재미가 있다. 사무실벽 사방에 그가 쓴 글자들이 액자와 함께 손님들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옆방에서는 정신 상담을 원하는 환자도 맞고 있으니 말이다.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를 이기고 창의력을 기르며 통찰력을 증진시키는데 서예를 통한 정신집중이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왔어요.” ***



정창호(법대 85) 판사

ICC(국제 형사재판소)재판관 선출

송상현(법대 59) IOC 소장 이어
연속 재판관 배출 경사

정창호(법대 85·사진)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ECCC) 재판관이 지난 해 12월 8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실시된 국제 형사재판소

(ICC) 재판관 임명을 위한 선거에서 임기 9년의 차기 재판관으로 선출됐다.

올 3월 임기가 만료되는 6명의 재판관의 뒤를 이을 후임 재판관을 선출한 이날 선거에서 정 재판관은 1차 투표에서 유효표 104

표 중 3분의 2가 넘는 73표를 받아 유일하게 1차 투표에서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서는 한국 외에 독일·프랑스·스웨덴 등 세계의 17개국이 후보를 내고 선거 운동을 펼쳐왔다.

이날 정 재판관의 당선으로 한국은 지난 2003년 ICC 출범 후 재판관으로 활동하다 2009년부터 ICC 소장을 맡고 있는 송상현(법대 59) 소장에 이어 연속으로 재판관을 배출한 국가가 됐다.

ICC는 대량학살, 반인도범죄, 전쟁범죄 등 중대한 국제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된 국제재판소로 현재 122개국이 가입해 있다.

임기 9년의 ICC 재판관 18명이 있으며 3년마다 6명을 번갈아 교체한다.

이날 선출된 정 재판관은 모교 법대를 졸업하고 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로 재직해오고 있으며 지난 2011년 8월부터는 ECCC 재판관을 맡고 있다.***

정종욱(외교 59)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

스탠포드대에서 남북간 현안 강연



스탠포드대 동아시아연구소는 지난 해 12월 1일(월) 정종욱(외교 59) 통일준비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사진)을 초청해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낮 12시 스탠포드대 옌시나 홀에서 열린 이번 강연에서 정 부위원장은 남북간 현안은

물론 억류 미국인 석방, 북한인권 문제제기 등 북한 관련 변수가 다각화됨에 따라 변화된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을 미전문가들에게 설명했다. 또한 체계적인 통일준비를 위해 설립된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의 활동사항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모교 외교학과교과를 졸업하고 예일대 대학원에서 중국문제 연구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정종욱 부위원장은 모교 서울대에서 교수로 재직 중 지난 1993년 김영삼 당시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1995년 외무부 본부 대사를 거쳐 1996~1998년 제3대 주중 대사를 지냈다. 이후 서울대와 아주대, 동아대 등에서 후진을 양성했다. ***

모교 물리천문학부 우종학 교수

시애틀에서 과학과 기독교 신학 강연

고국에서 크리스천 과학자로 널리 잘 알려진 학자 ‘과학과 신학은 어떤 관계?’ 등에 대해 해설

최근 ‘인터스텔라’ 영화로 우주과학 신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고국에서 대표적인 크리스천 과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는 모교 물리천문학부 우종학 교수가 시애틀 지역에서 두차례 강연을 갖고 과학과 기독교 신학의 관계를 설명하는 색다른 강연회를 가졌다.

우종학 교수는 1차로 지난 1월 7일 오후 7시 워싱턴대학(UW) 쿨드홀 114호 강의실에서 ‘기독교와 과학’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UW 랜더 홀 로칼 포인트에서 저녁식사가 제공됐다.

우 교수는 다음 날인 1월 8일 오후 6시30분 시애틀 드림교회(당



임 김범수 목사)에서 ‘과학의 도전과 신학의 응답’이란 주제로 2차 강연을 펼쳤다.

‘무신론 기자, 크리스천 과학자에게 따지다’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한 우 교수는 최근의 영화 ‘인터스텔라’로 인해 한국 방송 인터뷰 등이 쇄도하는 등 신에 과학자로 떠오르고 있다.***

하와이대 민족음악학과 이병원(음대 59) 교수

우리음악 연구 보급 47년 세계화



하와이대 민족음악학과와 이병원 교수(음대 59·사진)는 미국 땅에서 ‘한국음악’을 47년째 연구해온 학자다. 게다가 그의 말한 마디면 한국음악학계에서 미국 음악학계까지 ‘꿈틀’한다.

모교에서 국악을 전공하고 1967년 워싱턴대에서 민족음악학 석·

박사 과정을 마친 뒤 1974년 하와이대 교수로서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해외에서 민족음악학을 연구하는 길을 닦아놓은 셈이다.

이병원 교수의 이런 이력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또 민족음악학은 어떤 학문일까. 하와이에서 명성이 자자한 이병원 교수가 AM 1540 라디오 서울 ‘김철아의 국악갤러리’에 출연했다.

“민족음악학은 한 민족의 음악이 그 사회와 문화권 내에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 교수는 어떻게 이 분야에 발을 들여놓게 됐을까? . “어릴 적부터 전통음악에 관심이 많았다. 그러다 중학 2학년 때, 우연히 도서관에서 미국대학 카탈로그를 뒤적이다 UCLA에 민족음악연구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 때부터 이 공부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사실 이 교수는 민족음악학 연구뿐 아니라 하와이에 한국음악을 전파하는 데도 큰 기여를 한 장본인이다. 1974년 교수로 부임해온 과정 중 그는 “처음 부임했을 때, 하와이대로부터 한국음악 축제를 기획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당시에도 한국 무용단과 성금런, 지영희 등의 국악인을 섭외해 축제를 기획했다”면서 당시를 회상했다.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 온 그가 현재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는 분야는 ‘아리랑의 정치학’ 분야이다. “한국과 북한에서 아리랑을 사회적, 이념적으로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조망하고 있다”고 밝힌 그는 “또한 남북한 음악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보고 통일이 되면 서로가 서로의 음악을 어떻게 수용할지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연구하고 있다”고 말해 한국 음악학과 민족음악학 전체를 아우르는 그의 학문적 역량을 엿볼 수 있었다. ***

모교 음대 고 백낙호 교수 손녀 피아니스트 백민영

HeavenBound Benefit Recital

한국 피아노계 대부인 고 백낙호 서울대 음대 교수의 손녀인 피아니스트 백민영(사진)이 지난 해 12월 6일 ‘연주회(HeavenBound Benefit Recital)’를 가졌다.

백민영은 1997년 캐나다로 이민, 2007년 캘리포니아로 이주해 복미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뉴욕 이스트맨 음대에서 학·석사를 수료하고 토론토 콩쿠르에서 1, 2위를 하는 등 다수 콩쿠르에서 우승 및 입상한 경력이 있다.

고 백낙호 교수 외 고 안토닌 쿠발렉, 토마스 슈마허 등에게 사사한 백민영은 현재 오케피아(Orchepia) 아트스쿨에서 피아노 테크닉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오후 6시 아테시아에 있



는 트리니티(Trinity Christian Reformed Church) 교회에서 열린 연주회에서는 고전파, 낭만파, 바로크 시대 등의 다양한 피아노 곡이 연주됐다.***



하와이 주립대 한국학연구소장 이상협(경제 82) 교수

‘제7회 한국학대회’ 공동주최

‘한국학의 세계화’ 전략 모색
세계한국학대회, 전세계 20여 명
학자 참석 성황

하와이주립대학(UH) 한국학 연구소(소장 이상협·경제 82)와 한국학 중앙연구원(원장 이배용)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7회 세계한국학대회가 지난 11월 5일부터 7일까지 개최됐다.

이상협 하와이주립대 한국학 연구소장과 김현 한국학 중앙연구원 한국문화교류센터 소장이 공동조직위원장을 맡은 이번 학술

대회에서는 ‘한국학, 세계와 공유하는 인문정신’이란 주제로 세계 각국에서 200여명의 학자가 참석했다. 기조연설은 김우창 서울대 명예교수가 맡았다.

제7회를 맞은 이번 학술회의가 해외에서 개최되기는 이번이 두 번째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최초다.

학술대회에서는 학자들의 논문 발표 이외에도 한국학 관련 차세대 학자 발굴을 위한 석·박사 학위 과정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차세대 한국학자 논문상’

시상식도 함께 열렸다.

알라모아나 호텔 하이비스커스 볼룸에서 5일 열린 환영 리셉션에서 이상협 소장은 “올해 학술대회 주제는 세계인이 학문을 통해 한국을 바로 알고 연구함으로써 세계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며 “특히 급속한 경제발전 속에 각종 심각한 사회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면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풍요도 무척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인문주의의 세계화를 화두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에서만 한국학을 논하는 것은 오히려 모순이다. 이번 학술대회의 해외 개최를 통해 이제야 비로써 한국학이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배용 원장은 “한국학 중앙연구원은 전문성과 대중성, 한국과 세계를 아우르는 정신으로 일반인도 보다 접근이 쉽고 친근한 학문으로 접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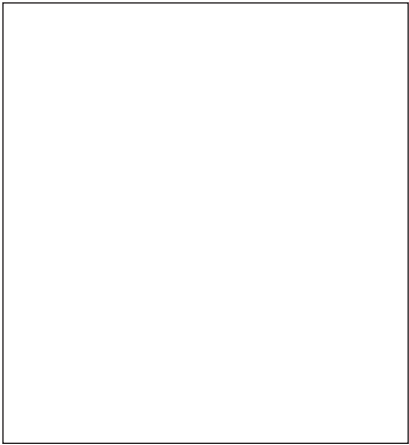


워싱턴 DC 동창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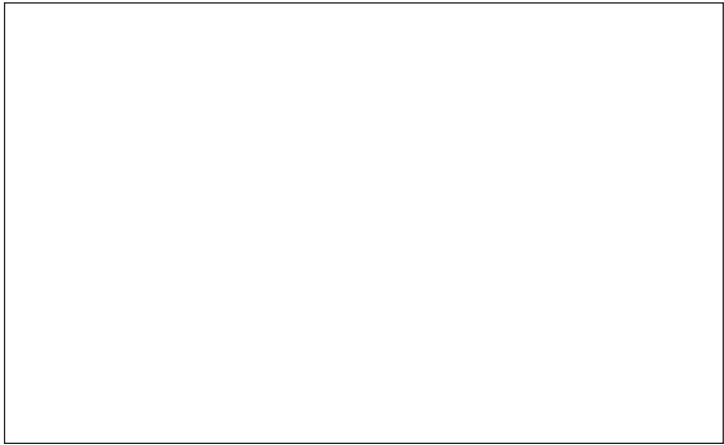
워싱턴 DC 동창회(회장 장경태 사대 75)가 지난 해 2014년 12월 30일 오후 5시 반부터 버지니아 The Westin Tysons Hotel에서 열렸다. 150여 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상문(인문 82)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장경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근래 보기 드문 규모로 동문들이 많아 참여해주어 감사하며 앞으로 임기 동안 동창회 친목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장경태 회장은 임원진을 소개했다. 왼쪽부터 부회장 노상문(인문 82), 회계 한정희(미대 81)·부회장 정종갑(경영 75), 골프회장 정세근(자연 82), 총무 신원석(의대 82) 동문.

지난 6월 캘리포니아로 이주한 박윤수(문리대 48) 초대 미주 동창회장은 영상 인사말을 보내왔다. 박 전 회장은 “아내의 건강 문제로 워싱턴 DC지역을 떠난지 벌써 6개월이 지났지만 마음만은 항상 이 지역에 머물고 있다” 며 “워싱턴 지역이 세계의 정치와 경제·문화의 중심지인 만큼 동문들의 많은 활동을 바란다” 고 말해 동문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본격적인 만찬을 하기 전 가장 원로인 방은호(약대 43) 동문의 건배제의가 있었다. 방은호 동문은 가장 신참인 이영은(음대 04) 동문과는 무려 61년의 세대 차이를 보여 이목을 끌었다. 윤경의(공대 57) 장학위원장은 박영삼(전산 99·UMD전산 박사과정) 동문과 이지현(영문 01·Jones Hopkins



국제관계 박사과정) 동문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윤경의 장학위원장은 그동안 봉사해온 장학위원장직을 사임함에 따라 후임으로 한의생(수의대 60) 동문이 추천돼 만장일치로 선임돼 앞으로 4년간 임기를 수행하게 됐다. 작은 음악회는 Flute 왕주현(음대 03), Cello 이영은(음대 04), 피아노 Richard Shin(Columbia 대 음대)



으로 구성됐다. 특히 Richard Shin은 신원석(의대 82) 총무의 장남으로 이목을 끌었다. 이날 미주 의대 동창회의 문대옥(의대 67) 전 회장은 무려 2시간 30여 분, 손재옥(가정대 77) 미주 동창회 차기 회장은 무려 4시간 반의 장거리 운전을 마다하고 이 행사에 참여해주어 동문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시카고 동창회

Drury Lane에서 총회 및 송년회

‘만나서 반갑고 함께 해서 즐거워’

시카고 동창회(회장 김호범·상대 69)가 지난 11월 30일 일요일에 Oakbrook Terrace에 위치한 Drury Lane 에서 2014년도 총회 및 연말 송년 파티를 가졌다.

이날 동문 및 배우자들과 장학금 수여자들을 포함하여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용주(공대 69) 수석 부회장이며 차기 회장의 사회로 필자(김호범)는 인사말과 사업보고, 재무보고 및 장학기금 현황 보고를 했다.

65세 이상의 동문들의 모임인 Golden Club의 보고와 동창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세종문화회의 활동보고를 들었다. 이어 지난 2013년도 회장으로 동창회를 위해 수고하신 한의일(공대 62) 전 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2016년도 회장(차차기 회장 겸 2015년도 수석부회장)에는 차차기 회장 선발위원회(위원장 한의



일)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가 추천한 정승규 동문(공대 60)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올해 회장을 맡게 되는 김용주 동문은 인사말과 함께 같이 수고해 줄 임원들에 대해 소개했다.

동창회 행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인 동창회 장학



←한의일 전 회장에게 감사패 ↑ 사진 왼쪽부터 이영우(문리대 66) 장학기금 관리위원장을 비롯해 장학금을 받은 임재인, 김주리 학생의 모친, 이형은·주보영·김민지·이정훈·정태호, 오른쪽은 김호범 동창회장

금 수여식에서는 10명의 수상자들이 각 1천 달러씩의 장학금을 받았다. 이날 장학금 수여식에는 10명중 7명이 참석하였다.

University of North Carolina에서 영문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임재인 장학생(서울대 동문),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computer science 박사과정

을 이수 중인 정태호 장학생이 장학생들을 대신하여 수상소감과 감사의 인사말을 하였다.

초대 동창회장을 역임하시고 지난 해 작고하신 이기억(문리대 41) 박사를 기리는 ‘고 이기억 박사 추모 지정 장학금’ 은 임재인 장학생이 수상하였다.

2부에서는 음대 동문들이 마련

한 연주회와 게임이 있었다. 바이올린과 피아노 듀엣 연주(이소정 동문, 피아노, 김상겸 동문, 바이올린)에 이어 Music Jeopardy 게임을 하여 음대 동문들이 연주하는 live music 을 들으며, 곡명, 작곡가명, 등등을 맞추는 흥미 진진한 게임을 한 후 김영동문이 리드하여 동문 모두가 참여한 라인 댄스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동창회 장학금을 받은 장학생들은 다음과 같다.

▶임재인 Univ.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Ph.D 2015 English Literature (SNU Alumni BA 2006 MA 2008 from SNU English Literature) ▶정태호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Ph. D / TBD Computer Science ▶주보영 Benedictine Univ., Lisle, IL 5/2016 Biology ▶박현빈 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5/17 Electrical Engineering ▶이형은 2018 Mathematics ▶이내영 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2017 Psychology ▶이정훈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Masters Architecture ▶김주리 Univ. of Notre Dame, BS 2017 Philosophy/Pre-Health ▶김민지 North-eastern Illinois Univ. BA 2015 Economics ▶이유민 Northeastern Illinois Univ. MM /TBD Piano Pedagogy ***

<사진 = 임현재(의대 59)·글 = 김호범(상대 69)동창회장>



↑ 시카고 동창회의 청장년 모임인 ‘시카고 관악연대’ 를 결성한 동문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시카고 관악연대

Niles에서 창립 모임

시카고 동창회의 청장년 80 ~ 90 모임인 ‘시카고 관악연대’가 지난 해 11월 14일 Niles 에 소재한 U&I에서 첫 모임을 갖고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시카고 관악연대는 올 1월 16일 (금) 두번째 모임을 가질 예정이며 이 모임에서 앞으로의 행사와 사업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1975년 관악캠퍼스 이전에 따른 동문들의 모임인 ‘관악연대’는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그동안 뉴욕과 워싱턴 DC 등지에서도 모임이 결성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락처 = 301-395-7285, 630-881-5222.

<사진 = 시카고 관악연대>



남가주 동창회

Queen Mary에서 창립 40년 행사

남가주 총동창회(회장 이서희 법대 70)가 100여 명의 동문들과 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 40주년을 기념하는 문화행사 및 송년회를 지난 해 11월 22일 Long Beach 의 Queen Mary(1126 Queens Highway Long Beach CA) 초호화 여객선에서 개최했다.

Queen Mary호는 1936년 항해를 시작해 영국과 뉴욕을 오가며 대서양 1001번째를 마지막으로 캘리포니아에서 구입, 영국 조지 5세 왕비의 이름을 따서 부두에 전시돼 호텔과 박물관으로 이용되고 있다. 옆에는 러시아 잠수함도 전시돼 있고, Ice Skating도 즐길 수 있으며 겨울 얼음동산으로 한층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유명하다.

오후 4시 반부터 미술품 및 서예작품, 도자기, Donation 서적과 CD 등의 관람 후 6시 Reception에서는 동문들이 저마다 아름다운 드레스를 자랑했다.

김창신(사회과학대 75)총무국장의 개회사로 이서희 회장은 다음과 같은 인사말을 해주었다.

“친애하는 선후배 여러분, 오늘 Long Beach의 Queen Mary호 Verandah Grill에서의 동창회 40주년 기념 파티, 문화행사 및 이웃돕기 기금모금 행사 개최를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사는 동창회 창립 40주년을 기해 동문들의 문화활동을 전시, 소개하는 첫 행사라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5 fields의 작품에 많은 동문들께서 협조해주셨습니다. 그림 18점, 서예, 서각, 수석 20점, 사진 6점, 도자기 2점, 저서 11종, 음반 2종 등 총 25분 작가 70작품이 출품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호응하시어 이번 행사는 더욱 빛이 났습니다. 또한 최용완 동문(공대 57)께서 작시한 ‘서울대 남가주 총동창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하며...’를 최 동문이 직접 낭송하는 축하의 message에 감사드립니다. 이선정 동문(음대 99)의 J.S. Bach, R. Gliere 곡 violin 연주, 출품한

분들의 자신 및 작품소개 시간과 최명용 동문(음대 64)이 lead 하신 Sing-Along은 동문들의 마음과 분위기를 더욱 화기애애하게 만들것입니다. 이번 행사는 종래의 방법에서 벗어난 첫 시도라 더욱 뜻이 있습니다. 도움을 주신 많은 동문, 준비를 위한 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남가주 총동창회 40주년 행사의 발전을 위해서 건배합시다”

이어 최용완(공대 57)동문의 동창회 40주년 기념 축시가 있었다.<축시는 동창회보 23면 참조>

Violin 이선정(음대 99), Cello Mikko Pablo의 감미로운 J.S, Bach곡 Selections from 15 Inventions와 R. Gliere곡 Selections from 8 Pieces op.39의 Duet은 파티를 더욱 격조높게 수놓았다.

강창환(공대 77)동문은 가을 단풍과 은행나무의 연감을 소재로 한 작품을 선보였다. 왕궁여좌 뒤에 있는 ‘일월오복도’는 해, 달, 다섯 봉우리를 말하며, 그 뜻은 ‘하늘이 당신을 보호하고 도와 해와 달이 밝게 비추고 산이 높고 계곡이 깊어 물이 흐르고 나무가 무성해 오래 오래 가리라’라는 의미라고 했다.

김명희(미대 68)동문의 ‘나무, 바람’ 등의 작품에서 나무는 강인한 생명으로 인간의 고된 역경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승리의 공감과 짝 짜여진 일과가 험겁고 고달퍼도 자유로움을 만끽함을 그려낸 작품들이라고 한다.

박영수(미대 84) 동문은 밤하늘의 이미지, 숲속에서 보이기도 하고 가려지는 과거의 기억과 생각, 편안함과 천사의 얼굴등의 과거의 추억을 되살리고 떠올리는 작품들을 출품했다.

서예는 오형원(외대 53) 박사의 붓글씨 작품과 국선입선 경력의 정인환(법대 54), 변영남 동문의 작품 등이 전시되었다.

김진형(문리대 66)박사는 도자기를 기증했는데 김기순 여류 도예가의 작품으로 김영삼 대통령 상을 받은 4천 달러 정도 상당의



↑ 위 사진 왼쪽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시인이며 수필가인 최용완 동문이 축사를 낭독하고 있다. 미주 동창회 제11대 김은중(상대 59) 회장 부부를 비롯한 남가주 동창회 원로들이 축하를 들고 있다. 이서희 회장이 강창환 동문에게 기념품을 증정. 이서희 회장이 김창신 총무국장과 도자기 옥션을 진행 중이다.

2개의 작품이 눈길을 끌었다. 이 작품은 Auction에서 서치원(공대 69)상임이사가 한 개를 650달러로 구입하는 행운을 차지했다.

홍광식(공대 62)동문이 1천 달러를 website에 기증했다.

사진작품은 김지영(사대 69), 서치원(공대 69), 고정범(법대 79), 박찬민(공대 81), 김양희(음대 77) 동문이 출품했다. 저서는 김지영, 객건용(문리대), 라철삼(문리대 64), 차중환(사대 54), 이중호(문리대 81), 최운화(상대 78), 최용완(공대), 홍광식(공대) 동문들의 작품이 전시됐다.

강미자(음대 62)동문은 수선화, 동심초, 가을의 기도 등 43곡이 들어 있는 CD를 기증했다.

이어 최명용(음대 64)동문의 Sing along에서 모닥불, 인생은 미완성, 바위섬, 에텔바이스, 아침이슬은 옛 학창시절의 그리움을 자아내게 했다. 최광진과 그의 Band는 경품 추첨과 함께 춤과 웃음을 선사했다.

행사를 위해 박혜옥(간호대 69) 수석 부회장 및 김창신(사회대 75) 총무국장, 김영혜(문리대) 부총무, 김양희(음대 77) 사업국장, 박제환(문리대) 재무, 홍선

례(음대 70) 클럽위원장, 유혜연(음대 79)문화위원장, 염인숙(가정대 78)가족의밤 위원장, 김병연(공대 68)고문, 양민(공대 77)자문위원, 조무상(법대 70)동문 등이 큰 수고를 해주었다.

이같은 이색적인 송년회가 오래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사진 = 조무상(법대 70) 남가주 동창회 website 담당, 글 = 백옥자(음대 71) 미주 동창회 조직국장·홍선례(음대 70) 남가주 동창회 클럽위원장>

↓ Cello Mikko Pablo와 Violin 이선정(음대 99)동문의 연주. 동문들이 출품한 서예 및 미술작품들.





남가주 공대 동창회

‘작가의 집’에서 총회 및 송년회

남가주 공대 동창회(회장 김영도·기계 67) 정기총회 및 송년 모임 행사가 지난 해 12월 12일(금) 오후 6시 30분 ‘작가의 집(대표 김병연·공대 68)’에서 열렸다. 행사 당일 새벽 비바람으로 남가주 여러 지역에서 홍수가 났다는 뉴스였음에도 불구하고 6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했다.

빨간 Corsage를 입고 나온 양민(공화 77)전 회장 사회로 진행된 총회에서 고 김병삼 동문에 대한 추모 후 최고 원로 유수안(금속 53) 동문부터 막내 박찬민(기계 87)동문까지 소개가 이어졌다.

남가주 총동창회 이서희(법대

70 회장 부부, 박혜옥(간호대 69) 차기회장 부부, 김창신(사회과학대 75) 총무국장도 참석했다.

최용완(건축 57)동문의 축시낭독, 이서희 회장의 축사 후 2012~13년 회장으로 봉사한 양민 전 회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2015년도에는 김영도 회장이 한 해 더 유임기로 했으며 수석 부회장에는 권국원(기계 69) 동문이 선출되었다.

2부 순서에서 남가주 동창회 홍선례(음대 70)클럽위원장이 연주자들을 소개, 최혜성(음대 99)동문의 플룻연주 Bach의 Minuet, 프랑수아 보네의 Carmen Fantasy 와



↑ 김영도 회장(왼쪽)이 양민 전 회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고 있다.

앵콜곡 타이스의 명상곡은 방청 동문들이 몸을 좌우로 흔들며 몰입하게 만들었다.

제갈소망(대학원 02) 동문의 피아노 Liszt의 ‘월리암텔 성당,

샘가에서’는 폭풍우가 치듯 빠르고 박력있는 기교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Christmas Song Medley가 앵콜곡으로 3부가 이어졌다.

화려한 드레스의 여성 Cantemos 중창단 Let it snow 와 O Holy Night'은 분위기를 숙연케 했다.

3부는 라디오 서울 및 YTN 최광진 앵커의 사회로 먼저 라인댄스를 유도해 2부의 숙연함에서 자유로운 감정의 발산 분위기로 전환시켰다.

퀴즈게임, 단체게임에서는 앞전히 앉아 계시던 마나님들까지 모두 나와 온몸을 열정적으로 흔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날 이서희 회장을 비롯해 공대 홍광식(항공 62)이사, 김병연(응용수학 68)전 회장, 남가주 동창회 서치원(전자 65)전 회장의 Donation을 포함한 푸짐한 선물이 제공됐다. 1등상 iPad Air

는 유수안(공대) 동문의 Raffle로 김창신 총무국장이 뽑히는 행운을 누렸다.

백정현(음대 66)동문은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 Hawaiian Wedding Song, Autumn Leaves’를 감미로운 음성으로, 홍광식 동문은 ‘Summer Time’을 멋있게 불러주었고 김문희 시인(김병연 전 회장 부인)은 ‘친구여 친구여, 아프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시를 낭송해 주변을 숙연케 했다.

그동안 불철주야로 수고해준 임원진은 부회장 김용상(항공 79), 재무 박찬민(기계 81), 총무 석호태(건축 85), 섭외 변정주(공대) 동문 등이다.***

<글 = 백옥자(음대 71)미주 동창회 조직국장, 사진 = 박찬민(공대 81)공대 동창회 재무국장>



남가주 음대 동창회

JJ Grand Hotel서 총회 및 송년회

남가주 음대 동창회 총회 및 송년회가 지난 해 12월 9일(화) 오후 6시 LA의 JJ Grand Hotel에서 열렸다.

은은한 실내악 연주가 80여 명이 참석한 송년파티 분위기를 한층 돋우워주었다.

권길상(음대 46) 작곡가 내외분을 중심으로 원로인 김광은(음

대 56)전 회장, 김광철(음대 59) 이사장, 김창무(음대 66)전 회장)께서도 참석해 동문들과의 정감어린 만남에 더욱 애뜻함이 느껴졌다.

2014년 박영희(음대 66)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과없이 임기를 마치게 되어 다행”이라며 “특히 지난 해 정기 연주회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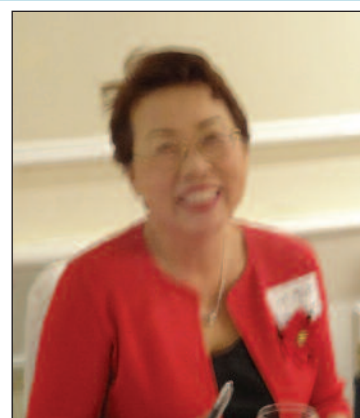
멋지게 해냈다는 칭찬이 많았는데 모두가 임원들이 함께 뭉쳐 훌륭한 연주자도 찾고 프로그램도 심사숙고해 잘 만들었으며 홍보와 티켓판매로 청중을 동원해주는 등 여러 면에서 체계 큰 힘이 되어준 덕분”이라며 겸손의 말을 전했다.

박 회장은 지난 한 해 차분하게 동창회를 잘 이끌어 주었다는 평을 받았다.

이 날 남가주 총동창회 동문들이 대거 참여해 축하해주었다.

이서희(법대 70)총동창회장, 김상찬(문리대 65) 전 회장을 비롯해 김병연(공대 68) 공대 동창회 전 회장과 부인 김문희 시인, 김창신(사회대 75) 총동창회 총무국장, 박혜옥(간호대 69) 총동창회 차기회장, 홍광식(공대 62) 공대 동창회 이사 등 여러 분들이 참석해 격려와 우정을 함께한 것이다.

특히 이서희 총동창회장은 기념 선물을 준비해 전임 박영희 회장과 증정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 2015년 남가주 음대 동창회를 이끌어갈 서영란(음대 75) 회장.

서혜림(음대 73) 동문은 회계보고에서 ABC 상담교육원에 5천 달러를 후원하고도 남는 재정적인 여유로 다 단과대학의 부러움을 샀다.

서영란(음대 75)동문이 2015년 회장으로 선출됐는데 서 회장은 인사말에서 “전임 회장님들이 닦아 놓은 기반에 더 발전시키는 동문모임이 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힘차게 말했다.

서영란 회장은 제2부에서 멋진 소프라노성 음성의 사회로 댄스파티를 이끌며 2014년 송년을 멋지게 장식하고 새해의 밝은 정기를 맘껏 받을 수 있는 즐거운 모임을 주도했다.***

<글·사진 = 백옥자(음대71)미주 동창회 조직국장>



필라델피아 동창회



↑음대 동문들이 이날 모임에서 ‘Happy Birthday’ song부터 다양한 concert를 선사해주었다.

Blue Bell 남산에서 연말 모임

필라델피아 동창회(회장 전방남·상대 73)가 지난 해 12월 6일 Blue Bell의 Arisu(구 남산)에서 정기총회를 겸한 송년모임을 가졌다. 모두 90여 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참석하여 소식과 안부를 나누

며 송구영신하는 뜻 깊은 시간을 나누었다. 송년모임에서는 특별히 참석한 오인환 미주 동창회장의 축하인사가 있었다. 맛있는 뷔페식사와 함께 참석한 모든 동문들의 인사소개가 있었는데, 최고 원로인 47학번의 서

재진(공대) 동문을 위시하여 가장 젊은 동문인 09학번의 채주원 동문에 이르기까지 동반한 가족과 함께 소개되었다. 마침 이날 생일을 맞은 윤정나(음대 57) 동문을 위해 ‘Happy Birthday’ song으로 축하하며 생일선물이 증정되기도 했다. 곧 이어 열린 음대 동문의 mini

음악회에서는 soprano 채주원(음대 09), soprano 심희진(음대 90) 동문들이 가곡과 푸치니 오페라의 아리아를 노래했고, 현지연(음대 85) 동문의 piano trio연주가 있는 후 ‘O Holy Night’를 모든 연주자가 같이 불러 우아한 성탄절과 송년 분위기를 자아내었다.

이어 필자(전방남)의 사회로 1부 순서인 정기총회가 진행되어 2014년 활동보고가 있었는데, 9월 가을 이사회 및 김종수(상대 66) 전 한은총재 초청 세미나, 10월 세종연구소장인 박현모 박사의 가을 초청세미나, 11월의 동창회 가을 golf 대회 개최, 필라델피아 동창회지인 ‘필라춘추’ 2014년호 발행(편집 김상돈 부회장·공대 77) 등과 함께 필라 한인음악인 협회(회장 심희진 동문) 창립 30주년 기념공연 협찬 등의 예술 행사 지원 등이 보고 되었다.

서원혁(자연대 94) 부회장으로 부터 2014 전반기 회계보고를 들은 후, 감사선임(임기 2014-6)이 있었는데, 황선희(공대 94) 동문이 만장일치로 선출되었다.

이후 2부 순서인 장기자랑·가라오게가 열렸다. 유영진(경영대 85) 부회장, 서원혁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돼 퀴즈 순서와 함께, table별로 mission을 주어 합동으로 수행하는 코믹하면서도 동문우애를 다지는 시간이었는데 1등은 ‘선창’을 구성지게 부른 강영배(수의대 59) 동문조가 차지했다.

마지막을 장식한 raffle추첨 순서에서는 푸짐한 상품들이 주어졌는데 champion 대상은 Mrs. 정홍택(상대 61)이 차지했다. 서울대 logo가 새겨진 sports bottle이 모든 참가자들에게 증정되며, 일동 기념촬영과 함께 즐거운 송년행사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기약하였다. ***

<글·사진 = 전방남(상대 73) 회장, 서원혁(자연대 94)·진근우(자연대 99) 동문>



록키 마운틴 동창회

신임회장 송요준 동문 선출

록키 마운틴 동창회가 지난 해 12월 6일 동창회 모임을 갖고 차기 회장으로 송요준(의대 64) 동문을 선임했다. 록키 마운틴 동창회는 이어 12월 13일 송요준 회장 자택에서 임원들과 앞으로

동창회 업무와 행사 등 전반적인 사업에 관해 협의를 했다. 송요준 회장은 우리 모임이 아직 콜로라도 주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어 앞으로 비영리 단체로서 등록 절차를 추

진 중이다. 독자 등록 및 미주 총동창회 Sub-Section(with minor amendments, if desired)으로도 또한 등록을 하는 쪽으로 검토 중에 있다. 록키 마운틴 동창회는 콜로라도

주와 와이오밍 주, 뉴멕시코 주 등 3개 주에 걸쳐 있고 지난 2003년 결성됐으나 그동안 미주 동창회와 유대관계가 그리 활발하지는 못했다. ***

<글 = 이희삼>



뉴잉글랜드 동창회

렉싱턴에서 2014년 송년회

뉴잉글랜드 동창회(회장 장수인·음대 76)가 지난 해 12월 13일 렉싱턴에서 50여 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2014년 송년 파티를 열었다.

특히 이번 송년 파티에는 워싱턴 DC로부터 미주 총동창회 오인환 회장(문리대 63)이 특별 방문하여 자리를 함께 하였다.

오인환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개인의 역량만으로 극복해낼 수 없는 ‘그룹의 힘’을 강조하며 동창회 활성화를 독려했고 다음 날 이사들과의 브런치 자리에서는 NE 동창회 활동에 대해 큰 관심과 만족을 표명하였다.

임원들이 준비한 아름다운 성탄 장식의 따뜻함 속에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음악이 연말분위기를 살려내며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특히 기악과 출신의 음대 동문들 가운데 김현정(02)·고은애(08)·최혜민(02)·이영숙(01) 동



↑장수인 동창회장의 인사말 장면

문 등이 준비한 하이든의 현악사중주 Op. 76 No.4 ‘Sunrise’를 통해 분위기를 고취시켰다.

이상원(음대 89) 동문의 ‘거룩한 밤’ 독창에 이어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싱얼롱으로 스트링 반주에 맞춰 부르는 시간을 가졌다.

동문들의 연주에 한껏 들뜬 동



↑음대 동문들이 멋진 연주, 그리고 화음으로 로 이날 송년회 분위기를 한껏 격조높게 고조시켰다.

문 및 가족들은 기립박수와 앙콜을 외치며 훌륭한 연주에 적극적인 호응을 보냈다.

이어 일리노이대 교수로 재직 중인 김경일(공대 58) 고문의 ‘Symphony of Space’라는 강연을 통해서는 건축물의 음악성에 관해 다양한 건축물 사진을 곁들여 가며 전문가의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다.

이는 NE 동창회 행사 중 ‘그것이 알고 싶다’의 제3탄에 해당하는 NE 동창회 시리즈 강연 중 하나다.

이 시리즈물의 주제 발표와 질의 응답을 통해 동문들간에 친밀한 지적 교류를 나누는 깊이와 재미를 함께한 연말 행사를 만들

어냈다.

이어 댄스 전문강사의 인도로 최신 유행곡인 ‘Shake it off’에 맞춰 동문과 가족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참여하여 댄스를 배우며 연말파티의 흥겨움이 절정에 달했다.

윤상래(수의대 62)·NE 동창회 전 회장) 고문은 closing remark를 통해 “NE 지부가 08학번부터 50년대 학번까지 참여할 정도로 신규 세대가 조화를 이뤄나가고 있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행사를 준비해준 장수인 회장 이하 모든 임원들의 수고를 치하했다.

한국 방문시 모교에 들러 직접 구입해온 모교 배지를 각 가정당 하나씩 나눠준 장수인 회장은 “임원 및 고문, 회원, 가족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준비에 희생적으로 임해주어 풍성하고 유쾌한 가운데 동문들이 하나 되는 행사가 될 수 있었다”며 동문들에 대한 깊은 신뢰와 애정을 표하기도 하였다.

동문들은 그 자리에서 옷깃에 배지를 달며 학창시절을 추억하는 좋은 시간을 가졌다.

장 회장은 “동창회의 다음 행사로는 봄 나들이와 총회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행사는 동창회 홈페이지(<http://sites.google.com/site/snuaane/>)에서 동창회 소식과 행사 사진 등을 볼 수 있고 기타 문의는 snuaane@gmail.com으로 하면 된다.***

<글·사진 = 이재형(공대 91) 동창회 기획국장>



애틀랜타 동창회

도라빌 스프링 홀에서 송년회

애틀랜타 동창회(회장 김동현·상대 69)가 지난 해 11월 30일 한 해를 마감하는 송년 모임을 개최했다.

애틀랜타 동창회는 이 날 도라빌에 있는 스프링 홀에서 모임

을 갖고, 회원들간 친목을 다지는 한편 새로운 한 해를 설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의 행사는 저녁식사에 이어 장기자랑과 여흥 시간이 펼쳐졌다. 지난 해 뉴욕에서 은퇴

후 애틀랜타로 이주한 김영식(공대 67) 동문 부인인 벨라 김씨는 고전 창작무용인 ‘나들이’와 ‘노들강변’ 공연 등을 선보였다.

동문 회원들은 한국의 고전무용을 감상하면서 고국에 대한 향수를 달래기도 했다.

김동현 회장은 “2014년 한 해를 무사히, 또 보람있게 보낼 수

있어 감사하다”며 “내년에는 애틀랜타 한인사회가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동문회 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애틀랜타 동창회는 매년 정기총회를 비롯해 봄과 가을 야유회, 그리고 송년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애틀랜타 중앙일보>

↑애틀랜타 동창회 동문들이 지난 해 11월 30일 송년회를 가졌다.



관악세대/Acro광장

역지사지(易地思之), 우리 민족의 구원

이원영(인문대 81) CA
미주 중앙일보 논설위원
미주 동창회보 논설위원
한의학 박사

얼마 전 김경재 목사(한신대 명예교수)가 쓴 ‘의사 장기려의 역지사지’란 글을 읽고 많은 교훈을 얻었다. 페이스북에 이 글을 옮기며 ‘올해 가장 감동적인 글’이라고 썼다. 이 글을 통해 알게된 장기려(1909~1995) 박사의 에피소드를 인용해본다.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장기려 박사는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2월 어머니와 아내, 다섯 자녀를 평양에 남겨둔 채 아들과 함께 남하하는 바람에 이산가족이 됐다.

그는 평의가 되었고 많은 봉사활동으로 훈장도 받았다. 북에 남은 아내를 그리며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당신인 듯 하여 잠을 깨었소’라고 글을 썼듯 사무치는 한을 안고 살았다.

그러던 중 1990년 무렵, 미국에 정착한 제자들이 장 박사의 북한 가족상봉 기회를 마련했다. 그러나 장 박사는 “1천만 이산가족 모두의 아픔이 나만 못지 않을 텐데 어찌 나만 가족재회의 기쁨을 맛보겠다고 북행을 신청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거절했다고 한다.

김경재 목사는 이 에피소드를 소개하면서 “수많은 이산가족들의 자리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느낀 것”이라고 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즉 역지사지(易地思之)한 것이다.

역지사지는 ‘맹자’에 나오는데 중국의 전설적인 성인이자 정치인인 하우와 후직, 그리고 공자의 제자인 안희의 이야기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하우와 후직은 굶주리고 물에 빠진 백성들을 보면 자신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랬다고 반성했다. 태평성대에 살았지만 집에 들어가 편히 쉬기를 주저했다.

안희는 난세에 태어나 불우하고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여건을 탓하지 않고 학업에 정진했다. 맹자는 이를 두고 ‘역지즉개연(易

地即皆然)’이라고 했다. 입장이 바뀌었다라도 다 그랬을 것이란 의미로 역지사지는 거기서 유래했다. 하우 후직과 안희가 태평성대와 난세를 바꿔 살았더라도 같은 처신을 했을 것이란 의미다. 흔히 ‘그 사람 입장이 됐다면 너도 똑같이 했을 것’에 해당되는 말이다.

김경재 목사는 “우리 사회의 온갖 문제는 처지를 바꾸어 상대방을 이해하는 능력이 마비되었기 때문”이라고 정곡을 찔렀다.

역지사지하면 남을 배려하게 된다. 남과 내가 함께 가는 공생, 상생의 마음이다.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는 이런 마음이 널리 퍼지면 자신이 알지도 모르게 행사하던 차별도, 가족간의 갈등도, 남과 북의 끝없는 대립도 줄어들지 않을까.

역지사지는 그렇듯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주는 마법같은 자세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이기심, 개인주의, 욕심이 역지사지하는 마음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그 대신에 판을 치는 것은 아전인수(我田引水)다. 남의 논둑을 터서 내 논에다 물을 댄다는 의미다.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방식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사회에 갈등이 만연한다는 것은 아전인수하는 사람들이 넘쳐난다는 말이다. 물의 양은 정해져 있는데 저마다 눈에 불을 켜고 제 눈에만 물을 들이려는 그런 사회에 평화가 깃들 수 있을까.

역지사지는 감사함이 솟아나는 분수대다. 자식의 입장, 아내의 입장, 종업원의 입장, 장애인의 입장이 되어보면 그들의 고충이 보인다. 고맙고 미안한 마음도 생긴다. 아전인수하면 내 눈에 물만 채우려하지만 역지사지하면 다른 눈에 물 빠지는 걸 보고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된다.

김경재 목사의 글로 맺고 싶다. “역지사지하는 능력과 작은 실천이 곧 그 사람의 인간 품격과 국가사회의 격을 결정한다. 이런 품성이 우리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지도 모른다.”

미생마의 꿈



강신용(사대 73) CA
회계사(CPA) · 수필가

‘청마의 해’도 어느 틈엔가 사라졌다. 서머타임이 바뀌는 계절이면 유난히 해가 빨리 짧아진다.

쌀쌀한 바람이 주변을 서성이며 구르는 나뭇잎처럼 어딘가로 떠나는 이들에 마음이 쓰인다. 밤새도록 내린 가을비 뒤끝에 찬 바람이 내 본능을 자극한다.

핏속에 조용히 돌고 돌던 유전자 속에는 아직도 겨울이 잠자고 있나 보다. 겨우살이 한 철을 맞는 남정네의 마음 씩씩이가 초겨울의 그림자만큼이나 길게 드리우는 계절이다.

추수감사절이다, 성탄절이다, 사람 노릇할 일은 많았는데 소처럼 말처럼 일하긴 했는데 여기 저기 들리는 소리는 빈 수레 소리만 요란하다.

‘인생은 새옹지마’라고 어려운 시절을 겪어야 좋은 시절에 감사하고 겸손하게 살게 된다고

했던가. 마치 쓴 맛을 알아야 단 맛이 얼마나 귀하고 고마운지 아는 것처럼. 지나온 열두 달을 되돌아보는 것보다 다가올 두 달을 염려하는 것이 말을 살찌게 할 수도 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고 멀리도 왔다. 멀고 긴 여정이면 코이처럼 자라는 줄 알았다. 어항에서 자라면 겨우 4인치로 자라는 놈이 연못에 풀어 놓으면 준척으로 자라는 신기한 물고기가 바로 코이라고 한다.

코이는 노는 물에 따라 성장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자라서 40인치까지 쑥쑥 크고 강하게 자란다. 피라미가 대어가 되는 신기한 물고기처럼 조국 산천을 안녕하고 기회의 나라에서 달린지도 십수년이 지났다. 코이처럼 길고 먼 강을 헤엄쳐 오르는 꿈속에 오늘도 하루를 지낸다.

‘미생’이라는 고국의 드라마가 화제다. 월급쟁이 직장인들의 모습에서 우리들은 어느 새 주인공이 되어간다.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상사의 말이라면 무조건 복종하던 시절을 몸으로 겪으며 지냈다. 지금도 그렇지만 직장은 많은 것을 의미한다. 은근한 젊은 남녀의 눈빛 속에 사랑도 담겨 있다.

치열한 생존경쟁의 현장에서 젊음이 녹아나던 시절이 그곳에 보인다. 시간은 모든 사람의 편만은 아니다. 뛰고 넘어지고 일어서는 재인들의 애환이 가슴을 울린다.

바둑 격언들이 드라마에 많이 등장한다. 인생의 축소판이라는

바둑은 격언만 알아도 1급이라고 한다.

‘남의 집이 커 보이면 바둑은 진다’라는 격언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인간의 억제할 수 없는 탐욕을 다스리는 냉정한 마음자세를 보여준다.

1년 365일 매일이 다르듯이 흑백 돌 361개가 361개의 교착점에서 싸울 때마다 미생마의 생사는 엇치락 뒤치락하게 된다. ‘갑’질의 생존게임에서 주인공의 바둑 격언이 반상 위에 빛난다.

미생마는 탐나는 먹잇감이다. 우리는 미생마처럼 수많은 나날들을 움츠리고 살아간다. 건드리면 터져버리는 아픔이 너무나 많다. 행여나 제복의 얼굴들이 ID라도 내밀면 가슴이 철렁한다.

관청에서 서류라도 받아들면 지레 겁부터 먹는다. 신대륙이라고 꿈과 희망이 있다고 왔는데 살찐 늑대들이 우글대고 있다. ‘사즉생’이라고 죽기 살기 싸우다가 안 되면 최선의 공격은 최선의 방어라고 36계 피하고 보는 거다.

태풍이 불면 피하는 게 상책이다. 공연히 맞서 싸운다고 상주는 것도 이기는 것도 아니다.

강물에 사는 코이는 적들이 많다. 크고 강해야 이긴다. 본연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사는 거다. 멀리도 달렸다. 9회 말 2사까지 잘 견디고 있다. 한 집만 더하면 완생의 꿈을 이룰 수 있다. 땅에 젖은 얼굴이 거울에서 웃는다.***

상처의 주범은 좌절된 기대

한정민(농대 87) VA
워싱턴 가정상담소 상담사
미주 동창회 총무국장

‘상처’가 만연한 사회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상처’란 단어가 진짜 ‘상처’보다 더 넘쳐나는 듯 하다.

철순이 넘은 한 지인이 “요즘은 왜 그렇게 상처란 말을 많이 쓰는지 모르겠네. 언짢은 말을 들어서 ‘상처 받았다’고 하고, 가족과 좀 언쟁해도 ‘상처 받았다’고 하고... 우리 자랄 때는 몸에 진짜 생채기가 나면 그걸 상처로 알았는데..., 요즘 세대는 왜 그리 상처를 잘 받는지...”라고 말하는데 꽤 공감이다.

혹자는 ‘세상이 점점 더 각박해지고 험해졌잖아. 생존경쟁이 심해져서 상처를 더 잘 받는 게 아닐까’라고 한다.

물론 부모나 배우자의 신체적, 정신적 학대, 또는 성폭행이나 사회의 차별과 편견 등으로 마음에 씻기 힘든 ‘진짜 상처’를 안고 사는 이들이 있다. 특히 어린 시절 겪은 트라우마가 오랜 시간 깊은 상처로 남아 상담을 받으며 치유해 가는 이들도 있다.

상담 대학원에 다닐 때 자신의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 공부 후 ‘상처입은 치유자(wounded healer)’의 삶을 사는 동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다. 잘 치유된 상처는 오히려 다른 이들의 아픔을 더 깊이 공감할 수 있는 귀한 재산임을 일을 할

수록 더 느껴 감사하다.

그러나, 필자가 만난 많은 내담자들은 환경이나 남에게 받은 상처보다 스스로 기대했다가 그 기대가 깨질 때 오는 상처로 더 힘들고 아파하는 것을 본다.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이나 ‘받고 싶었던 대우와 인정’ 또는 ‘기대했던 자녀나 배우자의 모습’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가 내게 상처를 주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 한 번 솔직해지자. 진짜 상처의 주범은 ‘내 기대를 채우지 못한 그 사람’인가, 아니면 ‘기대를 쌓아올린 나’인가?

상처의 주범을 찾는 것은 참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남을 바꿀 힘이 없고 자신을 바꿀 힘만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 상처를 입히는 그 사람들을 하나 하나 찾아다니며 나에게 상처를 안주게 할 수는 없지만, 상처의 주범이 내 안에 있다면 어떻게 상처를 덜 받을지 애쓸 수 있기 때문이다.

부부 상담이나 가족 상담을 하다보면 가족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막연하고 비현실적인 기대들을 만난다.

“나를 희생하며 자녀에게 모든 정성과 힘을 쏟으면 공부 잘 하고 성공하겠죠”라고 조건부적 사랑을 기대하는 부모.

‘날 사랑하면...’이란 사랑의 족쇄로 상대가 나를 위해 완전하고, 빈틈없이, 그리고 계속적으

로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아내와 남편.

모임에서 혹은 자녀에게 기대하던 대접을 받지 못할 때 “어떻게 감히 나한테...”라며 상처받는 사람들.

그렇다면 상처의 주범인 그 기대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세상이 너무 가까워졌고, 그와 비례해 우리의 기대도 함께 높아진 탓이 아닐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만난 다른 이들의 삶은 나와 남을 계속 비교하게 만든다. 누가 생일에 무슨 선물을 받았는지, 휴가 중에 어느 곳으로 여행을 갔는지, 또는 아이가 어느 학교에 합격했는지 등이 내 안에 어느 새 기대를 심는다. 또한 드라마와 영화의 주인공들 또한 우리가 비현실적인 기대를 세우는데 일조한다. 매너 좋고 돈도 잘 벌고 거기에 잘 생기기까지 한 남자 주인공.

살림 잘 하고 자녀 교육에 천부적이며 경제적 능력까지 갖춘 미모의 여주인공. 놀면서도 공부 잘 하는 업친아.

그들로 인해 내 안에 만들어진 ‘자녀와 배우자의 이상형’이 혹시 나의 가족들에게 투사된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저는 남보다 더 쉽게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라고 느낀다면 오늘은 ‘나의 상처 리스트’를 한 번 작성해보자.

나의 상처의 주범이 혹시 좌절된 나의 기대 때문은 아닌지 점검해 보길 바란다.***

<counseling@fccgw.org>



관악세대/Acro광장

‘미생마’ 같은 인생

민경훈(법대 78) CA
미주 한국일보 논설위원
미주 동창회 논설위원

바둑 판 위에는 세 가지 돌이 있다. 하나는 산 돌이고 다른 하나는 죽은 돌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중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돌도 있다. 아직 잡히지는 않았으나 그렇다고 두 집을 내고 완생 하지도 못한 돌이 그것이다. 바둑에서는 이를 ‘미생’이라고 부른다. 바둑 용어인 ‘미생’을 제목으로 한 만화가 요즘 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처음에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연재되던 ‘웹툰’으로 등장한 이 만화는 책으로 나와 단숨에 200만 부를 돌파하더니 요즘은 드라마로 만들어져 역시 높은 시청률을 자랑하고 있다. 제목은 ‘미생’이지만 이 작품은 바둑 만화가 아니라 프로 기사가 되려다 실패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 ‘장그래’란 청년 이야기다. 고졸 출신으로 아는 사람 소개를 받아 인턴사원으로 취직한 그의 하루 하루는 그야말로 전쟁의 연속이다.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열심히 하지 않은 걸로 해 두겠다”는 독백으로 시작되는 장그래의 사회생활은 뭔가 잘 해 보려고 발버둥 쳐 보지만 잘 안 풀리는 수많은 한국 젊은이들의 가슴을 파고들고 있다. 그 혼한 연애나 사랑 얘기 하나 없이 평범한 직장인들의 일상을 그린 만화가 ‘샐러리맨의 바이블’로 불리는 것을 보면 이들의 애환을 제대로 짚기는 짚었나 보다. ‘미생’은 거기다 챗터마다 조훈현 대 섭위평의 대국 장면을 박치문의 해설과 함께 곁들였다. 바둑과 인생에 관한 은은하면서 깊이 있는 그의 관전평은 그 자체가 예술이다. 따지고 보면 한국의 젊은이들처럼 어려서부터 들들 볶이며 사는 사람도 많지 않다. 경쟁은 돌을 갖 지난 아기 때부터 시작된다. 조금이라고 유리한 고지에 자녀를 세우려는 학부모들로 종다한 유치원은 물론 프리스쿨도 문전성시를 이룬다. 돈도 돈이지만 애들 고생은 말할 것도 없다. 오죽하면 한국 초등학생이 OECD 주요 국가 중 가장 불행하다는 통계까지 나왔을까. 고등학교까지 대학 진학을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세월이 계속된다. 예전에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으로 고생은 끝났지만 이제는 사정이 다르다. 재학 중에는 연 1천만원이 넘는 학비에 생활비까지 마련해야 하고 대입보다 어렵다는 취업 시험을 준비해야 한다. 높은 토익 점수에 해외 연수에 각종 수상 경력에 자격증까지 온갖 것을 따야 하지만 그렇다고 다 취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하기 때문이다. ‘서울대면 취직이 보장’되던 시대도 지났다. 국문과·사회학과 등 전통적으로 취직이 안 되던과는 말할 것도 없고 영문과나 심지어는 경영학과도 직장 구하기가 힘들다. 울 줄업을 앞둔 한 친구 아들은 모교 경영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다녔는데도 아직까지 합격 통지를 받지 못해 초조해 하고 있다. 요즘은 대기업들이 아예 문과 쪽은 뽑지를 않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한다. 이공계 관련 전문 지식이 없이는 취업을 꿈꾸기 힘들다는 것이다. 지방대 비인기 학과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다. 설사 취직이 됐다 해도 다 같은 직장인이 아니다. 한국의 직장인은 천민인 인턴사원, 평민인 계약직 사원, 진골인 정규직 사원으로 구분돼 있다. 인턴사원이 온갖 차별과 고난을 극복하고 정규 사원이 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나 다름없다. ‘미생’의 장그래 이야기는 바로 인턴사원이 계약직 사원이 되기까지의 힘겨운 과정을 그린 것이다. 한국 학생들의 최고 희망 직종이 공무원인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어린 학생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과잉 대학 진학에 따른 부작용을 막는 길은 하루 빨리 독일과 덴마크·스위스 식 직업학교를 확대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적성을 일찍 발견해 이를 개발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대학 진학자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 그래야만 대학 진학을 위해 소비되는 엄청난 돈과 에너지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 한국인과 정치권은 언제까지 지금 같이 어린 자녀와 학부모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고집할 것인가.***

건강의학 칼럼

전선증(Psoriasis)과 관절염

차민영(의대 76)CA
미주 동창회보 논설위원

▶Case 1 = 3년 전 30대 중반의 여성이 온 몸에 심한 소양증(가려움증), 하얗게 비늘처럼 피부가 일어나는 많은 반점을 가지고 찾아왔다. 한 눈에 보아도 건선증(Psoriasis; 영어로 ‘포라이아시스’라 읽음)임을 알 수 있었다. 여러 가지 약들을 써보았으나 낫지 않고 계속 악화되었다고 괴로움을 호소하였다.

▶Case 2 = 5년 전 20대의 청년이 비늘같은 반점이 팔꿈치에 돌아나면서 몸의 관절이 여기저기 아파서 왔는데, 류마티스과에 문의한 결과 나의 예상대로 건전성관절염(Psoriatic Arthritis)으로 진단이 나왔다.

건선증은 피부에 생기는 자가 면역질환(auto immune disease)이다. 몸의 면역체계가 자기피부세포를 병원체로 잘못 인식해서 생긴다.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면역요법, 유전, 환경적 요인의 컴비네이션으로 생기는 것으로 믿어진다. 특히 이런 사람들이 차가운 날씨, 특정약물 또는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이 시작된다고 알려져 있다.

피부는 3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장 바깥층이 표피(Epidermis), 중간층이 진피(Dermis), 가장 밑층은 피하층(Subcutaneous layer)이다. 표피층도 미세하게 여러 층으로 돼 있는데, 가장 바깥층에서 조금씩 오래된

피부가 떨어져 나가게 돼 있다. 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몸은 계속 표피세포를 만들어낸다. 건선증에서는 면역세포(임파구)들이 혈관을 통해 피부에 들어와 표피층이 빠르게 자라게 만든다. 반면 가장 바깥층의 세포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은 방해한다. 결국 겹피부세포들이 두 겹게 층층이 쌓여 비늘껍질이 하얗게 덮인 것처럼 보인다.

스트레스는 모두 건선증을 발현시키는 원인이다. 또한 담배는 이 병을 크게 악화시킨다.

건선증의 증세는 우선 피부가 건조해지고, 붉어지며, 은빛 비늘이 쌓인 것처럼 덮인다. 두피, 성기부위 또는 피부가 접히는 부분에 반점이 생긴다. 피부가 가렵고 통증이 온다. 여러 관절에 통증이 올 수 있고 손톱, 발톱에도 이상이 생기는데 손톱 가운데가 약간 들어가고(pitted nail) 색깔도 변색된다.

건선증은 5가지 subtype이 있다. Plaque, Guttate, Inverse, Pustular, Erythrodermic이다. 환자의 3분의 1은 건선성 관절염이 생긴다. 즉, 몸의 여러 관절이 붓고 통증이 온다. 보통 피부건선이 먼저 나타나고 관절염이 나중에 생기는데, 15%의 환자들은 관절염이 먼저 생기고, 나중에 피부건선이 나타나 처음에는 진단을 내리기가 혼란스러운 경우도 있다.

건선증은 아주 가벼운 질환부터 관절염을 동반하기도 하고,

‘갑질’ 못잡게 경계할 ‘을질’

노재원(인문대 82)CA
시카고 중앙일보 편집국장

갑(甲)과 을(乙). 계약서 등에서 편의상 한 쪽을 지칭하던 갑과 을이란 용어가 느닷없이 새로운 계급 관계 또는 상하 우열을 가리는 말로 둔갑했다. 엇그제 자정 무렵, 24시간 영업을 하는 동네 대형마트를 찾았다. 몇 가지 물건을 구입하고 계산을 하려는데 직원이 신분증을 요구했다. 구입한 물건 중에 주류가 포함된 탓이다. 마침 지갑을 들고 나오지 않은 아내가 “ID가 없다”며 내게 신분증을 대신 보여주라고 했다. “ID가 없다고?” 젊은 백인 계산원이 눈을 치켜뜨더니 우리를 실눈으로 훑어봤다. “ID를 가져오지 않았다. 왜 내 것을 보여주면 안 되냐”고 반문하자 모르는 척 자기 일을 했다. 순간 ‘ID가 없는 사람들’의 처지가 떠올라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 손님이 왕이 되는 그 혼한 관계도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왜곡된 갑의 행위, 소위 말하는 ‘갑질’은 힘이나 권력을 가진 쪽이 약자를 상대로 범하는 부당한 처사이자 폭력이다. ‘갑질’은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표출될 수 있다. ‘땡콩 회항’ 사태를 벌인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행위가 그렇고 권력의 문고리를 붙잡고 있는 청와대 비서관들과 권력 주변부 인사들의 행각이 그렇다. 비무장 흑인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사용으로 무고한 죽음을 불러온 일부 백인 경찰들의 일탈 역시 갑질에 다름 아니다. 관타나모에서 법과 인권을 무시하고 자행된 고문 역시 권력과 이데올로기가 빚어낸 갑질의 한 단면이다.

사실 갑과 을의 관계는 무자르듯 나누기 힘들다. 상황에 따라 갑이 을이 될 수도 있고 을이 갑노릇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심지어 을은 병(丙)에게, 병은 정(丁)에게 또 다른 형태의 ‘을질’ 또는 ‘병질’을 하기도 한다. 국가 간의 관계는 물론 사회에서 직장에서 단체에서 거리에서 심지어 친구 관계나 가정에서도 갑을이 혼재하는 관계가 존재한다.

갑과 을의 관계 대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부동산과 같은 비즈니스에서 갑과 을은 편의상 매도와 매수자를 나눈 것일 뿐이다. 거래는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시장이나 각자의 판단에 따라 합의되고 이뤄진다. 또 갑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자신을

드물게는 목숨이 위험할 정도로 심각한 증증에 이를 정도로 다양한 임상증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건선증을 치료할 때는 임상증세와 정도에 따라 치료를 달리 한다. 먼저 정신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환자들은 오래동안 낫지 않는데 대해 일종의 짜증 내지는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데, ‘낫는 것이 아니라 조절해야 하는 병’임을 인식해야 한다. 마치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만성병임을 알아야 한다. 만약 환자가 우울증을 느끼게 되면, 정신과 상담이나 항우울증 약이 필요할 수도 있다. 가벼운 정도에서 중간 정도의 병일 때는 국소 스테로이드 연고(트리암솔론 등)와 emollient를 사용한다. 또는 타르, 국소용 레티노이드, 칼시트리올 등 비타민 D 유사체를 사용한다. 얼굴에는 주로 Tacrolimus나 Primer-crolimus를 사용한다. 또는 잘 낫지 않는 케이스에는 자외선(UVB)을 이용하는 광(光)치료(phototherapy)를 동반한다. 보통 피부과 의사들은 강력한 국소스테로이드(베타메타손)와 Calcitriol, 자외선 치료를 함께 이용하는 컴비네이션 치료를 한다. 심한 증증에는 광치료와 전신요법을 사용한다. 전신요법이란 methotrexate, cyclosporin, Etanercept, Alefacept, Infliximab 등의 면역요법(immune modifying agents.)을 사용하는데 비용도 비싸고 부작용도 상당히 따른다. 이런 약을사용하는 대부분의 경우 수주 안에 일단 낫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언제든 재발하는 수가 많다. ***

낮추고 상대를 섬기는 언행으로 존경 받는 이들도 적지 않다. 심리학 용어 중 ‘공격자와의 동일시(Identification with aggressor)’라는 말이 있다. 자신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사람을 의식적으로 싫어하지만 무의식적으로 동일시함으로써 타인에게 똑같은 행동을 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피해, 무기력을 극복하려는 것을 가리킨다. 시집살이를 겪었던 이가 더 혹독한 시집살이를 시킨다거나 폭력 부모 아래서 성장한 사람이 폭력 가장이 되는 것, 뒷사람으로부터 갖은 수모를 당했던 이가 아랫사람에게 더 심한 모멸감을 주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갑질은 미성숙과 비뚤어진 가치관에서 비롯된다.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와 예의를 갖지 못한 데서 시작된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기내 직원들을 조금만 배려했더라도 작금의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백인 경찰이 흑인 청소년에 대해 작은 인간적 관심과 애정을 가졌더라면 어이 없는 희생과 갈등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갑질 못지 않게 을질 역시 경계할 일이다. 남 눈의 티끌은 보지만 제 눈의 들보를 못 보는 것처럼 갑에게 받은 설움을 병에게 을질로 전가하고 확대 재생산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을의 처지에 분노하고 공감하면서도 병과 정에게 그 못지 않은 고통과 아픔을 안기고 외면하는 것은 또 다른 갑질이다. ***

독후감

“작열하는 태양 아래에서 카뮈의 ‘이방인’을 읽다”



정흥택(상대 61)PA
미주 동창회보 논설위원

카뮈의 ‘이방인’은 한 여름, 그것도 땀이 뻘뻘나는 해 아래서 읽어야 제 맛이 난다.
▶**학창시절 읽은 소설** = 50년 전 처음 이 책을 읽을 때 나는 대학생이었다. 그 시절, 실존주의 철학이 열병처럼 대학가를 휩쓸었고 소설 ‘에뜨랑제’ 즉 ‘이방인’은 그 중심에 서 있었다. 프랑스 문화원이 주최하는 동아리에서, 혹은 친구들과의 대포집에서 우리는 많이 듣고 또 열심히 떠들었다. 실존주의가 정말 뭔지도 잘 모르면서도 우리는 짜트트르, 카뮈 등을 막걸리 안주삼아 씹으며 열을 올렸다. 그게 아마도 설익은 나이에 성숙되어 가는 개똥철학이었겠지.

그 후 50년이 흘러 나는 은퇴한 70대의 노인이 되었다. 그 동안에도 소설 ‘이방인’은 잊을만 하면 신문이나 잡지의 문화면을 장식해 내 기억의 쓰레기 통을 뒤집어 되살리곤 하는 것이었다. 어떤 사람은 이 소설을 ‘2차 대전 후 최대의 걸작’이라고 했고, 다른 비평가는 이 짧은 소설을 20세기 ‘건전지’의 발명과 맞먹는다고 함축했다.
▶**소설의 무대** = 1940년대 전후 프랑스령 알지예의 한 도시가 소설의 무대다. 피르소는 앞길에 창창한 30전후의 대학 졸업생인데도 하루하루를 배짱이처럼 살아간다. 소설을 읽을 당시 나는 고민생이었다. 별것도 아닌 문제들을 가지고... 예를 들면 결혼과 연애는 별개인가, 어떤 회사에 입사해야 남보다 앞서 출세할 수 있는가, 등등이었다.

이런 나를 비웃기라도 하듯 피르소는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친구들과 술먹고 밤이 되면 집에 와 잔다. 말단 사원 박봉으로 슬럼가 아파트에 살면서도 해처럼 밝게 살아간다. 하루는 직장 사장이 불러 과리지점으로의 승진 제안을 받았는데도 이를 거절한다. 인생의 기나긴 경주를 열심히 준비하는 20대의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인물이 우상이 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세월이 50년 흘러갔다. 이제 나는 산전수전 다 겪고 은퇴하여 무명인이 되었는데 피르소는 아직도 세계 지성인들의 우상으로 우뚝 서있는 것이 아닌가. 죽기 전에 이 수수께끼를 한번 풀어야겠다 굳은 마음을 먹고 근래에 발간된 최신 번역판 ‘이방인’을 주문하여 펴 들었다.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
소설은 이렇게 시작된다. “이런 후레아들 같으니라구. 엄마가 돌아가셨다는데 ‘사돈 남 말하듯’ 하네.”
나는 혀를 끝끝 찼다. (50년 전에도 똑 같았다.)
▶**무감정한 주인공** = 모친 사망 전보를 받은 피르소는 80km 떨어져 있는 양로원으로 오후 2시 버스를 타고 가서 장례를 지내고 바로 다음 날 돌아 올 계획을 세운다. 양로원에 도착해서 수위의 인도를 받아 원장을 만나고 간호원, 어머니 친구들, 그리고 어머니 생전에 약혼자라 불리던 노인도 만난다.
이들 모두가 하나같이 아들인 피르소를 대면하여 슬픈 표정을 짓거나 눈물 흘려 애도를 표시한다. 그러나 정작 피르소는 멍멍한 표정으로 눈물도 짓지 않는다. 그저 덤덤히 그들이 짜놓은 장례식 순서에 맞추어 수동적으로 행동할 뿐이다. 이미 못 박은 관을 열어 마지막으로 어머니 얼굴을 보여주겠다는 원장의 호의조차 “괜찮아요”한 마디로 사

“거짓말 한다는 것은 단순히 있지도 않은 것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특히 실제로 있는 것 이상을 말하는 것, 자신이 느끼는 그 이상을 말하는 것을 뜻한다”

양했다.
장례식을 치르고 다음 날 돌아온 그는 애인과 바닷가에 놀러가서 같이 수영하고 집에 가서 섹스하고 잠이 든다. 옛 생활로 돌아간 것이다.
며칠 후 해가 짹짹 쪼이는 날 애인을 데리고 친구들과 함께 바닷가에 놀러간다. 모래 사장에서 현지(알지예) 깡패들과 싸움이 벌어져 충동적으로 권총을 꺼내 쏘아 한 사람을 즉사시킨다.
이것이 전편의 이야기이고 후편은 재판과 감옥에서 사형집행 전 날까지의 기록이다. 전 후편 모두 피르소 개인의 일기로 쓰여졌다.
▶**주인공의 본색** = 소설 줄거리는 50년 전에 읽은 것과 변함이 없다. 나는 그 다음으로 해설서를 읽었다. (그 때에는 문고판으로 작품해설이 없었다고 기억된다.)

꼼꼼하게 저자의 이야기와 여러 학자들의 해설을 읽어 나가니 이제서야 마음 속에서 뭔가 짙은 안개가 조금씩 벗겨지고 피르소가 서서히 제 모양을 갖추기 시작한다. 더 이상 ‘병신같은 피르소’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영웅 피르소’가 될 수는 없었다. 그도 자기 일기에서 한 번도 자신을 멋있게 생각하거나 그런 식으로 묘사한 적이 없다. 그저 답답히 보고 느낀 일들을 드라이(Dry)하게 짧은 문장으로 써 나갈 뿐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태양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걸 무심히 지나치

면 안된다. 마치 이 소설의 주인공 공은 피르소가 아니고 태양이라고 말해도 과히 틀리지는 않으리라. 태양도 바로 지중해의 태양 말이다. 지중해의 햇볕은 참으로 유별나다고 나는 다른 책에서도 여러 번 읽은 적이 있다. 지구상 그 어느 곳에서도 느낄 수 없는 특별한 무엇이 있다는 것이다.
그 빛 속에서 그리스 문화가 발흥했고 트로이의 목마, 아틀란티스의 전설이 배태되었다. 근세에 들어 오면 거기 고호가 있다. 고회는 그 빛에 미쳐 그리다 죽었고 카잔차키스는 소설 ‘그리스인 조르바’에서 지중해가 낳은 세계 최고의 낙천적 인물을 묘사했다.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자. 이 ‘밝은 태양’이 있으려면 그 반대 편에 어두운 그림자가 나와야만 균형이 잡혀지고 안정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는 태양빛이 워낙 강해서 그늘 즉 어두운 음지는 안 보이는 듯 하지만 정작 어두움은 소설 곳곳에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다. 이 컴컴한 음지를 찾는 것도 이 책을 읽는 재미 중 하나다. 음지는 슬픔, 추함, 검정색 또는 비정상적으로 그려진다.
예를 들면 (1) 피르소가 장례 행렬의 뒤를 따라 묘지로 향해 갈 때 머리 위의 햇볕이 견딜 수 없게 쏟아져서 길의 ‘까만 아스팔트’가 녹아서 갈라 터진다. ‘콜타르의 번쩍거리는 살’,

‘검은 반죽으로 이겨서 만든 것 같은 마부의 모자’, ‘사람들이 걸친 상복의 흐릿한 검은 빛깔’, ‘니스 칠한 영구차의 검은 빛깔’, 이 모든 사물들은 다 검은 계통의 색이고 이 검정색 때문에 피르소의 눈에 비친 장례식은 마치 흑백영화를 보는 듯한 환각을 일으킨다.
(2) 어머니의 시신을 지키며 밤샘을 하는 영안실의 노인들 모습은 악몽 속의 장면을 연상시킨다.
‘아무 말 없이 들어온 노인들은 악몽이나 환각 속의 인물들인 양...’, ‘그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들과 믿기 어려울 정도...’, ‘그 노인들의 눈은 보이지도 않고 다만 온통 주름살 투성인 흰 얼굴 한 가운데 광채 없는 빛만 보였다’, ‘그들은 모두 문지기를 둘러싸고 나와 마주 앉아서 고개를 꾸벅거리고만 있다’
또 엄마의 애인이었다는 페레스 영감 묘사는 정말 무섭다. ‘검은 점들이 박힌 코 밑에서 입술이 떨리고 상당히 가느다란 흰 머리털 밑으로 축 처지고 콧바위가 야릇하게 말린 흥한 귀’는 대낮에 보는 귀신의 모습 그대로다.
이 모든 부정적인 인상들은 부지불식간에 느껴지는 어머니에 대한 죄의식의 발로이며 강렬한 태양이 빛는 음지의 광경이다.
(3)전편이 작열하는 태양 아래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었다면 후편은 태양을 가리는 인간의 제도라는 음습한 그들의 이야기다.

장례식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피르소는 다시 자기 삶의 색깔로 돌아온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얼마 동안 근신해야 한다’는 그런 세상의 관습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다시 태양 아래의 삶을 낙천적으로 살아간다.
그러다가 해변가에서 본의아니게 살인을 저지른 그는 즉시 체포되어 구금되었고 곧 이어 재판을 위한 변호사, 검사, 예비 판사의 심문이 시작된다.
▶**허구적인 진실은 더이상 진실이 아니다** = 예비 판사는 신실한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하든지 피르소를 살려내 크리스천으로 만들려고 노력한다. 그는 법을 집행하는 사법관으로서 이 사건을 피고에 유리하게 모든 정황을 교묘히 짜 맞추어 서류를 만들고 피르소에게 서명하라고 한다. 진실과 진실 사이의 빈 공간에 허구를 살짝 넣어 사건을 밀고 가면 피고에 동정이 가게 되고 그러면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그는 단연 “노(No)”로 대답한다. 허구가 섞인 진실은 더 이상 진실일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거짓말을 조금 섞어 살인범을 살려내어 기독교 신자를 만들고 싶어하는 판사, 그리고 한 치의 거짓말도 용납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한 불신자 피르소, 그 사이에서 독자인 나는 정신적으로 방황했다. 판사는 화가 대단히 났다.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었다. 어머니 장례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소환되어 증인석에 선다. 이 구동성으로 그가 어머니 장례식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피도 눈물도 없는 불효자라고 말한다.
피르소는 이 사건과 어머니 장례가 왜 연관이 되는지 어리둥절하지만 물기가 귀찮아서 그만둔다. 재판 진행의 모든 것이 이상하고 우습기까지 하다. 빨간 법복, 까만 법복을 입고 앉았다 일어났다 엄숙한 얼굴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며 피르소는 혹시 자기가 어느 희극이나 인형극 구경을 온 것이 아닌가 착각하기도 한다.
“그 날 왜 살인을 했느냐”는 질문에 “해 때문에”라고 한 마디 대답하고 그만이다. 자기 생명이 걸려 있는 결정적 질문인데도 말이다.
피르소, 그는 순하게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한 가지 원칙만은 칼같이 지키는 사람이다. 저자 카뮈는 ‘이방인’의 미국 번역판 서문에 다음과 같이 썼다.
“피르소는 거짓말하는 것을 거부한다. 거짓말 한다는 것은 단순히 있지도 않은 것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특히 실제로 있는 것 이상을 말하는 것, 자신이 느끼는 그 이상을 말하는 것을 뜻한다. 반면 우리는 삶을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 자그마한 거짓말도 하고 말에 과장하는 버릇을 가지고 산다. 이것은 우리들이 누구나 매일같이 하는 일이

다. 그런데 피르소는 겉보기와는 달리 삶을 그렇게 쉽게 살고자 하지 않는다.”
▶**사회규범에 맞지 않는 이단아** = 그런 의미에서 피르소라는 인간은 전통적인 이 사회의 규범에 전혀 들어맞지 않는 이단아(이방인)인 것이다.
이렇게 조금씩 서로서로 속고 속이며 편리하게 사는 우리들 사회에 피르소 같은 고집불통의 일직선 인간이 섞여 들어오면 구성원들은 불편해 하고 못 견디어 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몰아내고자 힘을 합친다. 장례식 참석자들도,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취재하는 기자들도 결국은 다 한 통속이 되어 그를 죽음으로 밀어 넣는다.
외톨박이 피르소, 그래도 그는 후회하거나 물려서지 않는다. 사형 전 날 천주교 사제가 찾아와서 간곡하게 권유한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시오.”
그 때 그는 평소 그 답지 않게 고향을 치며 대든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찾아오게 마련이야. 30년 후에 찾아올 죽음이 30년 일찍 찾아왔다고 그게 뭐 대수냐? 어짜피 죽을 인생인데.”
피르소에게 비치는 종교인이란 그 피치못할 죽음이라는 새까만 어두움을 미끼로 천국을 선전하고 해(태양)를 등지고 그늘에 살라고 대중을 속이는 사람들이다. 그 알량한 ‘신앙과 구원’이라는 미끼로 자기귀한 이 순간을 채가지 말라고 소리를 지른다. 피르소는 살아가는 이 순간만이 내가 향유할 수 있는 전 재산인 것이다.
사제가 눈물을 흘리며 가버리자 그는 다시 마음의 평정을 되찾는다. 별이 보이고 멀리 들관에서 들려오는 소리, 밤의 달콤한 냄새, 흙냄새, 그리고 소금냄새가 그의 관자놀이를 시원하게 해주었다.
저 멀리서 뱃고동 소리가 들렸다. 그에게는 새 세계로 가는 출발의 신호로 들렸다. 그는 중얼거린다.
“마치 저 순간을, 내가 정당하다는 것이 증명될 저 신세벽을 여태껏 기다리며 살아온 것만 같다.”
‘그렇다. 인간은 반드시 죽을 운명에 처해져 있는 것이다. 사형수는 죽음과 정대면함으로써 비로소 삶의 가치를 깨닫는다. 죽음이란 삶의 가치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어두운 배경이다. 삶과 죽음은 표리관계를 맺고 있다. 필연적인 죽음의 운명 때문에 삶은 의미가 없고 자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정된 삶을 더욱 치열하게 살아야 한다. 이 소설의 참다운 주제는 삶의 찬가, 행복의 찬가다.’ (김화영 역자의 결론)
책을 덮으며 나는 혼자 중얼거렸다.
“아, 그래서 베르테르는 죽었고 괴테는 살았으며 피르소는 죽었고 카뮈는 살아났나보다.”
피르소가 내게 묻고 있는 듯 하다. “너, 앞으로도 적당히 살짝 살짝 거짓말하고 말의 과장을 하며 여기 저기 눈치보고 살아갈까야? 그레가지고서야 죽을 때 지금의 나처럼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니?”
나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My Journey to America <3>최용완 논설위원

아메리칸 드림 50년<18>

최용완(공대 57) CA
미주 동창회보 논설위원
시인·수필가

한국 참전용사 기념공원을 비롯해 데이튼 VA 병원건물, 다운타운의 라이볼 빌딩, 양키추레이스 골프 클럽 하우스, 데이튼 들레곤 야구경기장, 워렌 카운티 빌딩, 등의 수많은 건물들을 내 손으로 설계하고 데이튼 시민들에게 남겨주었다.

▶**시카고 한인 문화회관 무료 기본설계** = 시카고 한인회에 필요한 한인 문화회관을 기본 설계하여 무료봉사해주고 2004년에 남가주 뉴포트비치에 이사왔다.

오하이오 주에는 아직 찬 바람에 눈발이 날리던 2월 어느 날, 이곳 남가주에는 매 한 마리가 뒷마당에서 작은 나무가지를 입에 물고 어디론가 사라지는 걸 보았다.

뒷뜰에서는 토끼 가족이 우리를 맞이했고 그들은 매일 밤에 찾아와 집주인인 양 우리를 보고도 아랑곳없이 풀을 뜯어 먹고 밭의 우리 먹음 채소도 훔쳐 먹었다. 그러다 계곡에 매 한 쌍이 날기 시작하고부터 토끼들은 다시 보이지 않았다.

3월 어느 날 매 한 마리가 밭에 들귀를 채어 쥐고 우리 집 굴뚝 위에 앉았는데 까마귀 여섯 마리가 요란하게 짓고 매를 괴롭히려 떠돌고 있었다. 그중 용감한 놈은 매 머리 위로 가까이 날며 속히 떠나라는 듯 재촉하였지만 매는 꼼짝 않고 앉아 있다가 유유했던 모습으로 넓은 날개를 펴고 날아갔다.

나는 아우가 선물로 가져다준 망원경을 들고 나와 탁자 위에 세우고 계곡 건너 소나무 주위를 살살이 들춰봤다. 그리고 어미매가 새끼 세 마리에게 먹이를 나누어 먹이는 것을 보고 아이들처럼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소리 질러 아내를 불러 보게 하였다. 어미 새는 갈색 깃에 검은 반점의 무서운 모습이었는데 새끼는 하얀 솜털에 병아리들처럼 작고 입을 쩌지도록 벌려서 어미 새에게서 받아먹는 얼굴들은 너무도 신기하고 귀여웠다.

▶**매 가족 관찰 삼매경** = 그 때부터 매일 뒷뜰에 나가 망원경보는 재미가 일과에 더해졌고 집에 찾아오는 친구들에게도 보여주며 이제는 내 집 식구들처럼 느껴졌다. 어미 새가 보이지 않는 저녁에는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되

고 새끼들이 굶주릴까 염려도 했다.

비가 내리고 바람 부는 밤이면 네 가족이 서로 엉켜 어미 새 발톱이 나뭇가지를 움켜쥐고 소나무에 밀착한 모습을 상상하며 잠이 들기도 했다. 남가주의 늦은 봄 4월에는 아침에 안개가 끼어 자욱하고 오후에야 해가 나서 계곡 건너편을 볼 수 있기에 초조하게 기다려지는 때도 있었다.

코발트색 남가주 하늘 높이 어미 새는 수놈 새와 동무하여 매들이 가진 독특한 소리로 대화하며 고공 무용하는 때면 나는 하염없는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새들과 함께 즐기며 내 마음도 그들 따라 한없이 높이 날다가 문득 집에 들어가 아내를 불러내 같이 춤추는 한 쌍의 새들을 보기도 하고 동지에서 기다리는 새끼 새들을 살펴보기도 했다.

수놈 새는 어미 새를 집에 데려다 주고 어디론가 사라지고 나면 어미 새는 새끼들을 보살핀 다음 줄곧 먹이 잡으러 떠난다. 먹이를 물어와 새끼들에게 먹이는 시간이면 나는 그들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며 어미의 사랑만이 큰 우주의 지구에 생명체들이 존재하는 생성의 능력을 본다.

“2011년 ‘코리언 에어 비빔밥’을 비롯한 10편의 시가 ‘자유문학’ 봄호, ‘미국의 개 이야기’가 ‘에세이 포레’에 각각 신인상 수상으로 시인·수필가로 등단했다”

창조주는 어머니에게 능력을 주고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자식들을 낳고 기르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4월 말쯤 매 3남매는 벌써 많이 자랐다. 하얀 솜털 안에 검은 반점들이 많이 나타났고 날개에 깃이 자라 퍼덕이는 날갯짓을 연습하였다. 어미가 먹이를 나누어 줄 때 차례를 기다리는 모습은 독수리 새끼들과 전혀 다르다. 독수리 새끼들은 생존경쟁을 위해서부터 시작해 서로 싸워서 어미에게서 음식을 얻어먹기에 살벌한 가족인데 비교하면 차례를 기다리는 매 3남매의 우정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5월 들어 새끼들의 몸이 커져서 집이 비좁아 그 중 하나라도 밀려 떨어지면 어쩌나 걱정스러웠다. 그러나 어미 새가 새끼 세 마리를 위해 집을 준비했을 때 사람의 지혜를 초월하는 자연의 섭리였음이 분명하다. 그들이 분

비물을 배출할 때 모습은 아래치마를 올리고 궁둥이를 집 밖으로 돌려 여지없이 쏘는 물총 같은 줄기는 아래 소나무가지를 하얗게 칠해놓았다. 나는 그 모습을 내 몸으로 시늉하며 아내와 같이 웃기도 하였다. 소나무 아래에서 풀을 깎는 소음이 있을 때는 어미는 소리 나는 곳을 주시하고 긴장하여 집을 지키는데 새끼들은 철없이 바쁘기만 하다.

▶**동지를 떠나는 새끼들** = 5월 중순에 벌써 새끼들은 어미만큼 자랐고 하얀 솜털과 검은 반점들은 모두 갈색으로 변해 무서운 매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면서 넓은 날개를 펴고 동지 안에서 나는 연습을 시작하였다.

발이 약간 공중으로 뜨는 때도 있었다. 역시 차례를 지켜 순서있게 연습하기에 날개가 부딪치거나 몸이 밀려 동지 밖으로 나가는 일이 없었다.

5월 하순 우리가 며칠 집을 비웠다 돌아온 날 첫째와 어미는 이미 어디론가 기다리던 여정에 따라 떠났음이 분명했고 둘째와 셋째만 남아 있었다. 동지에 먹이는 남아있기에 둘이 사이좋게 나누어 먹으면서 이번에는 둘째가 떠나는 날임을 감지했다.

둘째가 처음에는 동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소나무가지 위로 날개를 치고 웅겼다. 하지만 멀리 땅에 떨어질까 내려다보고 또 보고 하다가 두려움을 감추지 못하고 날갯짓만 하다가 다시 동지로 돌아왔다.

한참 만에 둘째는 다시 같은 나뭇가지에 조금 높게 날아올랐다. 이번에는 조금 높은 가지 끝을 향하여 걷는 듯 나는 듯 조심스럽게 옮겨갔다. 셋째가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따라 나와 열 가지에 올라와 둘째만을 쳐다보고 떠나지 말라는 듯 애처로운 표정으로 지켜본다. 둘째는 가지 끝에 이르렀고 이제는 정녕 떠날 준비를 하는 듯 위를 보고 날개를 크게 펴고 마음을 정한 듯 하였다. 드디어는 둘째가 이 세상에 태어난 후 처음으로 해야만 하는 일을 해냈다. 높은 하늘로 훨훨 날아서 떠나간다.

아! 나는 6남매의 둘째로 태어나 둘째가 떠나는 모습에 참으로 감개무량한 내 인생의 즐거움을 다시 보았다. 하지만 한편 혼자 남은 셋째가 걱정됐다. 둘째가 떠난 뒤 셋째는 홀로 동지에 돌아왔다. 다음 날 새벽 뜰에 나와 망원경 앞에 앉아 셋째를 찾는 내 눈에는 빈집만 남아 있었다. 소나무 주위를 아무리 둘러보아도 조용한 새벽의 적막이 내 마음을 비워 놓았고 한 해가 다 지난 듯한 공허감은 마치 3년 전 막내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집을 떠나던 날과 같은 느낌이였다.

내 눈에 눈물이 고였다. 새 출발의 기쁨인지 헤어짐의 슬픔인지 혹은 시작인지 끝인지 우리 인생에 하나의 변화를 겪는 순간

← ‘사랑방 글샘터’ 모임 회원들의 출판 기념회 모습이다. 앞줄 왼쪽에서 두번째가 필자.

축시

‘남가주 동창회 창립 40주년을 축하하며’

최용완(공대 57)

씩씩하게 자라난 오늬들
미주 동문들이여
인공위성 날아가는 시간과
싸우며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왔소

태평양 건너편에 딴 세상
기회의 땅을 찾아와 발을
내려딛고
이곳에 뿌리내리는
명석한 머리

해방 후에 한국전쟁
남북분단의 고국은
80·90년대의 세계경제
기적 이루고

선진국 열강에 어깨 겨누는

뛰어난 인재들
백인의 눈총 흑인의 폭동
몸부림치는 속에
흔들리지 않는 바른 길
여기까지 왔소

아시아의 파도가 유럽에 전해져
현대역사 시작한 세계는
유럽의 물결이
이 땅 신대륙에 넘쳐
새 시대의 절정을 이루오

겨레의 핏줄 끓어오르는
우리가 선 이곳에서
내일을 창조하는 동문들이여
시대의 물결 따라 융성하는
아시아의 기세
온 누리를 밝혀가는
관악의 햇불
한강 줄기 꿈틀거려
세계로 뻗으소서.***

이었다.
은퇴하기 3년 전부터 할 일을 생각해왔기에 시간은 여전히 빠르게 지나갔다. 집에서 프리웨이트고 1시간 넘어 운전하는 먼 LA에 이웃집 들르듯 자주 찾아가 문인들의 모임에 참석하였다. 건축 작품을 창작하듯 문학 작품을 창작하는 노력을 시작하였다.

▶**문예활동 시작** = 고등학교 때

생을 만났다. 그 분이 나의 시를 보고 시집출판을 권고하여 2013년 6월 15일에 시집을 출판하였다. 젊었을 때부터 함께 운동하는 친구들이 내가 호랑이 띠 해(1938) 가을(9월)에 태어났다고 추호(秋虎)라는 별명을 지어주었다. 그리고 내가 자라난 무등산을 회상하여 시집 이름을 ‘무등산 가을 호랑이’라고 정했다.

그러는 동안 역사공부에도 취미가 있어 있어 ‘새로운 세계를 보는 눈’으로 역사수필을 써서 전자책 ‘yongwanchoi.com’를 만들었다. 한국 문단의 저명한 평론가이며 ‘에세이 포레’ 발행인 겸 편집인 한상열 선생은 나의 수필 ‘미국의 개 이야기’를 역시 2011년 봄호에 실어 신인상 당선 작가로 한국 문단에 수필가로도 등단하였다.

아내는 2009년부터 남가주에 한미 가정상담소 운영하는 일에 자원봉사하기 시작하였다. 그때부터 남가주에 글 쓰는 한인들이 ‘사랑방 글샘터’ 모임을 갖는 책임을 나에게 맡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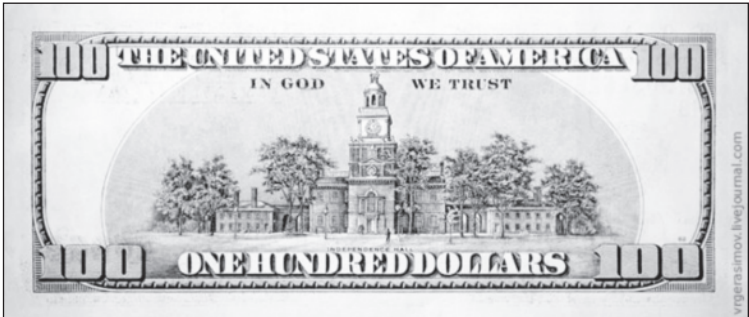
늦깎이 문학 열정을 불태우기 시작했다. 매주 수요일 모여 시, 수필, 소설, 생활수기를 쓰기 위한 문학공부를 해왔다. 저명한 강사들을 초빙해 지도를 받고 바쁜 이민생활로 젊었을 때 이루지 못한 문학에 대한 꿈을 펼친다.

회원들 중에는 이혼을 위해 상담소를 찾았다가 회원이 된 후 글쓰기에 몰두해 행복한 가정을 다시 찾는 경우도 있다. 또 93세 된 한 노인이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살다가 회원이 된 후 삶의 희망을 다시 찾고 인생 경험담을 기록해 책을 출판하기도 했다.

한 회원은 남편을 잃은 후 무덤 앞에서 시를 쓰기 시작해 시집을 출판하기도 했다. 어떤 회원은 글을 쓰기 시작하지 않았다면 원수처럼 미웠던 남편과 헤어졌을 것이라고 회고하며 지금은 자식들과 함께 행복하다고 고백한다.

이민생활을 통해서 겪는 한과 슬픔을 글로 승화시키며 자신을 회복하고 즐거움을 다시 찾는 모임이 되었다. 올해 창립 5주년을 맞아 20여 명의 시인, 수필가, 소설가, 회원들이 한국 문단에 등단하였다.***





↑ 프랭클린의 초상화가 그려진 100달러짜리 지폐의 앞면과 뒷면.

<달러 속 주인공의 이야기>

100달러 지폐 벤자민 프랭클린

이영목(공대 59)DC
미주 동창회 상임고문

1706년 출생, 1790년 사망. 그의 일생을 써 내려 가기 전에 그의 연대를 참고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행적과 함께 나열해 보자. 조지 워싱턴은 1732년생이니 벤자민이 26 살이나 위다. 또 워싱턴 대통령은 임기가 1789년부터 1797년까지이니 워싱턴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그 다음 해에 사망했다. 따라서 워싱턴은 벤자민 프랭클린이 사망한 후 9 년을 더 살았다.

▶지폐 초상화 중 대통령이 아닌 사람은 2명 = 달러 지폐 초상화 중 대통령이 아닌 사람은 10 달러의 알렉산더 해밀턴과 100달러의 초상화 벤자민 프랭클린 두 명이다. 그리고 해밀턴은 그래도 어떤 의미에서 부통령보다도 더 막중한 재무장관을 지냈지만 프랭클린은 그러한 정부 직책도 지낸 적이 없으니 어디에 기준을 둔 것일까?

여기까지 생각하다가 일본의 1 만엔 권의 초상화 후쿠자와 유키치가 생각난다. 물론 일본 화폐는 한 때 신사, 성덕태자상 같은 것을 도안으로 쓴 적이 있기는 하나 이제는 생물학자, 소설가 같은 인물들의 초상을 쓰고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 후쿠자와가 단연 으뜸이다. 그는 막부를 끝내고 유신을 일으킨 정신적 지주이고 계몽 학자요, 게이오 대학 설립자다. 아마도 일본이 이 후쿠자와를 선정했을 때 벤자민 프랭클린을 상상했지 않았을까 혼자 생각해 본다.

아니 후쿠자와보다는 어쩌면 우리나라의 도산 안창호 선생이나 서재필 박사 같은 분이 벤자민 프랭클린을 닮았다고 해야 할 것 같다. 확실히 그는 사상가요, 계몽가로서 미국 건국 초기에 정신적 기틀을 잡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니 구한(舊韓) 말에 한국에서 그리고 해외 미국에서 동포들을 계몽시키려고, 또 독립을 위하여 애쓰신 것을 생각한다면 도산 선생이나 서재필 박사가 그의 정신을 이어 받았다 할 수

↑1775년 펜실베이니아 대표로 대륙 회의에 참석했던 당시의 그림.

앞에 그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프랑스 대사로 있으면서 프랑스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프랑스에 영향을 주었고, 미국 독립정신의 중심에 섰고, 귀족 라파에트 같은 사람이 미국 독립 전쟁에 미국 땅으로 달려와 참전한 것도 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정신적 영향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또한 여러 방면으로 평가 받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정치가, 외교관, 과학자, 발명가,

“미 독립정신의 중심에 섰고, 프랑스에 영향을 주었고, 귀족 라파에트가 미국에 달려와 독립전쟁에 참전한 것도 프랭클린의 정신적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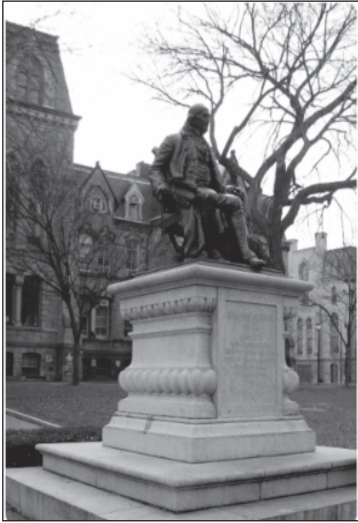
언론인, 사회 활동가, 사업가 등 일일이 다 나열할 수도 없을 지경이다.

▶보스턴에서 출생 = 그러나 그의 성장 시절을 보면 그렇게 된 것이 우연히 아니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그는 보스턴에서 태어났는데 집안이 비누공장, 양초를 만드는 공장이라 어린 나이 과학과 사업의 분위기에서 자랐을 것이다. 그리고 곧 이어 형이 운영하는 인쇄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메스컴이, 또 언론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Silence Dogwood 라는 필명으로 신문에 기고를 했더니, 또 그것도 그가 17세가 되지 않았을 때라고 하니 더욱 놀랍다.

인지 아니면 아침에 떠오르는 해인지 궁금했는데 오늘에야 이 해가 떠오르는 해임을 알았다” 고 한 이야기는 꽤나 유명한 일화다.

그러나 단순히 독립선언문 작성자 중 하나로만 기억해서는 절대로, 그리고 절대로 안 된다. 세계 정치와 정신세계에서 프랑스 혁명은 단연 그 영향이 지대하다. 러시아의 문학과 혁명 정도가 아니라 독일의 음악, 이탈리아의 미술에 이르기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파급을 가져왔다. 그러나 그 프랑스 혁명의 결정은 프랑스가 아닌 미국에서 현재의 민주주의 정부 형태의 탄생으로 그 첫 열매가 생겼다. 그 가

↓ U Penn에 있는 프랭클린의 동상



↓ Independence Hall.



영국에 가서 식민지 저주과세권을 획득 하였고, 1764년 다시 영국으로 가서 인지조세의 철폐를 성공시켰다. 그리고 1775년 대륙 회의에 펜실베이니아의 대표가 되었고, 1776 독립선언서 기초위원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등 정치적으로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프랭클린의 진짜 모습은 아래에 열거 하는데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1731년 26세에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도서관을 설립하여 도서관 발달의 기초가 되었다.

1737년 펜실베이니아 시 체신장관 대리로 체신업무에 발을 들여 전 식민 체신장관 대리로 체신우편 업무의 기틀을 쌓았다. 또 소방

차를 처음 만들고 소방업무를 체계화한 사람이다.

1740년 지금까지 회자되는 소위 벤자민 난로를 발명하였고, 1752년 지금까지도 전설이 된 비오는 날 연을 날리며 시험한 결과로 피뢰침을 발명했다. 그리고 북 초점 망원 렌즈의 발명가이기도 하다.

▶위대한 발명가이기도 = 그러나 어느 위대한 인물에게도 기행, 아름답지 못한 이야기 등이 있다. 그는 1753년 식민지 출신으로 영광스럽게도 영국의 로열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선정되었고 그리고 독립전쟁 때 프랑스로 가서 미국 독립의 지원을 받아내는 등의 외교는 물론 지금 백악관 바로 옆 라파에트의 공원의 주인공인 프랑스의 귀족 라파에트가 미국으로 건너가 독립전쟁의 혁혁한 공을 이루도록 이끈 장본인이다.

그러나 그는 인생 13개의 덕목을 쓰면서도 술만 마시면 개차반이 되곤 했다. 그의 첫 아들은 사생아이고 독립 전쟁 때 그 아들이 영국 편에 섰다 하여 서로 일생을 외면하고 사는 등 기행도 편 사람이기도 하다. 물론 프랑스에 외교관으로 파견되었을 때 귀족 부인들을 꽤나 홀렸다는 후문도 있고 말이다.

끝으로 벤자민 프랭클린의 발자취는 워싱턴에는 별로 없다. 그리고 화폐의 뒷면도 또한 필라델피아에 있는 독립관(Independence Hall)의 전경이다. 또 동상도 펜실베이니아 대학 한 가운데에 있다. 그는 진정 필라델피아 사람으로 발자취까지도 필라델피아에 남겼다는 말이다.***

↓ 프랭클린이 개발한 피뢰침으로 당시 낙뢰에 대한 실험을 하는 장면



여행기

보고 싶은 대동강<2>



김원호(약대 63) CA

양각도 호텔 뱅캣 홀에서의 저녁만찬에서는 온갖 산해진미로 보이는 음식들이 가득히 준비되었고 연설과 여흥과 엘코홀릭 비버리지가 있었다.

필자는 송편과 약간의 떡을 담아 지정된 테이블로 와서 나보다 나이가 많은 농학박사 여성 K 교수와 system engineering을 가르친다는 테네시에서 온 젊은 학자, 그리고 덴버에서 오신 한인 의사와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시 한 번 필자의 평양 방문은 오로지 ‘보고 싶은 대동강’ 일 뿐임을 상기하였다.

▶**고속도로의 시속이 40km** = 어차피 패키지로 짜여진 여정이어서 다음 날 아침 9시 조선 국제여행사의 대절 버스를 타고 판문점 관광길에 올랐다. 다시 평양 시내를 돌아 대동교를 건너 남쪽 고속도로로 진입하였다.

과기대를 지나 양옆으로 모내기에 바쁜 일손들을 창문 밖으로 내다보며 사리원을 지나 두시간 후 휴게소에 잠시 정차했다. 우리나라 정부 고속도로가 완공된 후 여기서도 질세라 90년대 초에 닦았다고 하는데 노면이 형편없이 뺨질을 요구하는 상태였다.

개성까지 145km를 4시간에 달렸으니 내 계산으로는 시속 40km에 불과했다. 경이로운 것은 출발점부터 개성까지의 길은 전혀 커브로 휘어짐이 없이 자를 대고 온 것 같은 직선도로였다. 산이 막히면 굴을 뚫었고 강은 다리를 놓았다. 낙랑평야를 지나는데 적어도 열개 이상의 굴을 지난 것 같다. 산 언덕에는 ‘산림녹화’ ‘산불방지’의 간판이 보이는 것은 60년대 남한의 모습과 같았고, 지나다니는 차는 거의 없었는데 BMW나 LEXUS 새 차 한 두대가 지나치는 것을 본 것 같다. 주로 중국에서 사오는데 중고차는 반입이 안된다고 들었고 우리가 탄 버스도 중국산이다.

개성을 지나며 안내원은 영어로 ‘깍쟁이’를 설명하느라 예문을 들어가며 진땀을 흘렸다.

▶**북쪽에서 가본 판문점** = 오른 쪽으로 개성공단을 멀리 바라보면서 판문점 경비소 입구에 다다랐을 때는 두터운 탱크 방어벽을 접해 보며 미세한 전율이 느껴졌다. 그러나 버스에서 내려 방문객 안내소부터의 판문점 북한 안내병의 친절하고 우호적인 대접에 언짢은 선입견이 사라졌다.

그래도 소위 DMZ라는 비무장 지대를 지나 정전회담장으로 가는 숲이 울창하고 좁은 길을 지날 때는 섬뜩했다. 안내병은 계속 웃는 얼굴로 1953년 7월의 회담

에피소드 등을 설명했다.

통일각 계단에 서서 남쪽에 보이는 국기 게양대의 태극기를 보며 지난 주 도라산에서 북쪽 인공기를 볼 때와 생각이 겹쳐져 야릇하게 느껴졌다. 사람이 그 선을 넘지 못하여 북경을 지나 평양과 개성을 거쳐야만 이 곳에 올 수 있단 말인가.

지남산 려관에서 점심을 마치고 성균관 관람에 이어 박연폭포로 향하면서 북조선의 국화가 magnolia(목란)이란 것을 알았다. LA 우리 집 뒤에 많이 피는 서양 목련에 비해 작은 하얀 꽃이다. 아름다운 꽃과 더불어 폭포에 오르며 조정 디자이너 Sarah의 무거워하는 가방을 손수 들어주는 지도원의 서구화된 마음씨는 더 아름다웠다.

▶**평양은 다른 곳과 달라** = 저녁에 대동교 남단 서쪽 평양 오리고기 전문식당에 들러 대동맥주로 피로를 풀기 전 입구 왼쪽에 파라솔과 의자를 놓은 야외 카페같이 생긴 곳에서 남자는 인민복, 여자는 평상복으로 담소를 즐기는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다. 모두들 앞에 놓여 있는 먹거리는 한결같이 핫도그용 분(bun)처럼 생긴 빵과 사이다였다.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만족은



↑ 평양오리전문식당 옆 카페의 모습.

를 못했다.

버스 옆 자리에 앉아 원예책을 읽고 있던 Ana에게 어디서 왔냐고 물으니 Michigan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한다. 과기대에서 영어를 가르치며 이번 여행의 인솔자인 George Stump교수의 딸이다. 부인은 Albania에서 온 Nancy이고 입양한 아들 Joel과 딸 Ana의 네 식구다. 얼마나 겸허하고 소박한 마음씨의 신앙가정인지, 그리고 장애아들에 대한 사랑이 극진한지 않으면 돈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과는 비교되질 않아 저절로 머리가 숙여졌다. 그리고 보니 Joel은 어제 교수회관에서 마시고 난 커피 잔을 bus boy box에 수거해갔던 그 아이였다.

원산에서 먹은 냉면은 면발이 질기지 않고 노란 계란채와 편육을 얹은 고소한 양념에 옥류관 평양냉면보다도 나은 것 같았다. 금강산으로 가는 도중 천삼협동



집단농장 방문시 Stump교수와 아들 Joel과 함께.

야, 갈테면 가라, 너희들이 가는 것이 두렵지 않다’ 너무나 오래된 추억이었다.

▶**온정리 금강산 호텔** = 가는 길에 시중호 휴게소란 곳에 들렀는데 여기가 유명한 명사십리의 한 곳인지 우거진 송림과 새하얀 모래밭 해변은 그림과 같았다. Ana와 나는 열심히 사진을 찍고 서두르는 여행사 안내원이 떠나는 버스에 다시 올라 아름다운 동해안을 따라 계속 내려가 저녁 7시 온정리 금강산 호텔에 도착했다. 지면 관계로 사진을 많이 못 올린 것이 유감이다.

이곳은 현대 아산이 금강산 관광단을 모집해 데려 올 때도 그리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할 때도 이용했다고 한다. 이곳도 역시 손님이 없어 적자 운영을 하고 있을 생각을 하니 또 가슴이 아팠으나 시설은 역시 현대 손이 가서 그런지 양각도 호텔

물상 등반은 완전히 악에 받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체중이 큰 의사 2명은 일찍 포기하고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석달 전부터의 허리 디스크와 무거운 캐논 5D 마크 II 카메라를 지고 오르는 것이 문제였는데 결국 지도원들이 대신 지고 내려왔길래 얼마나 고마운지 모를 일이다.

기기형상의 바위들은 내가 정비석님이 아니므로 글로 표현하는 것은 무리고 혈떡이는 숨 고르기와 흐르는 땀을 주체하기 힘들었다. 젊을 때 설악산, 지리산, 치악산 등 친구들과 올라 반합에 밥과 통조림 쫄치를 넣고 김치찌개를 만들어 먹은 적도 있었는데 이제는 안되는 것 같다.

지자가 산을 좋아했는지 현자가 물을 좋아했는지 항상 헷갈렸는데, 정말 보기 좋은 쫄치는 다음날 해금강과 삼일포였다. 다시 군사 분계선 통과를 허락받아 바닷물 위로 저마다 솟아 나온 크고 작은 바위들과 소나무들 그리고 섬들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아름다움의 극치였다.

아침 일찍 새벽 안개가 깔려 있을 때 사진 찍으면 좋은 것들을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아쉬움을 남기고 다시 원산으로 향하였다. 시내로 들어서니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문구가 다시 눈에 들어왔다. 늦은 점심을 마치고 원산 시내를 빠져나와 평양행 국도는 200km의 계속된 내리막 길이었다. 삼일포에서의 flat tire로 예정시간보다 늦었는지 고르지 못한 노면을 빨리 운전해 맨 앞자리에서 사진기를 받고 있던 나는 두려움이 왈칵 밀려 왔다. 옆의 월드비전 양 회장이 맞은 편에서 쫄쫄쫄쫄 연기를 뿜으며 다가오는 폭탄차가 보이니 얼른 찍으라 하기에 그것도 보이기 싫은 것의 하나겠거니 하고 그냥 지나쳐 보내고 말았다.

평양에 닿으니 어느새 어둠이 깔리고 가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다시 양각도 호텔을 창문을 열고 전기불들이 꺼지기 전 평양시내 대동강 건너 편으로 피라미 모양의 유경호텔이 보이는 경관을 내다보았다.

결국 일주일 동안의 북한 여행은 호텔, 캠퍼스 그리고 버스 안에서의 제한된 여행이었다. 그러나 가슴 속으로 느낄 수 있는 고향의 정취인 대동강을 직접 볼 수 있었음은 더할 수 없는 기쁨이었다. 다음 날 아침 9시 고려항공편에 올라 북경으로 나가 LA 집에 돌아오니 뒷마당에는 장미꽃들이 만발하고 채스민 냄새가 가득했다. 아내에게 말했다 - “Did I promise you a Rose Garden?” - 이해하고 기다려 주어 고맙다고.*** <끝>

“감나무 하나에 80개가 열렸다고 보고했더니 1976년 수령계서 현장지도하시며 100개는 열릴 것이라 하여 그 해 수확해보니 120개가 열렸다길래 그런가 보다 했다”

비교 편차에서 오는 것이리라. 적어도 이곳 평양의 삶의 모습은 나선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다는 이곳 평양 주민들은 나름대로의 풍요를 누리고 있는 듯이 보였다.

내일은 과기대에서 동쪽으로 난 국도를 따라 원산을 지나 금강산으로 내려가기로 하였다. 원산까지 200km, 금강산까지 또 110km 라니 하루 종일 버스여행에 시달려야 할 것 같다. 하지만 연세의대 인 교수의 재치있는 이야기로 피곤한 줄 모르고 달렸다.

할아버지께서 선교사로 한국에 온 이래 그는 전남 순천에서 태어나 중고교 후 연세 의대에 진학, 의사가 돼 대학병원 가정의학과를 담당하고 있다. 15년 연하로 나에게 꼭 “선배님”이라고 호칭하며 따랐다. 영어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말이 얼마나 능숙한지 학교 선배들에게 회식할 때 배웠다며 “야, 이 새끼야, 먹어” 등의 말을 하면 버스 안이 떠나갈 듯 웃음바다가 되었다.

그의 말솜씨는 밀거나 흥하지 않고 어떻게 들으면 영어와 뒤섞인 귀여운 발음이어서인지 모두가 호감을 가졌고 지도원 동무들도 아연실색하며 좋아했다. 책도 많이 읽어 한국역사에 대해 누구도 따라갈 수 없었다. “공민왕 때부터 몽고에서 왕의 비를 몇 번에 걸쳐 보냈으니 지금 한국 민족의 많은 비율이 몽골족이 아니겠는가”라는 말에 누구도 대꾸

농장이란 집단 농장(이스라엘의 Kibbutz에 해당)에 들러 김명희 분조장의 약간 부풀려진 작황 설명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감나무 하나에 80개가 열렸다고 보고했더니 1976년 수령계서 현장지도하시며 100개는 열릴 것이라 하여 그해 수확해보니 120개가 열렸다길래 그런가 보다 하고는 옆마을의 모범 유치원으로 발길을 돌리기 전 분조장의 주택을 open house 하는데 들렀다.

조그만 온돌방 두개에 이불장에는 이불들이 가지런히 쌓여있고 안방에는 수령님과 영도자의 초상화가 나란히 걸려 있었다. 가마술이 두 개 있는 부엌과 구공탄이 쌓여 있는 뒷간을 보여주며 얼마나 만족해 하는지 그녀의 esteem에 감탄하였다.

▶**유치원생 몸짓에 어린 시절 회상** = 유치원생들은 많이 기다렸다는 듯 마당에 오르간을 가져다 놓고 단체 무용과 개인유희를 보여주었다. 그 중 다섯살 쯤 돼 보이는 사내아이의 충성노래와 몸짓은 가히 필자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기에 흡족할만 하였다.

필자의 외할머니께서는 내가 어릴 때 막대기를 소총인 양 어깨에 메고 노래하며 행진하는 모습을 보시며 칭찬하시던 모습이 머리에 떠올랐다. 옆에 있던 인 교수 귀에 대고 65년 전 내가 부르던 노래를 들려주었더니 어떻게 그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느냐면서 의아해 했다. ‘비겁한 자

보다 훨씬 좋았다.

문제는 2인 1실로 방을 배정했는데 이왕이면 친구로 사귄 겐 LA에서 온 의사 David과 같이 방을 쓰기로 했으나 그의 코고는 소리는 옆 방에서 들을 정도로 호사다마였다. 버릇대로 석식 후 밖에 나가 보았으나 철조망이 쳐져 있고 옆에는 군 부대가 있어 겁먹고 들어왔더니 코고는 소리가 보통을 넘는다.

▶**금강산 해금강의 경치** = 아침 일찍 산책에서 돌아와 LA로 안부전화하고 1분이 넘기 전 끊으려 했는데 clicking이 잘못 났는지 \$7.00/분x2를 지불했다.

등산 준비를 하고 온 것은 아닌데 오전 구룡폭포를 보려고 세시간 만에 걸친 천천대까지의 등반은 보통 어려운 등정이 아니었다. 물줄기를 따라 바윗길을 오르는데 완전히 몸은 젖고 목은 타들어 갔다. 군데 군데 물웅덩이에서 쉬어가며 바위에 새긴 낙양 글들은 존경심보다는 혐오감을 불러오는 것이었다.

폭포가 내려 쏘는 연못을 바라보면서 동행자들에게 부친의 가곡 하나를 또 소개해주었다 - ‘내 옷이 어디 갔나, 내 옷이 어디 갔나, 오늘을 올라 가야, 내일도 배를 짜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목욕하는 도중, 나뭇꾼이 옷을 감추었기에 생긴 경황을 노래함이었다.

오후 3시부터 6시 반까지의 만

<여행기>

산티아고 순례길 낙수<1>



이강홍(상대 60) NY
Manhattan Woods Golf Club
CEO

▶제1신 = 안 가본 길은 꼭 가고픈 심사를 지녀온 내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 갖는 남다른 호기심과 충동은 Robert Frost의 ‘가보지 않은 길’을 접하기 훨씬 전부터 느끼며 도전해온 내 삶의 원동력 아니던가.

대여섯 살 어릴 적, 인왕산 밀청운동 살던 시절의 어느 여름날 오후, 당시 경무대 부근에 내려앉은 무지개 잡으려고 몇몇이 경쟁하듯 달려가니, 그 아롱진 무지개는 석양에 더욱 선명한 색채로 다시 삼청공원 숲에 걸쳐있지 않은가! 또 뛰고 걷고 하다가 건물과 가로수에 가려져 길마저 잃어버리고, 비와 땀에 지친 몸으로 어둑해진 동네 어귀로 들어서니 근심어린 어른들이 우선은 놀란 모습으로 반겨주시더니 집에 당도해서는 대화타령으로 끝이 난 것도 다 이 충동과 호기심 때문이었지.

1985년 두 아들의 장래 교육으로 고민하던 때, 전국을 전쟁 돌입상황으로 놀라게 한 이웅평의 북한 공군기 귀순사건이 계기가 돼 뉴저지주로 가족을 이주시킨 후에도, 그 버릇-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호기심-대로 이 길 저 골목을 쫓아보다가, 어느 막다른 집의 잔디밭에서 열린 파티에 반강제로 끌려 캔맥주에 옥수수와 소시지를 얻어먹기도 했다.

또 어떤 날은 Garage Sale - 흔히 미 중류층이 거주하는 독립가옥들의 차고 앞에서, 집을 줄여가거나 또는 고인이 된 분의 수집품, 더러는 자식들이 다 성장해 용도가 없는 물품들을 헐값에 처분한다 - 의 풍습을 배우면서 빠르게 주변 환경의 특징을 터득하는 잊정도 많았다.

인류사 전문가들은 초기 인류 또한 350만년 전 흠어져 살던 동아프리카에서 사냥과 채취로 살아오다가 언덕에 오르다 보면 또 다른 언덕이 보이면서, 그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하는 호기심 때문에 빠른 기간에 걸쳐 지구전역으로 퍼져 나가게 되었다. 그 호기심 때문에...

80년대 초부터 사업관계로 일본 출입이 잦을 때, 거래회사의 상대역이 3주간 휴가를 내 스페인 순례길을 다녀왔다면 구리빛 얼굴로 보여주는 사진을 보고 처음으로 Pilgrim을 음미하는 계기가 됐는데, 한 번 관심을 갖고 보니 매년 이어지는 회교도들의 ‘메카’행을 눈여겨 보게 됐다.

일본에서는 불적을 가진 이들의 순례행렬 사진전을 접하면서 또

다시 충동을 느끼곤 했다.

17세기 순례길을 걷던 일본의 불승 ‘마쓰오 바쇼’의 시 한 줄 ‘고개를 이쪽으로 돌리시게. 나 역시 외로우니, 이 가을 저녁’이나, 18세기 순례승 ‘고바야시 잇사’의 ‘돌아눕고 싶으니 자리 좀 비켜주게, 귀뚜라미여’가 왜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고 맴돌던지...

1993년 결혼 25주년 기념여행으로 유럽을 가자던 내자의 주장을 꺾고 American Museum of Natural History와 중국 중앙박물관이 주관한 실크로드 탐사여행에 참여, 감숙성에서 티벳고원을 오르는 황량한 돌산 초입에 위치한 몇 개의 촛불 켜진 석굴에서 ‘신라국 혜초승...’이라 쓰인 위패를 대했을 때의 감격! 눈이 젖어들며 도(?)는 깨우치지 못하더라도 이런 길을 한 번은 가보겠다는 충동만은 마음에 심어 놓았다.

그 석굴들은 당조의 고승들을 기리는 석굴이었는데 ‘서유기’에서나 접했던 삼장법사의 위패도 눈에 들어와, 홀려간 1500여년의 세월이 압축돼 가슴에 서려오는 감회를 한동안 느꼈다.

그때의 중국, 개방이 된지 몇 년 안 된 여유가 없던 시절인데도 다른 나라의 고승까지 챙기는



↑ St. Jean Pied de Port에서 순례자 여권 발급.



↑ 최초로 투숙한 순례자 전용숙소 ‘알베르게’

리 - 에 초점을 맞춘 경박하고 천박한 관광상품을 팔고 있더라. 말하자면 프랑스와 스페인의 국경도시에서 출발해 2-3일 걸고는, 중간의 긴 구간은 관광버스로 주행한 뒤 나머지 100km 정도를 며칠간 걸어 산티아고 도착 후 순례길 증서를 받는 여행상품을 제시하는데 질색하며 외면했지. ‘용두사체용미’라는 말이 만들어집니다. 졸업장 위주로 살아온 저 숙물들의 황폐된 정신!

또 타국의 순례자들은 세파를 어느 정도 겪은 30-50대가 대부분인데 비해 우리 한인들은 20대와 50대가 주류를 이루고 중간층이 거의 없더라. 20대 젊은이들은 그저 극기훈련 과정으로, 심지어 구직의 유리한 조건을 갖추려고 떠난다네. 어쩐지 숭고한 신앙심의 추구나 내면의 성찰과는 거리가 먼 유행바람을 만들고

음이 가슴에 서린다. 가을에 홀로 떠나는 외로움, 일부러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며 가족들의 배움을 받는다. 잘 들 있어다오! 파리행 일등석에 사과리 복장으로 배낭을 메고 들어서니 수석 승무원이 아연한 기색으로 땀을 흘리고 시중을 든다.

일등 캐빈에는 어울리지 않는 승객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아예 기선을 제압하려고 샴페인과 IHF 영자신문을 주문하니 머리가 좀 복잡한가 보다.

조금 후 사무장이 인사왔기에 내 비즈니스석을 업그레이드 해주어 고맙다는 인사말을 하니, 프랑스에 무슨 교역 전시회가 있어 비즈니스석이 만원이라 평소 자기네 항공사를 많이 이용해 주는 내게 일등석 혜택을 주었다. 커튼 뒤를 보니 짙은 색 양복 손님들이 그득하다.

/ 한 번도 그대를 어루만지지 못했음을’

가슴에 안개가 낀다. 후회되는 행동과 말들이, 침묵이, 자만심이, 인색했음... 회한이 서린다. 마음이 무겁구나.

파리에서 기차편으로 ‘피레네’ 산맥 턱밑에 위치한, 성곽으로 둘러싸인 아름답고 고풍스러운 ‘생 장 피드 포르(St. Jean Pied de Port)’에 도착하여 ‘알베르 게(Albergue)’ - 순례자 전용 숙소로 보통 한 방에 20 내지 40명의 남녀혼용이며 2층 침대로 되어 있다 - 에 숙소를 정하고, 주관 사무소에서 순례자 여권을 발급받고 숙소로 돌아와 피곤한 몸을 던지니 땀내, 향수와 발냄새 등이 뒤섞여 진동하는 데도 무겁게 잠이 몰려왔다.

이곳이 소위 프랑스길의 시작점이다. 오늘날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제외한 외국인 순례자의 80% 이상이 여기서 시작한다.

돌탑게도 아직도 러시아의 ‘상페데르부르크’와 ‘체코 공화국’에서 독일과 프랑스를 거쳐 오는 순례길이 그대로 보전되어 있단다. 그런데 예수를 박해하다 죽이고 그 후 마지못해 가장 먼저 예수를 맞아들인 로마인들은 어디갔나?

성지를 되찾겠다고 십자군 전쟁의 선봉을 발진시킨 것도 프랑스였고, 200여년간 모슬렘과의 사투와 악행을 저지르다 실패한 후, 신앙적 갈구를 채우려고 서쪽땅 끝에서 포교를 서약한 ‘야고보’님의 무덤이 있는 ‘산티아고(Santiago de Compostella)’로 순례를 시작한 이들도 왜 프랑스 인이란 말인가?

참으로 난해하구나. 이런 때 최문환 교수님이 아쉽구나. 대학시절 최 총장님의 경제문화사 강의가 지금도 생생하게 그리워지네. 참으로 ‘Santiago’는 스페인 말로 ‘성인(Sant)’과 ‘야고보(Iago)’의 합성어로, 스페인 왕국이 식민지를 개척한 곳마다 Santiago라는 식민통치 - 인종과 신앙의 개종 - 의 거점도시를 세웠다.

깊은 밤 노기로 잠이 깨어 주변을 살피니 모두 눈·귀 가리개를 하고 잠들어 있다. 아차, 나만 없구나. 잠 못 이루는 깊은 밤에 왜 달은 저토록 밝은지..., 야속하구나.

여기가 어딘가 생각을 가다듬으니 바로 바스크 민족이 몰려사는 피레네 산맥의 초입이다.

이국의 밤, 새 소리도 우리네 소쩍새처럼 구성지게 우네. 이렇게 잠 못 들면... 오늘부터 걸어야 하는데..., 또 근심이 앞선다. <다음 호에 계속>

“여느 때처럼 설렘과 서글픈 마음이 가슴에 서린다. 가을에 홀로 떠나는 외로움, 일부러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며 가족들의 배움을 받는다. 잘들 있어다오!”

너그러움과 도량이 참으로 부러웠다. 우리 땅에는 가고 오며 밟았을 혜초스님의 그 길은 지금 어디 있나? 우리는 망각 속에 잃어버리는 유적들을 다른 이름으로나마 수리 복구 보존은 해주나...

▶제2신 = 여기는 미국 땅, 아버지가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열정과 혼을 쏟아 만든 골프장을 마다하고 제 길(투자은행)가겠다고 떠나는 아들. 귀여운 두 손녀와 알짜 살림을 챙겨 떠나는 심보에 상심하여 허전함과 심란함을 달래고 있으려니, 그동안 숨죽이고 내 눈치만 봐오던 그 호기심과 역마살이 다시 꿈틀대는 충동을 어쩔 수 없더라.

어디로 떠날까? 마치 박해(?)받고 떠나야 하는 순교자의 느낌이 들어 그 ‘혜초’ 스님의 티벳길을 생각하던 중, 몇 년 전 꺾어지는 해 - 매 5년마다 - 콜로라도 동문들이 동기회 모임을 주관하면서 한껏 멋을 낸답시고 준비한 ‘로키산맥’의 해발 9000여 피트에 있는 산장에서 너무 어지러워 혼쫓이 난 기억 때문에 스페인의 순례길로 바꾸어 떠날 준비를 하며 조사를 했다.

우리 한인들도 한 해에 1천 명 이상이나 떠남을 알고 이 순례길 여행이 특화됐다는 여행사를 찾아 설명과 안내서를 받아보니, 1200여년에 걸쳐 받쳐온 고매한 신앙심과 고행의 정신은 간 데 없고 오직 경비와 기간 - 빨리빨

리어 돌 씹은 기분이 들며 나홀로 프랑스 길을 택하여 준비에 들어갔지.

평발을 갖고 태어난 내자는 원망어린 격정으로 도와주더라. 간간이 푸념도 섞어... 그제 빠지면 허전하지. 그리 답지 않다는 10월을 택해 사업체, 가게, 건강체크로 분주했던 달빛어린 어느 밤, 홀로 간다는 쓸쓸함이 깃들며 정진규 시인의 ‘슬픈 공복’이 떠오릅니다.

‘거기 늘 있는 강물들이 비로소 흐르는 게 보인다/ 흐르니까 아득하다 출다 오한이 든다/ 나보다 앞서 주섬주섬 길 떠날 채비를 하는 슬픈/ 내 역마살이 오슬 오슬 소름으로 돋는다(중략)/ 누가 던져두고 떠나버린 낚싯대 하나/ 홀로 잠겨 있는 방죽으로 간다/ 허리 꺾인 갈대들 물 속 맨발이 시리다/ 11월이 오고 있는 겨울 초입엔 배고픈 채로/ 나를 한참 건디는 슬픈 공복의 저녁이 오래 저문다’

길을 떠나 여행에 들면 새로운 것에서 느끼는 경이로움도 많지만, 그보다도 습관적인 삶의 패턴과 생각의 범주를 넓히고 되돌아보게 하는 기능이 더 크기도 함을 느끼곤 했다.

▶제3신 = 뉴욕서 날아와 준비물 챙기고 오늘은 떠나는 날이다. 여러 생각이 많아지니 무엇을 얻으려 무엇을 잃으려고 떠나는가 가닥이 잡히지 않네.

여느 때처럼 설렘과 서글픈 마

수출 역군들이구나. 아, 나도 20여년 전까지 저들 속에 있었는데..., 그 열정과 저돌성을 세월이 앗아갔네. 상실과 아쉬움을 느낀다 잠이 들었다.

새벽녘, 3시가 조금 넘은 시간 모두가 잠들어 고요하다. 승무원 호출 버튼 소리가 크게 울릴까 조심스러워 주방으로 가니 그 수석과 젊은 승무원이 서서 얘기를 하고 있다.

커피와 브랜디 한 잔을 주문하니 젊은이에게 시키면서, “선생님 참 멋있어요!” 한다. 탑승시의 거부감과는 동떨어진 경박한 칭찬이다. 가시 있는 응답을 해주었지. “당신 생각하는 폭이 크고 재치가 있군요” 라고.

좌석에 돌아와 생각해본다. 외양으로 판별하는 우리 사회의 지나친 겉치레와 쏠림현상이 큰일이구나. 회장님 투성이의 명칭홍수 사태도, 지나친 성형수술과 TV방송의 획일적 외관 치중도, 외제명품과 작동이 판치는 현상도, 심지어 보석 박힌 골프채를 뇌물로 선물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 해도 너무하구나.

기내에서 마시는 새벽 커피는 맛있다, 브랜디의 향까지 섞였으니. 부담없는 시집을 펼치니 김재진 시인의 ‘새벽에 용서를’이란 제목이 눈에 들어온다.

‘그대에게 보낸 말들이 그대를 다치게 했음을/ 그대에게 보낸 침묵이 서로를 문닫게 했음을/ 내 안에 숨죽인 그 힘든 세월이

동창회비•광고 및 업소록비•기타 후원 동문(2014.7.1 ~ 2015.1.5)

동창회비

▶Alabama
서안희(간호 63)
유성무(상대 66)

▶Alaska
윤제중(농대 55)
하인환(공대 56)

▶Arizona
김영철(공대 55)
박양세(약대 48)
지영환(의대 59)
최선희(자연 93)

▶California
강동순(법대 59)
강영호(의대 58)
강재호(상대 57)
강정훈(미대 56)
강중경(공대 48)
강천호(사대 58)
강홍제(상대 53)
계지영(문리 60)
고영순(음대 59)
고재천(공대 57)
권영덕(공대 54)
권영재(의대 57)
권오형(사대 61)
김강수(문리 59)
김건진(문리 62)
김계윤(의대 57)
김광은(음대 56)
김군빈(법대 56)
김기태(의대 54)
김낙구(상대 67)
김난영(공대 53)
김동산(법대 59)
김동호(농대 58)
김명환(문리 67)
김병곤(공대 58)
김병완(공대 58)
김병호(상대 57)
김석두(농대 58)
김석홍(법대 59)
김선기(법대 59)
김수영(사대 57)
김순길(법대 54)
김순자(치대 57)
김영덕(법대 58)
김영희(사대 56)
김옥경(음대 69)
김완기(사대 50)
김원경(약대 59)
김원호(약대 63)
김의신(의대 48)
김익창(의대 48)
김일영(의대 65)
김 정(치대 59)
김정민(상대 58)
김정복(사대 55)
김정애(간호 69)
김정희(음대 56)
김준일(공대 62)
김진형(문리 55)
김창무(음대 53)
김태운(법대 53)
김현왕(공대 64)
김혜숙(약대 77)
김희재(사대 66)
나두섭(의대 66)

*동문들이 보내주시는 동창회비와 각종 후원금은 미주 동창회보 발행과 미주 동창회의 원만한 운영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부디 동창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창회비와 후원금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동문들이 보내주시는 동창회비와 각종 후원금은 모두 다음의 Tax 번호로 감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Federal TIN : 13-3859506

이중희(공대 53)
이채진(문리 55)
이현숙(사대 62)
이흥기(공대 62)
임동규(미대 57)
임동호(약대 55)
임문빈(상대 58)
임정란(음대 76)
임창희(공대 73)
임춘수(의대 57)
임화식(치대 59)
임희영(치대 67)
장동석(문리 66)
전명선(공대 46)
전범수(농대 71)
전상옥(사대 52)
정규남(공대 52)
정동구(공대 57)
정동주(가정 72)
정수만(의대 66)
정예현(상대 63)
정재훈(공대 64)
정정순(사대 56)
정진수(공대 56)
정태무(사대 44)
정현진(간호 68)
제영혜(가정 71)
조관상(의대 60)
조동준(의대 57)
조정시(공대 60)
조태준(문리 59)
주정래(상대 65)
이중근(공대 56)
차재철(의대 62)
차종환(사대 54)
최경선(농대 65)
최덕순(간호 59)
최영순(간호 69)
최용완(공대 57)
최종권(문리 59)
최혜숙(음대 67)
하선호(치대 81)
한중철(치대 53)
최혜숙(의대 53)
최희수(문리 67)
한의일(공대 62)
함성택(문리 55)
홍 건(의대 64)

▶Florida
김재석(의대 66)
박창익(농대 64)
송용덕(의대 57)
신쌍재(수의 59)
안창현(의대 55)
전영자(미대 58)
정진목(의대 50)
한기빈(공대 52)
한성수(의대 54)
황현상(의대 55)
홍순호(수의 74)

▶Chicago
강수상(의대 48)
강영국(수의 67)
강화영(문리 50)

▶Georgia

김순옥(의대 54)
김영서(상대 54)
김용건(문리 48)
방창모(문리 49)
백낙영(상대 61)
손종수(의대 50)
성옥진(치대 87)
송창원(문리 53)
왕규현(의대 56)
이창재(문리 56)

▶Minnesota
권학주(치대 59)
김영남(사대 53)
박정선(농대 60)
변우진(인문 81)
성옥진(치대 87)
송창원(문리 53)
왕규현(의대 56)
이창재(문리 56)

▶New England
김만옥(약대 56)
김명자(문리 62)
김문소(수의 61)
김선혁(약대 59)
김신형(의대 51)
노인규(의대 52)
윤상래(수의 62)
이금하(문리 69)
정정옥(의대 60)

▶Hawaii
김승태(의대 57)
김용수(농대 75)
김용진(공대 50)
김창원(공대 49)
장광수(사대 50)
최경윤(사대 51)

▶Heartland
김정숙(가정 70)
김명자(문리 62)
김제권(사대 68)
도태영(사회 93)
백산옥(문리 51)
이상강(의대 70)
정민재(농대 70)

▶Las Vegas
김영국(치대 66)
김택수(의대 57)
이 관(공대 55)
박정우(의대 54)
홍수웅(의대 59)

▶Michigan
고광국(공대 54)
김국화(공대 56)
김우신(의대 60)
김재석(의대 61)
김희주(의대 62)
남성희(의대 58)
박용화(의대 52)
박준환(의대 55)
서영일(의대 62)
신동화(문리 55)
유효명(의대 58)
이상설(의대 52)
이상일(의대 54)
이성길(의대 65)
임병훈(의대 54)
조문희(공대 56)
조병권(공대 64)
차대양(공대 55)
채무원(의대 59)
최병두(의대 52)
하계현(공대 64)

김현중(공대 63)
김현희(간호 59)
김훈일(공대 60)
노용면(의대 49)
라준국(공대 47)
민발식(의대 60)
민준기(공대 59)
박건이(공대 60)
박성일(상대 58)
박수안(의대 59)
박순영(법대 56)
박중섭(사대 74)
박진우(상대 77)
박현성(약대 60)
방준재(의대 63)
배명애(간호 47)
배상규(약대 61)
백낙환(약대 56)
변건웅(공대 65)
서병선(음대 65)
선종철(의대 57)
성기로(약대 59)
손경택(농대 57)
손광호(의대 59)
송병문(공대 62)
송영순(사대 60)
신한경()
심영석(공대 76)
안태홍(상대 65)
양명자(사대 63)
양순우(법대 67)
우상영(상대 55)
원인순(문리 71)
유재섭(공대 65)
유택상(문리 58)
유영호(의대 52)
윤봉균(사대 54)
윤영섭(의대 57)
윤인숙(간호 63)
윤현남(공대 64)
이강홍(상대 60)
이경태(공대 63)
이국진(사대 57)
이동석(의대 57)
이만석(공대 58)
이문자(간호 66)
이상복(의대 56)
이성수(공대 56)
이영숙(간호 56)
이운순(의대 52)
이유찬(의대 58)
이은미(음대 77)
이재진(의대 59)
이재원(법대 60)
이전구(농대 60)
이정은(의대 58)
이종환(법대 51)
이준행(공대 48)
이중춘(공대 56)
이충호(의대 63)
이태성(음대 65)
임공세(의대 63)
장태옥(음대 57)
정계봉(의대 60)

▶NY & NJ
강충무(사대 60)
계동휘(치대 67)
고순정(간호 69)
곽노섭(문리 49)
곽상준(약대 55)
곽선섭(공대 61)
권문웅(미대 61)
권영국(상대 60)
금동용(문리 58)
김정애(간호 54)
김광현(미대 57)
김광호(의대 66)
김규화(상대 63)
김기훈(상대 52)
김동진(약대 56)
김명철(공대 60)
김문경(약대 61)
김병권(문리 63)
김병석(의대 53)
김병술(의대 52)
김봉련(54)
김석식(의대 58)
김석자(음대 61)
김수일(약대 62)
김순자(약대 59)
김영봉(의대 83)
김영애(사대 56)
김영일(약대 58)
김영철(의대 55)
김완주(의대 54)
김용술(상대 56)
김용연(문리 63)
김유순(간호 64)
김자익(의대 69)
김재경(농대 58)
김정순(법대 53)
김정환(문리 60)
김정희(간호 69)
김창수(약대 64)
김태양(사대 61)
김한중(의대 56)

▶Oregon
김상만(음대 46)
김상순(상대 67)
박희진(농대 78)
최동근(문리 50)
한국남(의대 57)
한영준(사대 60)

▶Philadelphia
강영배(수의 59)
강준철(사대 59)
권기상(경영 72)
고영자(치대 63)
김국간(치대 64)
김무형(약대 63)
김순주(치대 95)
김영남(의대 61)
김영우(공대 55)
김정현(공대 68)
문대옥(의대 67)
민홍식(수의 60)
박호현(의대 52)
손재옥(가정 77)
송성균(공대 50)
송영두(의대 56)
신성식(공대 56)
안세현(의대 62)

미주 동창회
대도약을 위한 후원

▶조형원(약대 50)

500

▶최지원(의대 55)

500

▶권철수(의대 68)

500

▶문광재(의대 68)

500

▶김길평(상대 62)

501

▶이충호(의대 63)

501

▶방은호(약대 43)

600

▶신창민(법대 60)

1,000

▶곽노섭(수학 53)

1,000

▶권기현(사대 53)

1,000

▶정재훈(공대 64)

1,000

▶조순자(문리 53)

1,000

▶한재은(의대 59)

1,000

▶최 철(의대 62)

1,000

▶이명선(상대 58)

1,125

▶이준행(공대 48)

2,000

▶차재철(의대 62)

3,000

▶강신호(의대 51)

3,000

▶이상강(의대 70)

5,000

▶고광선(공대 57)

5,000

▶손재옥(가정 77)

10,000

▶이병준(상대 55)

10,000

양운택(의대 58)
염극용(의대 54)
원종민(약대 57)
윤정숙(문리 59)
윤정나(음대 57)
이규호(공대 56)
이병인(수의 69)
전방남(상대 73)
전희근(의대 54)
정덕준(상대 63)
정용남(문리 60)
정정수(의대 56)
정태광(공대 74)
정홍택(상대 61)
조영호(음대 56)
조화연(음대 64)
주기복(수의 68)
지흥민(수의 61)
차호순(문리 60)
한용오(보원 70)

김훈목(사대 58)
박유미(약대 62)
신달수(공대 50)
신철영(문리 64)
양덕주(문리 66)
유한창(공대 69)
유 황(농대 56)
이규진(약대 60)
이길영(문리 59)
이동성(의대 58)
이영재(상대 51)
이주희(음대 89)
이찬주(문리 63)
전중희(공대 56)
조진태(문리 57)
진기주(상대 60)
최관일(공대 54)
최성호(문리 58)
최용천(문리 53)
탁순덕(사대 57)
황명규()

▶Rocky Mt .
이석호(공대 66)
최근영(법대 63)
표한송(치대 58)

▶Utah
김인기(문리 58)
마천일(의대 62)
박정일(미대 48)

▶Texas
곽노환(문리 48)
김기준(공대 61)
김동수(의대 60)
김태훈(공대 57)
김한섭(의대 53)

<동창회비 및
각종 후원금
29면에 계속>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비 및 후원금 (회계연도 2014년 7월 ~ 2015년 6월)✂

성명 : 한글		영문		단과대학및 대학원 :		입학연도 :	
주소 :				전 주소			
업소 이름 :				업소 주소			
전화 : (B)		(H)		(C)		(Fax)	
e-Mail :							
후원금		동창회비(구독료포함)		업소록 광고비(6개월)		일반광고비	
연 \$200 ☐		2014.7~2015.6 \$75 ☐		2015.1~2015.6 \$120 ☐		명함크기(3.5" x 2") \$120 ☐	
연 \$500 ☐						1/6면 (5" x 4.5") \$200 ☐	
연 \$1,000 ☐						1/3면 (10" x 4.5")\$400 ☐	
기타 \$ ☐						1/2면 (10" x 6.7")\$600 ☐	
						전면 (10" x 13.5")\$1000 ☐	
						전면(Back 10" x13.5")\$1500 ☐	
보넬 곳:1952 Gallows Rd.,Suite 206,Vienna VA 22182 Tel(Fax):703-462-9083 e-Mail:snuaausa12@gmail.com							
지불방법(Check 또는 Card)				Pay to order of 'SNUAA-USA'			
Visa() Master() American Express() 기타()				전화 <703-462-9083>로() Check No.()			
Card No. :				Security Code :		Expire Date :	
Cardholder's Name :				Date :			
Address No. Only				Zip		Pay to order of SNUAA-USA	

미주 동문 업소록

광고 문의는 전화
(703) 462-9083

CA 남가주

공인회계사

강동순 회계사
강동순 (법대 59) (310) 538-9315
19401 Vermont Ave. Suite C-201
Torrance, CA 90502
kangdon@att.net



김재영 공인회계사
* 김재영 (농대 62) (213) 385-1985
2960 Wilshire Blvd.#300,L A, CA 90010

신대식 공인회계사
* 신대식(상대 60)
(310) 329-6557
555 W. Redondo Beach Bl. #260,
Gardena CA 90248

Kim & Kang CPA's
(김경무 강정욱 공인회계사)
김경무 (공대 69)
(213) 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0 Los Angeles, CA 90010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공인회계사
강신용(사대 73)
213-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인문대 76)
(213)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4 LA, CA 90010

강호석 회계사무소
강호석(상대 81) 714-530-3630
12912B rookhurst St. #370
Garden Grove CA 92840 213-380-5060
3600 Wilshire Blvd. #1004 LA CA 90010

STANLEY Cha, CPA
차기민(공대 85)
213-739-5700, 714-525-1821
schacpa@gmail.com
3440 Wilshire Blvd. #807 LA CA 90010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Jun Chang CPA
장 준(인문대 85)
818-772-2811 213-481-0100
junchangcpa@hotmail.com
19520 Nordhoff St. #16 Northridge, CA 91324
1100 Wilshire Blvd. Suite 2904 LA, CA 90017

식품/음식점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상대 74)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운송/유통/통관/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유통/강관도매
이병준(상대 55) (562)692-06009
9615 S. Norwalk Blvd., #B,
Santa Fe Springs CA 90670

엔지니어링 컨설팅/ 건축

Lee & Ro, Inc.
노명호(공대 61)
(626) 912-3391
1199 S Fullerton Rd City of Industry CA 91748

Mackone Development Inc.
양태준(상대 56)
(213) 252-9506
2244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농대 74)
(714) 641-4730
1526 Brookhollow Dr,Santa Ana CA 92705

의료/ 약국/ 치과병원

Beverly Cardiology Group
Il Young Kim MD(의대 65)
Diana Kim MD (323) 662-1175
3919 Beverly Blvd. #100 LA CA 90004
www.beverlycardiology.com

정수만 암내과 · 혈액내과
정수만(의대 66) (714) 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Gilbert Pharmacy
* 최무식 (약대 66)
(714) 638-8239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황준오 D.D.S.
황준오(치대 73) 408-732-0493
877 W.Fremont Ave.#H3
Sunnyvale CA94087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치대 81)
(213) 365-1008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ddsshpyahoo.com

재정/ 보험/ 컨설턴트

AXA Advisor
Paramount Planning Group
조임현(간호대 72)
213-487-3253
3435 Wilshire Blvd. Ste.2500 LA CA 90010
im.cho@axa-advisors.com

Michael Kim, CEO
김기형(상대 75)
3435 Wilshire Blvd, #2820 LA.CA 90010
213-505-8102(0) 626-722-7836
e-mail Michaelk@UnitedProjects.US
www.UnitedProjects.US

비영리법인 애양 극지에너지

ISOPE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Offshore and Polar Engineers
P.O. Box 189, Cupertino, California 95015-0189
Jin S Chung 정진수
Ocean, Arctic, Energy
www.isopec.org: jschung@isopec.org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사대 60)
(310) 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우주개발/기술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공대 64)
714-952-2240
10874 Hope St.P0 Box6034 Cyoress CA 90630
jc@taycoeng.com www.taycoeng.com

동물병원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수의대 66)
909-627-0951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수의대 67)
510-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94805

변호사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213) 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os Angeles, CA 90010



부동산/ 클리닉/ 교외

Teamspirit Investment & Dev.
이종묘(간호대 69)
714-396-0624 949-251-0404
30 Corporate Park, Ste.207, Irvine
CA 92606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농대 80)
909-882-3800(B) 714-323-8612(C)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리테일러/보석

세계보석
김광철 (음대 59)
(213)627-0547
650 S. Hill St. #E 8 LA, CA 90014

라 카나다 한인교회
독고 원(공대 65)
818-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NY-NJ 뉴욕/뉴저지

공인회계사

Changsoo Kim, CPA P.C.
* 김창수(약대 64)
(212) 760-1768 (917)647-0606
38 W 32St Suite #900 New York NY 10001
changsookimcpa@hotmail.com

Kenneth K. Lee CPA
이경림(상대 64)
(212) 768-9144
1430 Broadway Suite 906
New York NY 10018

리테일러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농대 60)
(212) 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Young Tai Choi E.A.
* 최영태(문리 67)
(212) 695-0206
13 E 30th St. 2F1 New York NY 10016

American Int'l Line, Inc.
윤병하 (농대 80)
(718) 995-7060
147-38 182nd St.Jamaica, NY 11413

건축/ 부동산

Evergreen Realty
이재원(법대 60)
201-944-5353
242 Broad Ave.Palisesades Park NJ 07650

김주현 건축사무소
김주현(공대 93)
347-213-3516
150 S. Middle Neck Rd. #1D
Great Neck NY 11021

북가주

두리 하나 결혼정보

높은 성훈율과 많은 초혼, 재혼자 데이
트 중. 서울대 동문과 동문자녀 특별할인
정지선(상대 58) 510-224-0760, 2910
Telegraph Ave. Ste.200 Oakland
CA 94609 www.2makes1.com

PA 필라델피아	MD·VA·워싱턴 DC	개령/ 보험 / 컨설팅	GA 조지아
동물병원/건축 설계/레스토랑	치과 / 부동산 / 기계 / 전기		
Cottman Animal Hospital 주기목(수의대 68) 215-745-9030 1012 Cottman Ave. Philadelphia PA 19111	이준영 치과(치대 74) (301) 220-2828 (301)926-9692 6201 Greenbelt Rd.SieU-10. College Park MD 20740 8931shady Grove Ct.Gaithersburg MD 20877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정세근(자연대 82) 703-663-8400(0) 703-785-8467(C) 1952 Gallows rd.Ste 214 Vienna, VA 22182	Auto Plaza Group, INC. 이영진(공대 76) 404-579-8282 4132 Bedford Hwy Duluth GA 30096
Timothy Haahs & Assoc. 손재옥(생활과대 77) 484-342-0200 550 Township Line Rd. Ste.100 Blue Bell PA 19422	BPS Appraisal Company 박평일(농대 69) (703) 750-1707 7518 Evans Ford Rd. Clifton VA 20124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욱현(경영대 84) 301-279-6969. 414 Hungerford Dr.#203 Rockville MD 20850	Flonomix Inc. 박희진(농대 78) 612-418-5393 P.O.7416 Beaverton OR.97007
이즈미 일식당 최종문(공대 61) (267) 408-7342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Drivetech, Inc 엄달용(공대 69) 703-327-2797 Carrington Drive, Chantilly, VA 20152		
		NV 네바다	TX 텍사스
		Best Care Dental 김영중(치대 66) 702-384-2828 702-480-7115 5205S Durango Dr. #103 Las Vegas NV89113	C&C Industries INC. 진기주(상대 60) 713-466-1644 10350 Clay Rd., Ste.250 Houston TX 77041 ko@candcvalve.com www.candcvalve.com

<27면에서 계속> ▶DC 강길중(약대 69) 강연식(사대 57) 곽근영(사대 51) 권오근(상대 58) 권철수(의대 68) 공순옥(간호 66) 김기봉(공대 63) 김내도(공대 62) 김동훈(법대 56) 김명자(법대 52) 김부근(의대 54) 김석희(의대 54) 김시환(공대 71) 김안정(문리 59) 김영기(공대 73) 김진은(사대 55) 김창호(법대 56) 김해석(공대 59) 남춘일(사대 69) 문성길(의대 63) 박경훈(상대 50) 박동수(의대 65) 박용걸(약대 56) 박인영(의대 69) 박일영(문리 59) 방정화(의대 61) 백 순(법대 58) 서윤석(의대 62) 서진석(의대 62)	서희열(의대 55) 석균범(문리 61) 송병준(약대 68) 신용계(의대 62) 안승건(문리 55) 안인옥(간호 71) 양광수(공대 73) 오광동(공대 52) 유태영(공대 57) 유재풍(법대 60) 윤경의(공대 57) 이경상(농대 80) 이규양(문리 62) 이내원(사대 58) 이문항(공대 46) 이영덕(사대 61) 이영수(공대 59) 이수안(공대 54) 이유세(사대 72) 이윤주(상대 63) 이제승(의대 55) 이종두(의대 57) 이준영(치대 74) 임창주(공대 55) 임창규(공대 62) 임필순(의대 54) 장수영(공대 57) 장윤희(사대 54) 정기순(간호 67) 정세근(자연 82) 정원자(농대 62)	정평희(공대 71) 조정운(공대 57) 조화유(문리 61) 최경수(문리 54) 최규식(상대 64) 최완열(상대 56) 최정미(사대 45) 최준호(공대 60) 한성업(의대 55) 한의생(수의 60) 한정민(농대 87) 홍영석(공대 58) 홍용식(공대 51) 황보한(공대 56)	홍계인(음대 60)	후원금 ▶Alaska 윤제중(농대 55)275 ▶Arizona 박양세(약대 48)200 최선희(자연 93) 25 ▶California 고영순(음대 59)200 김광은(음대 56)125 김인국(문리 50)300 김동호(농대 58)200 김정애(간호 69)200 김진형(문리 55)425 박종수(수의 58)225 백옥자(음대 71)200 엄동해(농대 74)200 원미량(미대 65)200 유재환(상대 67)425 이원택(의대 65) 25 이체진(문리 55)200 임춘수(의대 57)200 김정환(문리 60)200 노용면(의대 49)200 이강홍(상대 60)300 이운순(의대 52)125	▶Chicago 강수상(의대 48)200 서상현(의대 65)250 오상현(의대 65)200 이용락(공대 48)500 조보완(법대 53)200 ▶George 정량수(의대 60) 25 ▶Hawaii 김승태(의대 57)200 김창원(공대 49)200 ▶New England 윤상래(수의 62)200 정정옥(의대 60)100 ▶N.Carolina 이달호(사대 46) 25 한광수(의대 59)200 ▶NY & NJ 곽선섭(공대 61)225 권영국(상대 60)200 김기훈(상대 52)200 김정순(법대 57)200 김정환(문리 60)200 노용면(의대 49)200 이강홍(상대 60)300 이운순(의대 52)125	이은미(음대 77)200 이준행(공대48)1000 정창동(간호 45) 50 조아미(음대 61)200 최한용(농대 58)200 허선행(의대 58)200 ▶Ohio 송용재(의대 63)200 ▶Oregon 한영준(사대 60) 25 ▶Philadelphia 김국간(치대 64)200 손재옥(가정 77)500 송성균(공대 50)200 송영두(의대 56)200 윤경숙(문리 59)200 정정수(의대 56)200 정태광(공대 74)100 지홍민(수의 61)200 ▶Texas 김동수(의대 60)125 진기주(상대 60)200 ▶DC. 강길중(약대 69)200 강연식(사대 57)125 공순옥(간호 66)100	김동훈(법대 56)200 김부근(의대 54)300 박용걸(약대 56)425 백 순(법대 58)200 서윤석(의대 62)200 석균범(문리 61)200 유재풍(법대 60)200 윤경의(공대 57)200 이영수(공대 59)200 이윤주(상대 63) 25 임필순(의대 54)100 장수영(공대 57)200 정평희(공대 71)200 한성업(의대 55)200 ▶Wa.States 고광선(공대 57)500 김무웅(음대 64)225 모교 후원 윤현남(공대 64)200 광고 및 업소록 Wilshire Bank 1000 김영도(공대 67)300 김일영(의대 65)120	김창수(약대 64)120 김혜정(문리82)1600 박희진(농대 78)120 서동영(사대 60)240 손재옥(가정77)1120 이전구(농대60)1000 이준영(치대 74)120 이영진(공대 76)120 이종묘(간호 69)120 정재훈(공대 64)120 정진수(공대 56)120 하선희(치대 81)120 서울대병원 1000 2차년도 지역 동 창회분담금납부 (괄호안은 서울 2014.7~2015.6) <완남동창회> ▶NY 3000(3000)
---	--	--	------------	--	---	--	---	---

이런 일 저런 일
회장의 유서
학자요, 정치가요, 목사요, 주한 미국대사(1993 ~ 1997)였던 제임스 레이니는 임기를 마치고 귀국하여 에모리 대학의 교수가 되었다. 건강을 위해서 매일 걸어서 출퇴근하던 어느 날, 쓸쓸하게 혼자 앉아 있는 노인을 만났다. 레이니 교수는 노인에게 다가가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고 말벗이 되어 주었다. 그 후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외로워 보이는 노인을 찾아가 잔디를 깎아주거나 커피를 함께 마시면서 2년 여 동안 교제를 나누었다. 그러던 어느 날 출근 길에서 노인을 만나지 못하자 그는 노인의 집을 방문하였고, 노인이 바로 전 날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곧바로 장례식장을 찾아가 조문하면서 노인이 바로 <코카콜라 회장>을 지낸 분임을 알고는 깜

짝 놀랐다.
그 때 한 유족이 “회장님께서 당신에게 남긴 유서가 있습니다” 라며 봉투를 건넸다.
유서의 내용을 보고 그는 너무나 놀랐다.
“2년 여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 벗이 되어 주고 우리 집 딸의 잔디도 함께 깎아 주며 커피도 나누어 마셨던 나의 친구 레이니! 고마웠어요. 나는 당신에게 25억 달러와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산으로 남겨둡니다” 라고 쓰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너무나도 뜻밖의 유산을 받은 레이니 교수! 그는,
1. 전 세계적인 부자가 그렇게 검소하게 살았다는 것과,
2. 자신이 코카콜라 회장이었음에도 자신의 신분을 전혀 밝히지 않았다는 것.
3.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에게 잠시 친절을 베풀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큰 돈을 주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레이니 교수는 받은 유산을 에

모리 대학 발전기금으로 내놓았다.
제임스 레이니가 노인에게 베푼 따뜻한 마음으로 뜻 밖에도 엄청난 부(富)가 굴러 들어왔지만 그는 그 부에 도취되어 정신을 잃지 않았다.
오히려 그 부를 학생과 학교를 위한 발전기금으로 내놓았을 때 그에게는 에모리 대학의 총장이라는 명예가 주어졌다.
선한 일은,
1. 본인에게 넉넉함을 주고,
2. 상대방에게 힘이 되어 주며,
3. 주위 사람들을 흐뭇하게 합니다! ***

편집후기
O… 격려의 카드에 감사 = 해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가 되면 회보 편집실로 예쁜 크리스마스 카드나 연하장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축하와 연하(年賀)의 내용 외에도 회보 편집에 대한 격려의 글이 쓰여 있어 너무나도 황송하기 이를 데 없는 일

Humour
Practice Shot
A father, an avid golf player couldn’t help challenging his son to a game of golf. He was in for quite a surprise when on the first swing his son got a hole in one. “O.K”, the quick – thinking father said, “Now I will take my practice shot, and then we will start.” “? ? ? ? ? ? ? ?” ***
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이에 대한 답신을 일일이 헤드리지 못하고 있어 송구하기 그지없습니다. 비록 이 지면으로나마 다시 한번 감사와 고마움을 전해드리며 더욱 분발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O…명단 누락 동문들께 죄송 = 2014년 7월 ~ 2015년 6월 회기 동창회비를 내신 분 중 지난 해 10~12월호에서 이름이 누락된 분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인은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의 오류 때문이었습니다. 매월 명단을 복사해서 다음 달로 옮기는 과정에서 파일 중 무작위로 몇 명의 이름만 누락되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직 뚜렷한 원인을 찾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보다 주의를 기울여 이같은 일의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편집주간>



미주 동창회 조직과 임원단

서울대 미주 동창회 제12대 회장단 및 임원

역대 회장

박윤수(문)·강수상(의)·이병준(상)·오인석(법)·이용락(공)·오흥조(치)·이영목(공)·이전구(농)·송순영(문)

명예회장：김은중(상)

제12대 회장：오인환(문)

차기 회장：손재옥(가정)

관악후원회 부회장：김인순(가정)

Brain Network담당 부회장：이채진(문)

미 주류사회 담당 부회장：공순옥(간)

사회봉사 담당 부회장：권기현(사대)

상임고문：박윤수(문)·이영목(공)

집행부 임원

사무총장：정평희(공) 총무국장：한정민(농)

조직국장：백옥자(음) 재무국장：유홍열(자연)

광고국장：함은선(음) 사업국장：김정식(농)

섭외국장：이우진(농) 기금모금위원장：권철수(의)

IT개발위원장：손재옥(가정)

회보 임원

발행인：오인환(문)

주필：백순(법)

편집위원장：장경태(사)

편집주간：이기준

편집위원：윤경의(공)·서윤석(의)·이윤주(상)·이해덕(상)

정평희(공)·김정식(농)·진학송(약)·함은선(음)

이나래(경)·각 지역 동창회 편집간사

Homepage Webmaster：김원영(미대 82)

논설위원장：이항열(법)

논설위원：김일훈(의)·고병철(법)·조동준(의)·이채진(문)

최용완(공)·정홍택(상)·윤상래(수의)·김창수(약)

차민영(의)·이석구(문)·김용현(경)·유재풍(법)

장석정(법)·하용출(사)·민경훈(법)·이원영(정)

회칙위원회

위원장 = 한재은(의)

위원 = 서중민(공)·이민연(법)·윤상래(수의)

김지영(사)·신응남(농)·함은선(음)

감사：박평일(농)·주기목(수의)

*사진·취재·기사작성·편집·디자인= 이기준 편집주간
snuaausalkj@gmail.com. snuaausa12@gmail.com

*인쇄= Silver Communications
102-A Executive Dr., Sterling, VA 20166

각 지역 동창회 회장단

남가주	회장	이서희(법대 70) 213-840-2064 sleelapt@gmail.com	회계년도 Feb-Feb
	차기회장	박혜옥(간호대 69) 818-952-2871	
북가주	회장	박희례(간호 73) 831-818-2959 acuheerei@hotmail.com	Jan-Dec
	부회장		
뉴욕	회장	곽승용(의대 65) 347-506-0478 syngkwak@yahoo.com	Jan-Dec
	차기회장		
뉴잉글랜드	회장	장수인(음대 76) 978-821-9434 sooihnee@comcast.net	
	차기회장	이경애(인문 73) 978-479-0046 kyungaelim@gmail.com	
달라스	회장	최연(공대 70) 817-919-3057 younchoy@sbcglobal.net	
	차기회장	오기영(공대 73) 214-457-7974 kiyoungoh@gmail.com	
룩키마운틴스	회장	송요준(의대 64) 970-396-0616 yojunsong@me.comviacomcast.net	
	차기회장		
미네소타	회장	조해석(공대 84) 952-807-6559	
	차기회장		
샌디에고	회장	김주성(농대 83) 858-213-5666 briankim00@yahoo.com	Jan-Dec
	부회장		
시카고	회장	김호범(상대 69) 847-657-8919 hkim@moogong.com	Jan-Dec
	부회장	김용주(공대 69) 630-235-9387 kimyongjoo@msn.com	
애리조나	회장	오윤환(문리대 56) 520-271-2601 younhwan-oh@yahoo.com	
	차기회장		
앨라스카	회장	윤제중(농대 55) 907-223-0887 jaejyoon@hotmail.com	
	차기회장	배석현(농대 58) 907-561-0818	
오레곤	회장	김기린(사대 75) 360-213-5476 blueberryfield@gmail.com	
	차기회장		
오하이오	회장	송원길(의대 58) 614-378-2918 wonsong3140@aol.com	
	차기회장		
워싱턴 DC	회장	장경태(사대 75) 703-901-3770 jangkent@gmail.com	Jul-Jun
	차기회장		
워싱턴주	회장	이원섭(농대 77) 206-954-1871(C) wonlee@qbmintl.com	
	수석총무	임현민(공대 84) 425-444-3899 heonmin.lim@microsoft.com	
유타	회장	정경완(자연대 83) 801-897-4060 Kyungwan@mathradar.com	
	부회장		
조지아	회장	강창석(의대 73) 314-363-8396 kangs5@gmail.com	
	부회장		
중부 텍사스	회장	김성근(법대 78) 512-750-4680 hi5chris@gmail.com	
	부회장	이주희(음대 89) 512-663-0931 Juhee.williamson@gmail.com	
필라델피아	회장	전방남(상대 73) jeonbana@gmail.com	Jan-Dec
	부회장	유영진(경영 85) 215-307-0001 yxy23yoo@gmail.com	
플로리다		조동건(공대 69) 561-213-8228 dcho0806@bellsouth.net	
캐로라이나	회장	정신호(자연대 78) 919-928-9696 sinho.jung@duke.edu	
	차기회장	이상구(자연대 78) 919-610-2830 slee109@nc.rr.com	
테네시	회장	박재현(자연대 81) 865-696-9066 jae.park99@gmail.com	Jan-Dec
	부회장	백승준(농대 85) 865-974-8216 865-671-3602 sbaek2@utk.edu	
하와이	회장	성낙일(해양 77) nsung@hawaii.edu	
	차기회장	전수진(식공 89) soojin@hawaii.edu	
하틀랜드	회장	이상강(의대 70) 918-687-1115 wanjunhada@gmail.com	
	차기회장		
휴스턴	회장	이호성(공대 72) 281-877-6584 hlee@eagle.org	Jan-Dec
	부회장	최인섭(공대 75) inchoi@msn.com	
캐나다 밴쿠버	회장	이명규(농대 69) 778-378-7339 nycmikelee@gmail.com	
	부회장	김종욱(공대 70) 604-524-0101	
캐나다 앨버타	회장	조용희(자연 82) 403-620-8261 dalhousiedq@hotmail.com	
	부회장		

A Tasty Gift From The Sea
Seaweed Snacks are versatile and can be used for a variety of dishes!

Dish Pizza Salads Soups Sushi

USDA ORGANIC

Seas Gift
Roasted Seaweed Snacks
Japan's most popular seaweed gift

SUSHI NORI
Sushi Nori
Japan's most popular seaweed gift

대표 이승훈(상대 74)

Jayone 562-633-7400 562-633-7474
facebook.com/JayoneFoods twitter.com/JayoneFoods youtube.com/user/Koreanfoodmart

877-HAPPY-81
장경태(사대 75)
novita usa
Something better for you

JW 토닉 샴푸
HAPPY SEEDS INCORPORATED

세정력의 차이!
욕실품격의 완성
노비타 비데

• 서울대 동문에게는 1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대표이사 김해정(82入, 문리대) www.duo.co.kr

좋은사랑 만나 결혼해 듀오

믿을 수 있는 한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본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결혼' 하면 누구나 듀오를 떠올립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대한민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믿을 수 있는 듀오에서 당신의 인연을 만드세요.

♫ 듀오

- 소비자가 인정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규모와 믿음, 서비스까지 고객이 인정하는 결혼정보회사입니다.
- 듀오만의 매칭 프로그램: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매칭 프로그램으로 이상형을 찾아드립니다.
- 배려와 케어메니저: 전문적이고 믿을 수 있는 케어메니저가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 드립니다.
- 본국 회원검색: 본국 회원과의 만남을 원할 경우, 2만 6천명이 넘는 회원 중 가장 잘 맞는 상대를 찾아드립니다.

한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LA지사 3055 Wilshire Blvd. #505 LA, CA 90010 / 뉴욕지사 2050 Center Ave. Suite 540 Fort Lee, NJ 07024

문의 LA 213-383-0077 / NY 201-242-0505

재미서울대 여행동아리와 함께하는 한스여행사!

한스에서 미리 계획하는 일정들은 모두 한스 단독으로 진행되는 맞춤 여행 패키지들로 여행 첫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직접 한스의 전문 인솔자가 모시고 가고 호텔, 식사 모두 upgrade 된 고품격 패키지입니다. 모든 여행은 고객들의 신청에 따라 특별히 진행되며 어떤 여행 패키지도 10분 이상만 되면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날짜와 원하시는 일정에 맞춰 맞춤 패키지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동창회, 친구들끼리 여러분들만의 특별 여행을 새롭게 만들어 드립니다.

재미 서울대 여행동아리와 함께 했던 여행지들

2014-2015년 한스관광이 직접 모시고가는 여행

- 5월4일 - 5월13일 - 2014년 SNU 단체 여행: BENELUX 3 COUNTRIES & NORMANDY, FRANCE 9박10일 "잘 다녀 왔습니다" NETHERLANDS(암스텔담, 튜립 축제 참가, 노트르담)- BELGIUM(브뤼셀, 브뤼헤) - LUXEMBOURG (룩셈부르크) - FRANCE NORMANDY(도빌, 몽생미셸, 루아르)
- 7월4일-7월16일: 1차/ 7월28일-8월10일: 2차 RUSSIA & N.EUROPE 13박14일
- 7월8일 - 7월14일 -AMAZING KOREA TOUR 6박7일 - 2세대를 위한 영어 가이드 투어
- 9월4일 - 9월14일 -WESTERN EUROPE 10박11일
- 9월12일 - 9월21일 - BOHEMIAN EASTERN EUROPE 9박10일
- 9월21일 - 9월28일 - 크로아티아의 휴일 7박8일
- 9월22일 - 10월4일 -GREECE / TURKEY 12박13일
- 9월25일 - 10월12일 -PORTUGAL / MOROCCO /SPAIN 13박14일
- 10월7일-10월15일: 1차/ 10월15일-10월23일: 2차 고국 전국일주 동서남해안, 홍도, 흑산도 8박9일
- 10월23일 -10월28일 -THE BEST OF CHINA 서안, 장가계 계림 5박6일
- (특별출발) -THE BEST OF CHINA & ESSENCE OF SOUTH EAST ASIA
- 10월23일 -11월2일 중국(서안, 장가계, 계림) - 베트남 (하노이, 하롱 베이) - 캄보디아(앙코르와트) 10박11일
- (특별출발) ESSENCE OF SOUTH EAST ASIA
- 10월28일 -11월2일 -1.베트남 (하노이, 하롱베이)- 캄보디아(앙코르와트) 5박6일
- 10월27일 -11월7일 -HOLYLAND & THE BEST OF JORDAN 11박12일
- 2015년.....
- 1월19일 -1월29일 - INCREDIBLE INDIA (산비의 인도 여행) 10박11일
- 2월5일- 2월15일 PATAGONIA SPECIAL 10박11일 BUENOS AIRES, USHUAIA, EL CALAFATE
- 2월7일 - 2월12일 - 여자들끼리 가는 PUNTA CANA GOLF TOUR 5박6일
- 3월29일 - 4월4일 -SPRING BREAK SPECIAL - SPAIN 6박7일
- 4월 10일 - 4월17일 - GREEK ISLAND CRUISE & ISTANBUL 7박8일. ISTANBUL, MYKONOS, SANTORINI, ATHENS
- 4월14일 - 4월22일 - 고국 맛자랑, 멋자랑 남해안, 홍도, 흑산도, 해변열차 8박9일
- 4월17일 - 4월26일 - AMADEUS EASTERN EUROPE 9박10일
- 4월26일 - 5월9일 - PORTUGAL, MOROCCO, SPAIN 13박14일
- 5월4일 - 5월15일 - WESTERN EUROPE 11박12일
- 5월18일 - 5월28일 - NORTHERN SPAIN 10박11일
- 5월30일 - 6월7일 -TASTE OF SPAIN -SPECIAL 7박8일

한스관광 HANS WORLD TRAVEL
Toll Free: 800-963-4267 / T. 703-658-1717, 301-770-1717, 410-480-9898
Fax. 703-658-3110, www.hanstravel.com, 7601 Little River Tnpk, Suite 102, Annandale, VA 22003

1차 2007년 중해 크루즈 여행 2차 2008년 이집트와 나일 크루즈 3차 2009년 네덜, 인도 여행 4차 2010년 러시아, 발틱 여행 5차 2011년 페루 브라질 여행 6차 2012년 발칸반도 9개국 여행 7차 2013년 아프리카 사파리 투어 8차 2014년 베네룩스 3국 투어

Celebrating 35th Anniversary (1979 – 2014)



Public Works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Management Services in

**Water Treatment Plants
Wastewater Treatment Plants
Pump Stations
Conveyance Pipelines**

For Government Agencies including
Cities, Counties, Water Agencies,
and Sanitation Districts



 **LEE & RO, Inc.**
www.LEE-RO.com

Mr. Steve Ro, President / CEO
노명호 (공 61)

City of Industry

San Diego

Sacramento

Walnut Creek